•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0월 15일(음력 9월 17일) 수요일(주간)

"譯經 인력·재원 없어 역경"
〈역경〉 〈逆境〉

동국역경원, 대강백 초청 설명…활로 모색

2001년 9월 6일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열린 서울 장충체육관은 1만여 대중으로 가득 찼다. 불법 전래 1600여년, <고려대장경> 완성 700년 만에 우리말로 다시 태어난 <한글대장경>에 불자들은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 설립 37년 인고 끝에 318책을 발간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에는 찬사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역경사업은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조계종 3대사업이다. 하지만 종단 내 역경원 위상은 초라하다. <한글대장경>은 오역과, 누락 등 불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대중적이지 못한 분류법에 연구자들마저 외면한다.

이런 가운데 동국역경원은 10월 9일, 롯데호텔에서 '전국 대강백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단적 관심과 지원을 긴급호소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강백은 10여명. 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통광 스님(칠불사 회주), 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정원 스님(능엄학림 학감), 초격 스님(중앙종회 의원), 묘엄 스님(봉녕사 승가대학장), 혜원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이 참석했다.



10월 9일 동국역경원 주최 전국대강백 초청 설명회에 참석한 대강백들. 사진 왼쪽부터 통광 스님(칠불사 회주) ·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 월운 스님(역경원장) · 혜거 스님(금강선원원장). 사진=박재완 기자

#오류 · 누락부터 바로 잡아야

종진 스님은 ▲<고려대장경>과 다른 편제 ▲오역 · 누락 ▲혼재된 문체 등을 지적했다. 스님은 "<한글대장 경>이 <고려대장경>과 편제도 다르고 내용도 부실하다. <신수대장경>의 오역과 누락을 답습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말했다. 문체의 혼용에 대해서는 "한 계송이 3가지 문체인 경우도 있다. 직역과 의역이 섞여있다"고 설명했다.

혜남 스님은 "직역하면 한문이 낫다하고, 의역하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국에서 역경할 때는 번역자와 필력자, 윤문자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공동번역을 하더라도 윤문과 감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광 스님은 "번역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전산화를 우선하고,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작업 하면 용이할 것"이라 제안했다.

#대중에 부합해야 좋은 번역

종범 스님은 "글만 새기는 것이 번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운허 스님의 <능엄경>은 의미전달에 충실하고, 탄허 스님 번역들은 한문을 어떻게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사례"라고 소개하며, 단순 한자 번역이 아닌 대중에 부합하고, 호응된 번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혜남 스님도 "대만 불광사를 찾았을 때 법회를 마친 성운 스님에게 스님의 모친이 '어머니가 아들 말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들었겠느냐'며 꾸지람하는 것을 들었다"며, 대중에 부합된 번역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광 스님은 "<한글대장경> 발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중요경전을 선택해 대중적으로 재가공해 유포하자"고 말했다. 정원 스님은 "<한글대장경> 읽기 가이드를 제공해 일반 불자들이 <한글대장경>을 쉽게 읽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 제안했다.

#완간 후 피드백 결여

종범 스님도 역경의 ▲시대성 ▲필요성 ▲대중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2001년 회향 후, 대중의 반응을 살폈는지 묻고 싶다"며, "일반 불자와 전문가 중 누가 읽고 있는지, 어떤 경전이 주로 읽히는지를 살펴 이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거 스님은 "민추(現 한문고전번역원)는 고액의 회원등록을 해야 낱권 구입이 가능하다"며, "번역사도 양성하며 독자운영 하는 민추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1사찰 대장경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역경사 양성 중요

혜거 스님은 역경사 양성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스님은 20여년 전부터 금강선원 신도들에게 한자교육을 강화해 성공한 사례를 들어, "일반인을 역경사로 양성하자"고 촉구했다. 혜거 스님은 "역경사의 신분과 재정 보장이 역경사 양성에 중요하다"며, "불교대학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활용해 역경관련 학위를 주자"는 제안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혜원 스님도 <한국불교전서> 번역 사업 진행의 어려움 등을 들어 역경인력의 확충을 촉구했다.

#종단 관심과 지원 뒤따라야

초격 스님은 역경도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역경에 정진하는 역경도량과 별도로 역경후원사찰을 두자"고 제안했다. 묘엄 스님 등은 "역경원 사업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역경원은 2009년 회향을 목표로 <한글대장경> 전산화와 개역작업을 병행 중이다. 디지털화한 대장경 콘텐츠를 음성 및 점자로도 제공하고, 사지와 사기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번역사업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지환 스님


강선희


김미숙


김희종


박영재

창간 14주년 특집 48면 발행


서래 스님


강혁모


김성동


박광서


박종린

A 선지식을 찾아서 지환 스님 12~13면
해군중앙법당 통해사 일요법회 5면
통도사 금강계단의 영기화생 강우방 18면

B 창간 14주년에 만난 불자
서래 스님이 서쪽에서 온 까닭은? 1~2면
불자스타 이의정의 '지혜로운 삶' 3면
'절 아닌 절'에 사는 소설가 김성동 4면

자기계발, 자기 안에 있다 5~6면

지상포럼, 종교편향 시작과 끝을 말하다
다종교 사회 종교활동…박광서 8면
불교계 대응논리와 내적자성…김광식 9면
법제화의 필요성과 전망…조문환 10면

생활 속 수행의 달인들 15~18면


신용산


이의정


이종린


전병룡


조문환


김광식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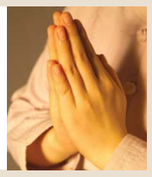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서에 발송중>
독자께서 보내주신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주요부서에 본지를 발송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토해양부 주요 부서에 신문을 추가로 발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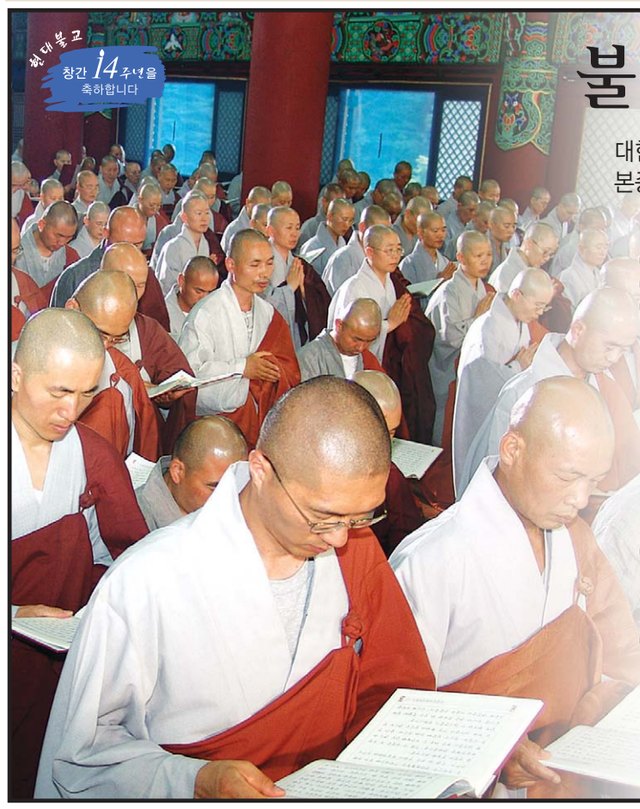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 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 고 일 : **불기 2552(2008)년 11월 3일(월, 음력 10.6) ~ 11월 12일(수, 음력 10. 15)**
-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동시충족)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포살 및 결계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 · 사미니는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2011-1710)**

불계 2552(2008)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해외포교로 노벨문학상 수상 앞당겨야

수년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고은 시인이 올해도 세계문학의 높은 산을 넘지 못했다.

2005년부터 연이은 고은 시인의 고배는 유럽의 문화적 텃세와는 별개로 한국작품의 번역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웃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2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으로 1968년에, 오에 겐자부로가 1994년 '만엔원년의 풋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1979년부터 1000여권의 도서 번역을 지원한데 비해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2만여 종의 해외출간을 지원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보다 20배 가까이 자국문학의 해외출간에 공을 들인 오랜 노력의 결과다. 물론 그 이면에는 메이지유신 등을 거치며 일본을 서구에 일찍 알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9월 29일, "1970년대 이후 영어로 번역된 장·단편소설 41편 70종 가운데 41%(21종)가 충실성과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C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영미권 독자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 A등급 작품은 10%(7종) 뿐이었다. 번역의 양과 질 모두 문제임은 틀림없다.

이처럼 노벨문학상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고민하듯, 불교계 구성원 다수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장한다. 이들은 영문불서 간행과 보급, 해외포교승 파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1897년 미국에 건너간 스즈끼 다이세쯔는 영문 저술을 통해 서양에 젠(zen)을 소개했다. 티베트 승려들이 미국에 상륙한 것이나, 숭산 스님이 하버드대 대학원생인 현각 스님을 제자로 거둔 것도 영어로 법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까무잡잡하다'를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번역기술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문화가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문학에서 불교를 빼놓을 수 없기에 불교도서의 번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욱이 고은 시인 작품의 사상적 배경은 불교가 아니던가.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한국불서의 영역 출간 등을 목표로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을 진행중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 '해외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번역 인력과 예산 확보다. 이들의 고충을 정부가 나서 해결한다면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조계종 웹도서관 오픈

37만여 기록물 검색 가능·고승자료 수집도

37만 여건의 불교관련 기록물과 2만5000여권의 불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불교정보 포털서비스가 시작됐다.

불교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조계종 중앙기록관(관장 원학, 총무원 총무부장)은 10월 6일 홈페이지(lib.buddhism.or.kr)를 통해 웹도서관을 오픈했다.

이 웹도서관은 기존 불교서적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각종 학위논문과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불교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적의 목차와 서평, 요약문도 싣고 있어 원하는 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서점 사이트와 연계돼 있어 새로 나온 불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웹도서관은 중앙기록관이 소장한 도서 이외에도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적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회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있어, 불교관련 현안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언론과 일반 언론에 제재된 '최신 언론사 뉴스' 코너도 불교뉴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특히 웹도서관은 오프라인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웹도서관에서 검색한 도서가 중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 기록관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사도 가능하다. 기록관은 향후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중앙기록관은 이와 함께, 사찰별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도 펼친다. 기록관에 들어오는 장서 가운데 겹치는 서적을 골라 지원을 원하는 사찰에 배포하고, 불서 보내기 캠페인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중앙기록관은 불교관련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수집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근현대 고승은 물론 역대 종정, 총무원장, 제방 스님들의 기록물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은 본·말사에서 보존중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기록관 관장 원학 스님은 "중요 스님의 기록물의 수집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불교사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술적 목적 등의 활용을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 이용서비스의 확대를 이룰 수 있다"면서, 자료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환경보호' 주제 제11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개최 제1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가 10월 9~11일 제주도에서 3국 불교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10일 관음사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후 가진 기념촬영 장면. 사진제공=조계종. 김성우 기자

"출가자 인권 위해 견제장치 등 필요"

김종빈 前 검찰총장, 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서 주장



"승려법에는 사형 등 생명과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없지만 승적박탈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빈 前 검찰총장(변호사·**사진**)은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에서 조계종 양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기소절차와 호법부의 구형제도'를 발제한 김 변호사는 출가자 인권보호를 위해 처벌절차법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조계종은 법이 아닌 호법부 '업무규정(종령 제86호)'과 '사건사무규정(종령 제93호)' 등 종령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호법부장에게 치중된 호법부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호계원·호법부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소시효제도가 호법부의 징계회부에는 없다"며, "자의로 특정 승려의 오래된 비위를 들춰내 징계회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홍성칠 변호사(前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와 정준현 학장(단국대 법과대)이 각각 '심판행위와 호계위원의 양형제도'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를 각각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전통사찰 규제법령 일원화 논의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 1차 회의 열려

불교계 관련 규제와 법령, 제도 정비를 위한 교계·정부간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 1차 회의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제2차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TF팀은 불교계와 청와대, 문화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됐다. 팀장은 문화부 권경상 종무실장이다.

교계 관계자와 정부부처 실무과장급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전통사찰을 이·삼중 규제하고 있는 '7개 정부부처 16개 법령의 일원화 문제와 현황'에 대해 논의 했다.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은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됐지만, 정부 부처별 법안과 상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기획실 고상현 주임은 "TF팀은 전통사찰 규제를 전사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및 각 부처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전통사찰 보존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상 문체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이상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올해안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은 1차 회의에서 교계 측이 제출한 안에 대해 정부와 교계의 검토·협의 후 10월 16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포교부장에 계성 스님
조계종 포교원 인사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10일 포교부장에 계성, 포교연구실장에 동성, 포교국장에 부명, 신도국장에 정무, 사무국장에 원교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사진**)은 1977년 화계사에서 종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원 교육부장(1999~2001), 전등사 주지,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유가사 주지 및 예비역군승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은사는 서운 스님.

노덕현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 지관 스님 예방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정감사기간(10월 6~25일) 첫날인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동안 나라의 발전동력과 국토잠재력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일정 중 해인사를 방문해 법전 종정스님도 예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봉행

부처님진신사리 8각10층 석탑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조계사 28고승초청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조상천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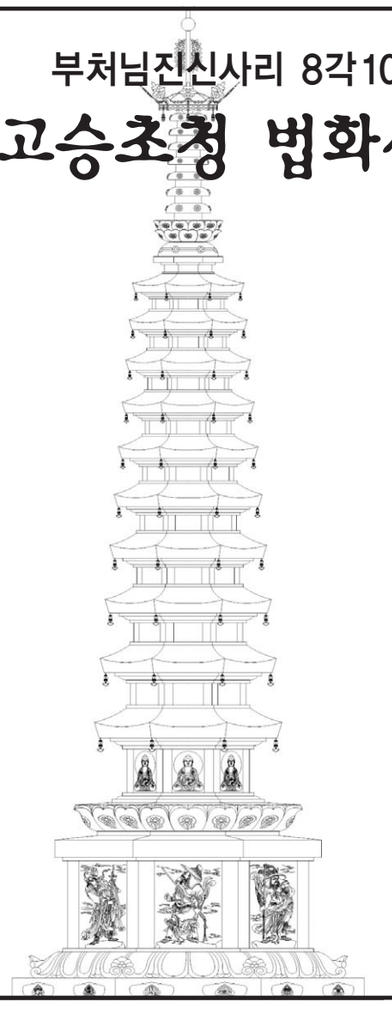
입재법어

[2008년 11월 28일(음. 11.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조계사에서는 법륜상전과 국태민안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부처님진신사리 8각 10층 석탑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총무원장큰스님을 비롯한 28분의 원로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옵니다.

◆일시 : 2008년 11월 28일(음. 11. 1) ~
2009년 6월 5일(음. 5.13)
매주 금요일 10시

◆문의 : 종무소 02)732-2115



불기 2552(2008)년 법화산림법회 일정 및 법사스님

순서	일정 양력	일정 음력	법문내용	법사스님
1	11. 28	11. 1	서품(序品) 第一	지관 큰스님
2	12. 5	11. 8	방편품(方便品) 第二	무진장 큰스님
3	12. 12	11.15	비유품(譬喩品) 第三	월운 큰스님
4	12. 19	11.22	신해품(信解品) 第四	정무 큰스님
5	12. 26	11.29	약초유품(藥草喩品) 第五	무비 큰스님
6	1. 2	12. 7	수기품(授記品) 第六	법산 큰스님
7	1. 9	12.14	화성유품(化城喩品) 第七	해남 큰스님
8	1. 16	12.21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 第八	원학 큰스님
9	1. 23	12.28	수학무학인기품(數學無學人記品) 第九	무관 큰스님
10	1. 30	1. 5	법사품(法師品) 第十	흥교 큰스님
11	2. 6	1. 12	견보탑품(見寶塔品) 第十一	도문 큰스님
12	2. 13	1. 19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第十二	인환 큰스님
13	2. 20	1. 26	권지품(勸持品) 第十三	지하 큰스님
14	2. 27	2. 3	안락행품(安樂行品) 第十四	종진 큰스님
15	3. 6	2. 10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第十五	월파 큰스님
16	3. 13	2. 17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第十六	도영 큰스님
17	3. 20	2. 24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第十七	혜인 큰스님
18	3. 27	3. 1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第十八	지관 큰스님
19	4. 3	3. 8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第十九	성우 큰스님
20	4. 10	3.15	상불경보살품(常不經普薩品) 第二十	근일 큰스님
21	4. 17	3. 22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第二十一	밀운 큰스님
22	4. 24	3. 29	촉루품(囑累品) 第二十二	혜창 큰스님
23	5. 1	4. 7	약왕보살본사품(藥王普薩本事品) 第二十三	현해 큰스님
24	5. 8	4. 14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第二十四	청화 큰스님
25	5. 15	4. 21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세민 큰스님
26	5. 22	4. 28	다라니품(陀羅尼品) 第二十六	응산 큰스님
27	5. 29	5. 6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	혜총 큰스님
28	6. 5	5. 13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	지관 큰스님

“113만 서명돌파, 이제는 정부차례”

종교인들, ‘한반도 화해 · 평화 위한 100만인 국민서명’ 전달식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113만 명이 마음을 모았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10월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100만인 국민서명’ 결과보고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

통일부 및 청와대, 국회 등에 북한 인도적 지원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달식에는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당회장) 등 종교인 30여 명과 정의화 국회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서명운동을 직접 펼친 정토회 관계자들과 배종옥, 김여진, 한지민 등 연예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명운동은 6월 26일부터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를 시작으로, 불교, 개신교 등 많은 종교인들이 동참했으며 서울, 부산, 마산,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와 워싱턴, 뉴욕, LA 등 해외에서도 진행됐다. 전달식까지 총 113만 514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법륜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 정부는 정치에 관계없이 북한 아이들과 노인들이 굶어죽지 않게 긴급식량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정의화 의원은 “한민족이 굶어죽는 것을 모른 척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며 “국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영 스님을 포함한 종교인 대표 5인은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드리는 글’이란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북한주민 식량난 해결위한 20만 톤 긴급식량 지원 ▲북한경제개발기금위한 정부예산 1%적립 ▲남북화해와 다양한 교류협력지속을 요구했다.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모임’은 10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100만인 국민서명 결과보고 및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달식에서 서명용지를 전달받은 종교인 대표들은 이날 오후 통일부장관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박진 의원(한나라당),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서명을 전달했으며, 향후 국회 일정에 맞춰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진주 남강유등축제 3년연속 최우수축제 진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용호)은 10월 1~12일 진주 남강 일대에서 열린 ‘2008년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성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남강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한국문화재 명인·장인의 만남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展 18일부터 덕수궁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최기영)는 10월 18~31일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을 연다. 대목 · 소목 · 목조각 · 석조각 · 칠공 등 13개 분야의 143명이 참가, 160여 점의 출품작 가운데 11작품만을 엄선,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오백만원이 수여된다.

연꽃과 모란꽃을 고전과 현대미로 조화시킨 투각 작품 ‘불명패(임일규作)’를 비롯해 우리의 전통 방식을 고수한 작품 ‘평양반닫이(양현승 作 · 사진)’ 등 젊은 신진 작가와 중진들이 펼치는 문화재의 어울림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 · 수리 · 복원하는 문화재기능인



자격증을 취득한 18개 직종 4700여 문화재기능인들의 비영리법인 단체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문화재 단체다. 문화재기능인의 작품제작과 기술능력을 연마하고 전수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한국전통의 아름다움을 내 · 외국인에게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가연숙 기자

경기도 문화재조례 개정

교계 반발 예상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 등 경기지역 사부대중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문화재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9월 12일 열린 제235회 4차 본회의에서 이경천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70여 명이 2007년 5월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 83명 중 찬성 72명(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수정의 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문화재 주변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세계문화유산까지도 500m에서 200m로 일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용주사 등 전통사찰에서 200m 거리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 수행환경 훼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 등 교계는 지난해 조례개정 발의 당시부터 조례개정에 반대하고 성명서 등을 통해 부당성을 알려왔다. 용주사 등 지역불교계는 반대집회도 개최했었다. 그러나 불교계가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을 벌인지 1년 후 경기도는 슬그머니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동섭 기자

천은사 탱화

디지털 기술로 복제

빼어난 수작이지만 심한 훼손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천은사 석가모니괘불탱(보물 제1340호)이 디지털로 복원돼 눈길을 끈다.

천은사(주지 영관)는 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소장 송정수), 디지털리크리에이션그룹(대표 손태호)과 함께 천은사 괘불탱을 디지털 기술로 복제하고, 이를 별도의 괘불로 제작했다.

천은사 괘불탱 복원에는 국내 최초로 정밀 디지털 다분할 복제 방식이 사용됐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복제하는데 사용됐으며, 이탈리아와 일본 등 일부국가만 보유한 기술이다.

손태호 대표는 “천은사 괘불탱 복제에 사용된 기술은 유효화소만 138억 화소에 달하는 정밀 기술로 동양권에서는 처음 시도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디지털 복제된 천은사 석가모니괘불탱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10월 12일 점안식 봉행 후, 13~14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 11월 1일 두류공원서

7일 대구 보현사서 종교차별반대 결의대회 일정 확정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이하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가 11월 1일 오후 2시 대구 두류공원에서 봉행된다.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봉행위 소위원회는 10월 7일 대구 보현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 불자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는 “대회기조 및 방향은 종교차별 금지입법 촉구 등 8 · 27 범불교도대회의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갈등해소, 성시화 운동 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명칭은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시화운동 참여 공직자 거부운동 선언, 범불교대책위원회 대구경북지부 출범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전환했다.

집행위원장에는 동화사 총무국장 현관 스님, 사무처장에는 은해사 총무국장 하종 스님, 사무부처장에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 이만희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는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 총무국장스님을 비롯해 16개 종단 대표, 비구니스님 대표 3인, 재가신행단체 대표 5인 등 총 2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부(회장 이만희)는 10월 18일 오후 1시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3시부터 대구역에서 보현사까지 3보1배를 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불교TV 휴대폰으로 본다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불교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불교TV가 KTF와 제휴해 ‘붓다월드’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개시했다.

‘붓다월드’는 KTF SHOW폰을 통해 불교TV 다시보기, 우리 절 소식, 붓다테인먼트, 불교정보 검색, 아름다운 세상 등 총 5가지 목록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108+SHOW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월정액 가입하면 되며, 월 사용요금은 2,500원(VAT별도)으로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는 추가로 과금되지 않는다. 김성우 기자



'반갑다 연우야'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가 청소년 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부설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는 종로구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10월 18일 종로구청 내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엄인웅(서울인치과 원장) 진료단장은 "이날 치과 검진 및 치석 제거, 잇몸치료, 충치치료를 실시한다"며 "10월 25일에는 은평구 내 은평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검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갑다 연우야'는 2006년 4월 13일부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종합검진차량과 치과 치료 차량 각각 1대를 이용해 노인복지시설, 농촌지역, 고아원, 장애인 시설, 수해지역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2)732-7272

이상언 기자

40~60 MY해피타임 수강생 모집

불교아카데미가 주최하고, NGO미래경영연구소가 주관하며, 조계종 사회부에서 후원하는 '40~60 MY해피타임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강좌는 중·장년층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개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시범 프로젝트. 불교아카데미는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만해NGO 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총 8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정원은 총 40명, 접수마감은 10월 19일. 문의 (02)2278-1087.

김성우 기자

제6회 대원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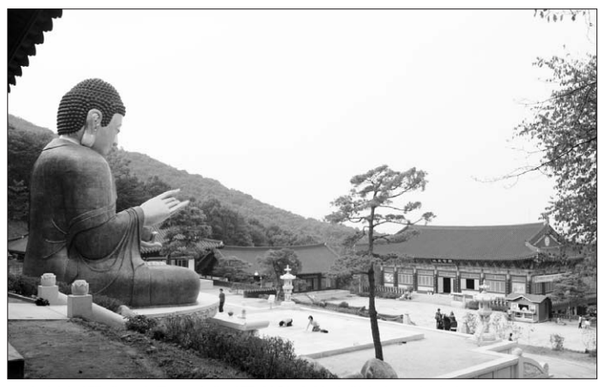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제6회 대원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승가재가단체별 대상과 불교진흥아이디어상 등으로 나뉘어 시상되며, 11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02)719-1855

조동섭 기자

통일염원·신도시 포교 '자리매김'

파주 교하 심학산 약천사 19일 약사대불점안법회





3년간 불사끝에 모습을 드러낸 파주 약천사 약사대불과 도량 전경.

2012년 인구 20만 명을 내다보는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출판단지와 오두산 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디스플레이단지 등 입지여건에 힘입어 인구밀집도가 상승되고 있는 교하신도시가 불교 포교의 새로운 전략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교하신도시의 중심부에 솟은 심학산 자락에 자리한 약천사(주지 허정 · 사진)가 15년간의 도량 중창불사를 마치고 교하신도시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나섰다. 약천사는 지난 15년 간 지장보전 등의 당우를 신축하여 사격을 갖춰 오면서 남북통일과 국운융창발원기도를 비롯한 각종 기도와 불교교양대학을 통한 포교불사를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사찰과 신도회가 한 뜻으로 약사대불 봉안 불사를 추진해 높이 14미터(좌대포함)의 약사대불좌상을 봉안했다. 오두산 전망대 너머 멀리 북녘 땅이 보이는 자리에 약사대불을 모심으로써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남과 북녘동포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시킨 것이다.

약천사는 100일기도를 회향하는 10월 19일 오전11시부터 '남북통일 염원 약사여래대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1부 법요식과 2부 순국영령군관민 천도재 3부(오후6시) 기념음악회로 진행된다. 법요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어를 할 예정이며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풍선 띄우기도 펼쳐진다. 기념음악회에서는 송대관 이광조 원미연 백미현 등 인기 가수와 소리꾼 조선주 교수(한양대)의 판소리 등이 공연된다. 인디밴드와 난타 농악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약천사는 지난 7월 10일 '약사여래 사경복장법회'를 열고 남북통일과 국태민안, 개인의 건강과 행복 등을 염원하는100일기도에 입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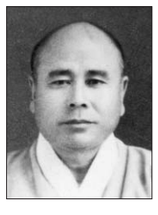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은 "북한 땅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염원을 승화시킬 수 있는 도량이고 신도시라는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 적극적인 포교를 펼쳐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도량"이라며 "약사대불 점안법회를 시작으로 남북통일염원 기도를 쉬지 낮고 진행할 계획이고 지역민을 위한 각종 문화 활동과 시민선방 운영 등 전법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31)942-1252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출간

10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법회



불교승단정화운동은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화불사 주역으로 간화선과 두타행을 실천하며 선풍진작에 힘썼던 금오스님(사진) 현창사업이 본격화 됐다.

금오선수행연구원(원장 월서)은 금오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을 출판하고, 10월 15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법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1부 봉정식에 이어, 2부에는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 윤청광 작가, 월탄 스님의 강연과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책은 전 2권으로 출간됐다. 제1권은 ▲한국불교의 정통성 ▲조선시대 숭유억불로 인한 불교의 몰락 ▲일본의 강제합병과 왜색불교 침입으로 인한 대처승들의 득세 ▲금오 스님의 수행사찰 발언에 따른 불교정화운동의 시작 ▲이승만의 정화유시에 의한 비구대처 갈등 ▲불교정화불사의 비구승 승리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한국불교사를 담았다.

제2권은 당대 선지식 및 후학들에게 듣는 금오 스님의 행적과 법담, 일화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게재하고, 월주 스님의 논문과 '불교정화 바르게 읽기' 등을 수록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은 일본 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민족주의 승려였다. 승려대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했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정화운동사에서 소외됐었다"며 "불교정화운동사에서 저평가된 금오 스님의 위상을 재고하고, 청정계율의 정화이념을 되살려 종단의 각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여성수용자 한마음 체육대회

청주여자교도소, 가을맞이 행사



10월 8일 열린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육대회에서 수용자, 교정위원, 직원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10월 8일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최효숙)는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수용자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은 수용자와 교정위원, 직원이 어울려 함께 뛰고 달리면서 활기 넘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1부 마술쇼, 2부 장기자랑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용자 체육대회는 매년 가을 실시하는 연례행사로서, 평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지내는 수용자들이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에서 즐겁고 풍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증진의 시간이 되고 있다.

최효숙 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소 체육대회는 여성수용시설답게 아기자기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만큼은 교정위원과 직원들도 수용자와 어울려 함께 달리고 손뼉치면서 마음을 여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불교문화재 '성보회' 창립

불교중앙박물관 후원사업 지속 중점

"불자에게 성보(聖寶)의 바른 의미를 일깨우고 수호하며 저변 확대와 더불어 후원에도 앞장서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개관 1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존한다는 취지 아래 불교문화재 지킴이 '성보회(회장 송양호) 창립법회'를 10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평소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온 신임 손양호(66세) 회장은 "전국 곳곳에 방치된 한국불교문화재를 복원하고 재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확보된 보물은 물론 발굴해야할 문화재 관리에도 앞장서겠다"며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불교문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직할 산하 기구인 성보회는 범하 스님 지도하에 한층 성숙된 불교문화재 호법신장과 후원회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가연숙 기자

파라미타, 전국지부 창립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직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10월 19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에서 경기남부지부를 결성한다. 이어 12월 13일 충남지부 발대식을 열고 올해 안에 경기북부, 제주 등 지부가 없는 지역에 지부를 창립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부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가 운영지원사찰로, 지부장은 성무 스님(안양 삼막사 주지)이 내정됐다. 경기북부지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충남지부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제7교구본사 수덕사가, 제주지부는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각각 운영지원사찰을 맡는다.

교구본사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나선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번 지부 창설로 1996년 서울지부 창립이후 7개 광역시와 전국 17개 도지역에 지부를 갖춘 명실상부한 전국기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공주불교사암연합회 백제문화재불교행사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성)는 10월 6일 공주 금강 둔치에서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 이준원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제문화축제에 맞춰 불교행사를 개최했다.

1부 도신 스님 축하공연, 2부 영산재 시연 및 소망의 유등과 풍등 띄우기, 3부 풍년을 기원하고 소망을 비는 탑돌이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불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백제문화축제 기간 부여와 공주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은 모두 40여개. 이 가운데 왕국 퍼레이드, 줄다리기, 마상예술공연, 루체비스타, 굿뜨래 농촌페험, 대백제국 의상교류전, 세계문화체험박람회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이 신설돼 예년과는 다른 다채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염불원생 모집

태고총림 선암사 전통 강원에서는 아래과 같이 **신입생 · 편입생 및 염불원생**을 모집합니다.

◆ **강원생 모집**(수시모집)
치문반 ····· 00명 사집반 ····· 00명 사교반 ····· 00명

◆ **모집기간 :** 2008.11 .1 ~ 11. 20

◆ **강 사 진 :** 강주 성천스님(대교. 사집강의중) 강사 도운스님(사교. 능엄강의중) / 중강스님(치문. 강의중)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강원 소정양식) ····· 1
2. 승적증명서(또는 수계증사본) ····· 1
3. 주민등록 등본 ····· 1
4. 건강진단서 ····· 1
5. 은사스님 추천서 ····· 1
6. 승복차림 사진(3×4cm) ····· 3매
7. 범죄사실 열람조회서 ····· 1
8. 입방비 30만원

◆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필기도구

◆ **염불원생 모집** (타종단 입학가능)
기초삼보 통청에서 상주권공까지
실기실습 · · · · · · · 범음범패 (목탁, 태징, 바라, 착복(나비춤), 호적)
모집인원 · · · · · · · 00명

◆ **모집기간 :** 2008.10.15 ~ 11.15

◆ **구비서류**
1. 입학원서(선암사 소정양식) ····· 1
2. 승적증명서 ····· 1
3. 주민등록 등본 ····· 1
4. 승복차림 사진(3×4cm) ····· 3매
5. 범죄사실 열람조회서 ····· 1
6. 입방비 50만원

◆ **염불원은 주지 경담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께서 상세하게 강원학인 교육 중**

◆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필기도구

※ 문의처 : 061)754-5247, 5953 / 011-254-3037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홈페이지 http://www.seonamsa.co.kr/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장 태고총림 선암사

현장속으로

불·군·민 삼색 포교

해군중앙법당 통해사

"통해사는 우리 마을 사랑방~"





해군중앙법당 통해사의 일요일 법회모습. 우측 사진은 군종병 윤지윤 병사.

"관세음뽀살~"

장엄한 불상아래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 사이 아이들이 섞여 있다. 자세히 보니 젊은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다. 무슨 일일까?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에 위치한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통해사(법사 진필승)에서 10월 5일 일요일 가족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는 군 승진절을 맞은 기원법회로 많은 군가족과 지역주민들이 법당을 찾았다. 군법당에 이처럼 지역주민, 남녀노소가 모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군법당 통해사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은 군부대 내에 있지 않고, 주거 단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있어 바로 옆 충무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기와를 얹은 작은 학교 같아 보인다.

성은정(38 · 신길동)씨는 "통해사에 다닌지 2년 정도 됐다. 이사 온 후 사찰에 다니고 싶었는데 마침 통해사가 집 근처에 있어 다니게 됐다. 통해사는 가까워 마음이 편하다. 아이들도 매주 토요일 어린이 법회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해사가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설 연화유치원이 있기 때문이다. 연화유치원을 비롯한 해군법당 유치원은 서울 통해사를 비롯해, 진해 흥국사, 제주 해봉사, 포항 해룡사 등 4곳이다. 총 19곳인 해군법당이 육군법당에 비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1982년 설립된 연화유치원은 지역 보육시설 역할을 도맡아 왔다. 통해사가 위치한 신길1동과 대방동은 재개발 건설이 한창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다. 보육시설 수요도 늘뿐 아니라, 인근 불교유치원이 없어 미취학 아이를 가진 인근 불자들에게 연화유치원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66명 정원으로 5 · 6 · 7세반을 운영하는 연화유치원은 대기표를 받아 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연화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통해사 어린이법회와 청년법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가족법회에서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연화유치원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5살 난 딸과 함께 가족법회에 온 전양희(34 · 신길동)씨는 "통해사에서 부설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한참을 기다려 아이를 입학시켰다. 신행생활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전 씨는 특히 "유치원 보육교사로 장교 분 자녀도 있고, 사찰이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일반유치원보다 믿음이 간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박미주(25)씨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스님,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수요일 사병 법회 후 사병들도 아이들 돌보는 것을 도와준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고 불자로 성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통해사는 해군본부 이전 후 군사병 및 군불자들이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다.

군종병 윤지윤(21)씨는 "법우회는 10명이지만, 수요법회 참석은 30여 명 수준으로 높다. 통해사에서 법회 등 종교생활을 하면 군생활에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주거단지 속 위치 · 부설유치원이 인기 비결

지역 독거어르신께 쌀 보내는등 받은 사랑 회향



해군 군수기획운영차장에서 1990년 예편한 김중갑 통해사 명예신도회장(70)은 "통해사는 다른 군법당에 비해 군불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군장교는 근무여건상 여기저기 옮겨다녀야 하지만 다른 사찰로 옮기지 않고 통해사에 다니며, 심지어 군 전역후에도 그대로 다니는 신도가 많다"고 자랑했다. 김중갑 명예신도회장은 이어 "이는 장교 · 장교가족, 하사관 등 군불자가 일반신도들과 개념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임하는 법사님들과 통해사 소임보살님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법회구성 자체를 다양하게 하고 법문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등 법사님들의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통해사가 굳건히 자리하는 큰 이유로는 지역불자들의 애정도 있었다. 지역불자의 애정을 담은 보시금은 현재 연평도 등 4개 도서지역 해군법당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통해사는 이에 매년 지역독거어르신께 쌀을 보내는 등 받은 사랑을 회향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필승 법사는 "일반 사찰처럼 편하게 찾아줘 그저 감사할 뿐이다"며 "군시설은 보통 20~30년을 기한으로 신축하는데 통해사는 창건 28년이 돼 신축을 계획 중이다. 신축 시 지역 수요에 맞춰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법회 · 청년 법회를 연계한 지역포교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님비현상이 보편화된 현대, 도심 속 군법당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춘 불교복지시설은 대중포교의 또 다른 길이었다. 軍과 民이 한데 어우러진 부처님 도량. 통해사에서 불법 홍포의 밝은 서광이 비쳤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에서 고환율 시대 불자 가정내의 골프 유학생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Angeles 대학교
2008년 가을학기

골프학과 불자 장학생 모집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에서는 엥겔레스대학교 한국입학처와 자매결연을 통해 불자들을 위한 골프유학생 종단 장학생(4년간 등록금 전액)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2008~2009 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및 편입생(정식학사과정)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선발분야
· 필리핀 엥겔레스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골프 전공 25명 전원
· 4년간 종단 장학생(전체 비용 중 4년간 등록금 전체)
· 기타 엥겔레스대학교의 56개 전학과(학과내용은 한국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지원생에게도 소정의 장학금(매년 1학기 등록금) 지급

2. 선발대상
· 고졸(예정자포함), 현재대학 재학생, 졸업을 하였으나 영어권 정규유학을 희망하시는 분 등

3. 지원자격
· 고졸(200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교검정고시합격자 등.

4. 구비서류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국문영문 각3통(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과 검정고시 성적표), 여권용 사진 3매.

5. 접수시기
· 2008년 10월 15일 ~ 10월 25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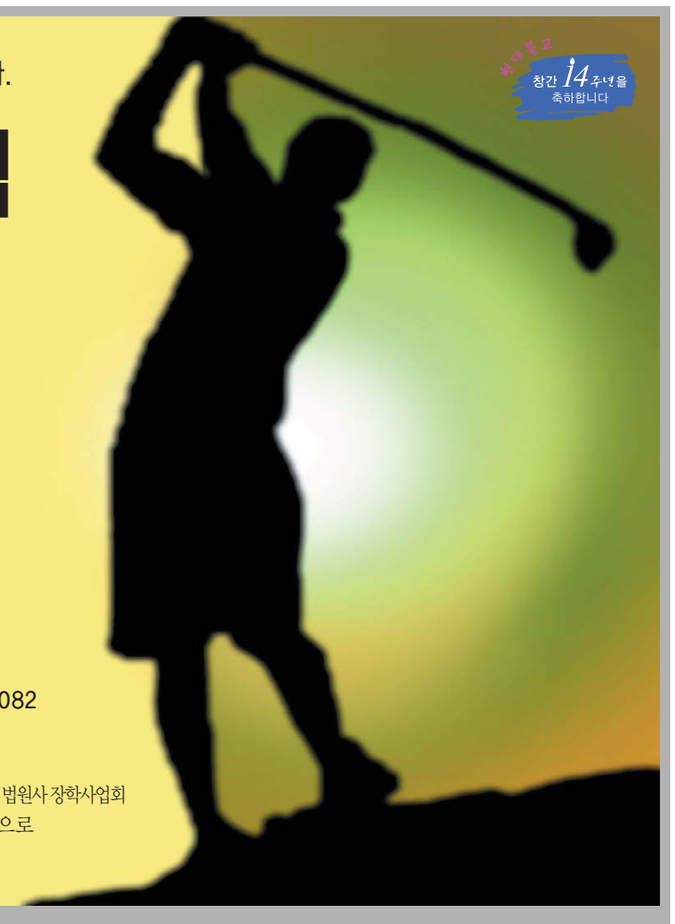
6. 학기시작
· 2008년 11월 4일

7.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구비서류 스캔하여 첨부)

8. 장학생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한국입학처 홈페이지 : www.auf.co.kr
필리핀 본교 홈페이지 : www.auf.edu.ph

♣ 상담 안내처
· 전 화 : 031)465-1080, 010-6591-0108 팩스 : 031)465-1082
· 담 당 :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 장학사업회 사무총장 김재성
· 이메일 : bubwonsa@gmail.com
· 주 소 : (430-82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62-76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 장학사업회
· 기타 불자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불교 선덕종 총무원장 장학사업회 총재 법성 淸潭 합장

일주문



해외 장학승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10월 6일 해외장학승으로 선발된 7명(일혜 · 서형 · 현견 · 원경 · 다경 · 자용 · 허정)의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꽃마을 효사랑 축제 개최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10월 11일 안성 연꽃마을에서 '제6회 효사랑 축제'를 개최했다. (031) 898-1486



제8회 올해의 진주시민상

진주 여래원 주지 동봉 스님은 10월 10일 진주시의회에서 '제8회 올해의 진주시민상'을 수상했다.



이웃종교와 사랑의 바자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와 공동으로 10월 25일 덕수교회 · 성북동성당과 함께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한다.



여불련 자선음악회 · 연수교육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 회장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공연장에서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02)738-5586



'강승규 산사음악회' 사진展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강승규 회장은 10월 20~25일 서울 싸이드림 포토갤러리에서 '강승규 산사음악회' 사진展을 개최한다.



조계종 원우회 몽골청소년장학사업

조계종 원우회 장영욱 회장은 10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몽골 장학사업 'Share Dream' 복지사업 기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약천사, 국제 포교 거점으로 키울 겁니다"

제주 약천사 신임 주지 성원 스님



"단순한 관광지를 벗어나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불교를 수행하고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사찰로 거듭나, 제주도를 넘어 세계 속의 약천사로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6일 오전 10시 조계종 제주 약천사는 주지 진산식을 갖고 부주지 성원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다.

성원 스님은 " 불사에 매진하면서도 일타 대종사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극진히 모시는 은사 혜인 스님의 모습은 <부모은중경> 법문보다 수십 수백 배 큰 감동이었다"며 "처음 약천사에 왔을 때 황량하기까지 했던 이곳에서 세계로 펼쳐 나아갈 우리 불교의 큰 희망을 보았다"며 약천사와의 첫 인연을 회상했다.

성원 스님은 폭넓은 지식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춘 부루나 존자로 정평이 나있다. 한국전통 교육기관인 해인사 승가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내 · 외전의 뛰어난 실력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풍부한 포교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성원 스님의 목표는 국제 포교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약천사다.

"약천사는 동양 최대의 3층 대적광전이 건립돼 있고 금당 내 목조비로자나불상, 후불목각탱화 등 뛰어난 건축미 덕분에 매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참배객이 찾고 있다"며 더 나아가 "약천사에 온 성지순례단은 물론, 제주를 찾아온 국내외 관광객들이 약천사에 머물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통한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성원 스님은 한라산 관음사의 제주대불 건립 대작불사, 시민 선 센터, 제주도내 33관음성지 조성불사 등에 참여해 제주 불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할 예정이다.

"늘 부처님 곁에 살면서 불법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문이기에 약천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신임 주지 성원 스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기자

"많은 불자들이 '법화경' 쉽게 접했으면…"

'법화경노래' 내놓은 불자가수 송춘희씨



"불자들이 <법화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앨범을 냈습니다."

'수덕사의 여승'으로 유명한 불자가수 송춘희(백련장학회 회장)씨가 '법화경노래'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민요 11곡 ▲찬불가 1곡 ▲동요 1곡을 법화경 28품의 가사말로 개사한 것으로, 진미령 · 김국환씨 등 많은 불자가수가 작업에 동참했다.

송춘희 회장은 "부처님의 가피와 도림 스님(법화정사 주지)의 격려 덕분에 음반 발매가 가능했다"며 "많은 불자들이 <법화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20년이 넘는 불자가수 생활동안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한 그의 내력은 특이하다.

송 회장은 "교회 수석장로인 할아버지를 포함해 8남매 중 5명이 목사 일을 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열아홉 살까지 가톨릭 신자였다. 1966년 발표한 '수덕사의 여승'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 불법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회상한다.

그는 캐나다에서 공연을 하던 중 한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백련화'라는 법명을 받고, 1983년 찬불가 취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또한 찬불가를 통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던 중에도 불교에 대해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입학 · 수료했다.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 등을 위해 백련장학회를 17년 동안 이끌어 오고 있는 송춘희 회장. 매주 일요일 마다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청년 보살'이다.

(02)928 -1331

김진성 기자

"북한 주민 얼굴서 부처님 미소 발견해"

평화통일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서유상씨



"현재의 모습을 서로가 인정하고 도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명진)가 개최한 평화통일사진공모전에서 '양각도호텔 봉사원의 미소'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은 서유상씨는 "잠자리와 식사를 걱정해주던 봉사원 아저씨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냉면처럼 시원한 호텔 아저씨의 미소가 지금도 선하다"고 말했다.

불자라고 밝힌 서씨는 "첫 방북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여행에 제한이 많아 갑갑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봉사원의 선한 미소에서 자유와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후 경직된 줄로만 알았던 북한 주민들 모습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발견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최우수상 '양각도호텔봉사원의 미소'는 <민족21> 기자인 서씨가 2005년 7월 말 '북한맛집기행' 취재일정 중 촬영한 것이다. 이번 사진전에서 서씨의 작품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모전에 당선된 서유상씨의 작품을 비롯한 사진 14점은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에 전시됐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 · 차문화제

윤형식 · 허원봉 · 최학림씨



한국다도종가 (재)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0월 8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3회 명원차문화대상시상식과 차 문화제를 거행했다.

문화공로상은 해남 다인회 윤형식 회장(**사진 왼쪽**), 문화학술상은 남도 대동문화한마당 허원봉 운영위원장(**사진 가운데**), 문화교육상은 명원다도예절문화원 최학림 목포지부장(**사진 오른쪽**)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연숙 기자

조계종 포교원 하나원 새터민 천도재 봉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3일 안성 칠장사에서 '제2회 하나원 새터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번 새터민 천도재에는 하나원생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교원은 향후 하나원 법당불사 및 새터민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차예절 사범 · 전시회 대전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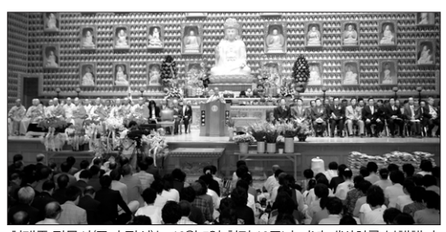
옥천의 도예가 이숙인씨와 차 예절 전문사범 강경미씨는 대전 대청문화회관에서 9월 30일~10월 7일 차예절사범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충북 옥천2201부대 장병들이 참석해 다도를 배웠다. **혜철 충청지사장**

학림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봉안법회



광주 학림사(주지 원명)는 10월 8일 버마국왕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 친견 및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학림사 대웅전 낙성 1주년 기념을 겸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태종 관문사 창건 10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관문사(주지 정산)는 10월 5일 창건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감사원장 춘광, 고승덕 의원, 문화부 권경상 종무실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군포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생일잔치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다래)은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 안양지원단과 함께 군포 장애아동 생일잔치를 개최했다. 한화창립 56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생일 잔치에는 장애아동 15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제6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시상 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6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홍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상 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불교진흥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상** : 약간 명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특별상** : 약간 명(곳)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수상자 선정**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불교진흥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상**은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기 위한 취지로 불교 진흥을 소재로 한 영상물 및 오디오 (비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오디오 등)의 아이디어를 모집, 시상합니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추후 본격 제작 및 활용을 위하여 별도 본 원 지원사업 시행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15세 ~ 39세 이내 출품 가능).
④ 특별상은 접수한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중에서 불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수상 후보 추천 접수**

①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③ 7,80년대 이후 (약 한세대 이전) 작고한 분이라도 한국불교 현대화에 공헌했던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④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취지와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각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 대원상 불교진흥프로그램아이디어 공모의 경우는 공모 신청서(1), (2)와 작품화 예상도 및 추진계획서만 제출.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 2008년 **10월 10일(금) ~ 11월 20일(목)**.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홈페이지 : **www.kbpf.org**)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③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자 소인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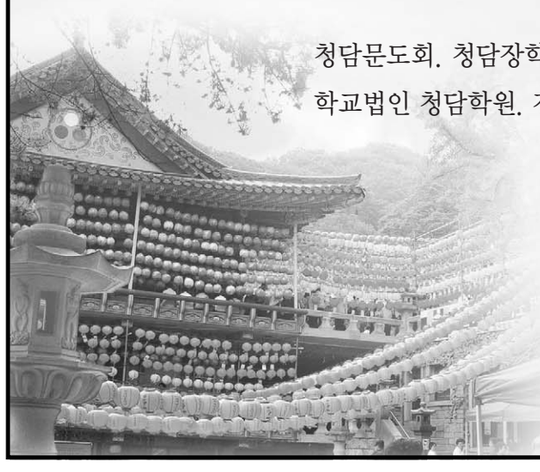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병천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 각 산 도 선 사

주지 **선 묵 혜 자**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02)993-3161-3 팩스 02)993-3164
홈페이지 www.dosunsa.or.kr

새옷 입은 천년 자리
낙산사 · 홍련암

바다는 관세음보살 품에서 출렁이고

바다가 내다보이는 도량 낙산사. 매일 아침 붉은 태양을 들어 올리는 동쪽 바다는 여전히 관세음보살의 품에서 출렁이고,
그 물결 끝에는 낙산사의 또 다른 일주문 홍련암이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안아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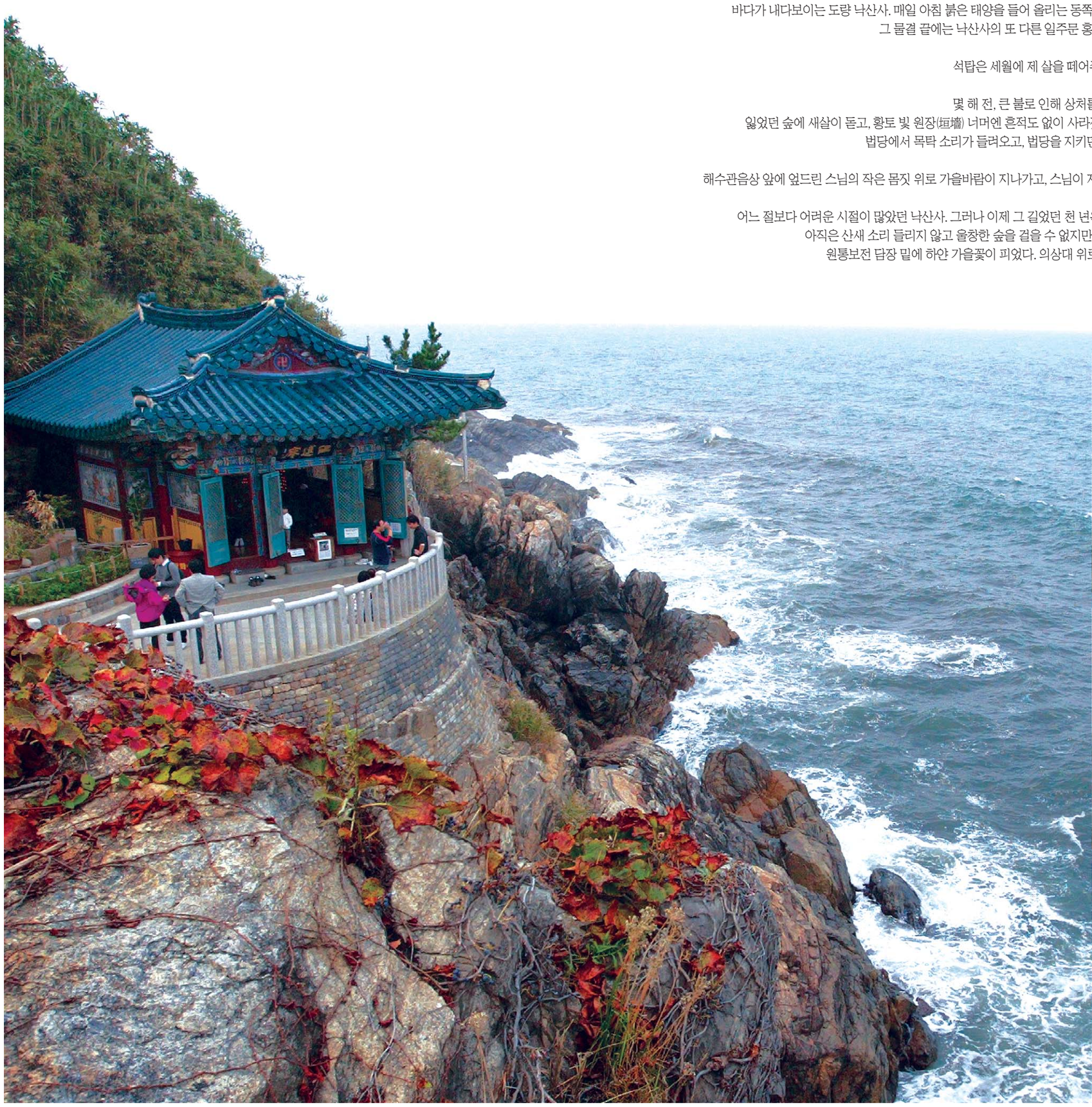
석탑은 세월에 제 살을 떼어주고, 사라진 천 년 위에는 또 다시 천 년이 선다.

몇 해 전, 큰 불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도량은 불사(佛事)로 여전히 분주하다.
잃었던 숲에 새살이 돋고, 황토 빛 원장(垣墻) 너머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원통보전(圓通寶殿)이 꿈처럼 다시 서있다.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고, 법당을 지키던 석탑은 오랜 신하처럼 새로운 세월 앞에 선다.

해수관음상 앞에 엎드린 스님의 작은 몸짓 위로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스님이 지고 온 걸망 곁에는 가을 햇살이 다가와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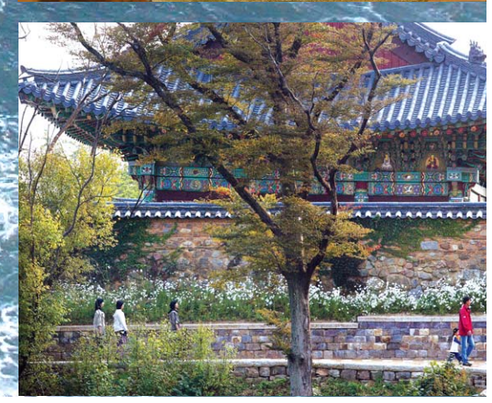
어느 절보다 어려운 시절이 많았던 낙산사. 그러나 이제 그 길었던 천 년은 오늘 하루보다도 짧은 시절이 되어 돌아왔다.
아직은 산새 소리 들리지 않고 울창한 숲을 걸을 수 없지만, 오늘 하루는 다시 천 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원통보전 담장 밑에 하얀 가을꽃이 피었다. 의상대 위로 갈매기가 날고, 아이들이 하얀 꽃길을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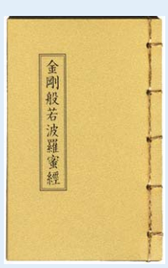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사 장 소 용 영 가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성철 스님 봉훈관 준공

해월정사에 친필 봉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삶의 흔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의 해월정사(주지 천제)는 10월 19일 성철 스님 열반 15주기 추모법회를 맞아 봉훈관 준공식을 봉행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인 봉훈관은 총 3층 360㎡ 규모로 1층 끽다실과 홍보실, 공양간, 2층 선방, 3층은 시월전으로 성철 스님의 친필 500여 점이 봉안돼 있다.

이 친필은 모두 성철 스님이 생전에 기록한 법문 초안원고나 메모, 공주규약 초안, 경전풀이 등을 일력이나 편지지 등에 쓴 것을 모은 것으로 한국 현대불교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일부 개장 이후 전면 개관은 처음이다.

주지 천제 스님은 "봉훈관의 건립은 오랜 숙원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널리 알리는 길"이라며 "은사님의 친필을 이곳에 봉안하면서 이곳이 향후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성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개산대재 절 잔치서 지역 축제로

"문화축제로 키우겠다" 한 목소리

부산경남에서 9월 말부터 잇달아 열린 두 교구본사의 개산대재가 단순한 '우리 절 잔치'를 넘어 지역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개산 1330년을 맞은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9월 28일 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금정체육공원과 범어사 일원에서 '2008 금어문화축제'를 열었다.

'하늘물고기,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불교행사만 즐비했던 기존 개산대재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간 매일 다른 주제로 금어프린지, 금샘 야간산행, 헌공접빈다례 시연, 스님 장기자랑, 가족 매직쇼, 재즈콘서트, 천연염색, 금어등 만들기, 시민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참여행사가 주를 이뤘다.

주지 정여 스님은 "개산대재는 불자만의 축제가 아닌 금정의 자랑이자 부산 대표 축제로, 아름다운 문화와 향토미를 담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도 10월 3~7일 5일간 창건 1363주년 개산문화대재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사생대회, 뮤지컬 맘마미아, 부경대학교 협약서 조인식, 지역 우수 공무원 금일봉 전달, 이주외국인 초청잔치 한마당, 지역 문화발전 감사패 전달 등이 열려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주지 정우 스님은 "이번 개산문화대재는 소외된 이웃과 양산 시민이 손잡고 문화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푸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기획했다"며 "오직 불교만이 가질 수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해 양산의 통도사가 아니라 세계의 통도사로 전통문화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범어사 개산대재에서 마련된 체험장에서 컵등을 만드는 외국인들(사진 위), 지역 우수 공무원 금일봉 전달을 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마련한 통도사.

대형당 지원 스님 입적

범어사 최초 비구니 다비



비구니계의 큰 어른으로 비구니 최고 품계 '명사(明師)' 품계를 받은 대형당 지원 스님이 10월 5일 오전 부산 동래구 사직동 보림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8세, 법랍 53세.

영결식은 8일 오전 8시 30분 보림사에서 봉행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을 거행했다.

특히 범어사 연화대는 비구스님만을 다비해왔으나 이번 지원 명사 원적으로 비구니스님 다비를 최초로 시행했다. 장례는 부산불교연합회장으로 치러졌다.

지원 스님은 1962년 보림사 주지 취임, 1976년 부산 비구니금련회 조직 초대 회장 역임, 1987년 경북 경주시 비구니 수도원 금련사를 창건했다.

박지원 기자

"다음 생에는 성불하렴"

미타선원 자갈치축제서 물고기 위령천도재



물고기 넋 위로하는 '물고기 위령천도 영산재'가 자갈치축제 기간인 10월 8일 자갈치축제 본무대에서 열렸다.

부산의 대표 수산물 시장 자갈치시장에서 10월 8일부터 닷새간 펼쳐진 자갈치 축제의 일환으로 물고기 위령천도 영산대재가 열렸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자갈치축제 본무대에서 물고기 위령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인간의 먹거리와 생업을 위해 희생된 물고기들의 넋을 달래는 의식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번 천도재는 매일 물고기를 다루는 자갈치시장의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해 희생된 물고기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물고기 위패를 올리고 분향했다.

미타선원과 불모산영산재보존회(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2호) 스님들의 집전으로 우리 민족문화예술의 정수이며, 장엄한 불교의식 영산재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모든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참선수행으로 중생 이롭게"

벽송사 중창불사 회향



함양 벽송사 중창불사 회향식이 10월 5일 봉행됐다.

선교겸수의 전통을 되살린 한국 간화선의 근본도량 벽송사(선원장 월암)의 중창불사가 원만회향했다.

10월 5일 오후 1시 벽송사 앞마당에서 스님 30여 명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창 회향식을 가졌다.

이번 회향식에서는 해인사 원융스님 축사,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 특별 법문, 前 수좌회의장 영진 스님 격려사가 이어졌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불법이 다시 이 땅에 꽃 피게 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이 자리 스님들이 증명했다"며 회향을 축하했다.

선원장 월암 스님은 "이곳 벽송사에서 수많은 선조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듯 참여하신 스님들도 참선수행을 통해 지혜를 발현해 불성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 자비를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전국승가학인대회 열려

전국승가학인연합(의장 효진)은 10월 9 · 10일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전국승가학인대회를 열었다.

학인대회는 1년동안 연마한 기예를 발표하고 우의를 다지며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한마당이다.

첫날에는 역경대회와 불교 전통의식 · 문화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는 역경 · 서도, 법고 · 창불, 법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둘째날은 축구와 배드민턴 대회 등이 열리고 회향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사단법인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

"전통다도 복원·새 다법 개발 진력"

새하얀 한복, 정갈한 소매 깃 아래로 소중한 분을 위해 차를 담아내는 손놀림에 예인의 멋스러움이 묻어났고, 은근한 차향은 가을 산사를 가득 메웠다.

'하나 됨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색다른 헌공접빈다례 시연이 범어사 금정문화축제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차문화진흥연구회가 기획부터 총 연출을 맡았다. 행사가 끝난 후 주지 정여 스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다례시연은 본 적이 없다"며 극찬했다. 또 관람객에게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색다른 다법을 발견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경순 원장은 "다도 시연은 흔하지만 헌공과 접빈다례를 동시에 진행하고 시연이 끝난 후 찻잔과 찻상 등을 정리하던 부산스러움을 보자기로 깔끔하게 감싸게 하는 등 '하나됨'을 나타내는 새로운 다법을 무대에 올리고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2006년 8월, 사단법인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는 김순향 조각보박물관장을 초대 회장으로 현재 약 110여 명의 회원이 뜻을 모아 지금까지 부산지역 차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30대부터 60대 불자는 물론, 차나 다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회원까지 그야말로 차 애호가들의 오랜 도반인 셈이다.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는 창립 후 처음 가진 '2006 제2차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국의 차명장 전시, 부산 4대 차인 고증세미나, 누리마루 달빛차회, 한중일 차체험마당, 다법시연 및 24다회 무료 차시음회 등을 마련해 이틀간 8000여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경순 원장은 "부산 4대 차인으로 금당 최규용, 목춘 구혜경, 원광 스님, 다촌 정상구 등을 소개하는 등 부산의 차문화를 한자리에 집대성시키고, 성장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 후에도 제3차, 4차 국제차어울림문화제 및 워크숍, 동래 의총헌다례 및 답청놀이 등에 참여하면서 부산지역 수많은 다도회를 아우르는 대표 차문화연구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몸·마음 정리하는 멈춤 담은 다법 선보여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의 다례 시연을 만나볼 기회가 또 한 번 마련된다.

10월 23~26일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3회 부산 국제 차, 공예박람회'에서 '모심의 정성으로'를 주제로 범어사에서 처음 선보였던 헌공과 접빈 다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자기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멈춤의 의미를 담아낸 새로운 다법을 세계무대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경순 원장은 "다도는 부드러운 대화를 이끄는 훌륭한 방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쉽고 편안한 문화"라며 "공허한 마음을 잡아줄 뿌리가 될 정신문화의 근간으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차문화를 복원하고 잇는 것은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길이자 우리의 책임이다.

박지원 기자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문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자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입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촉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뭄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를 이룹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든지 얼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이마 안쪽에서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에선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된지 얼마간이 지나면 희열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인데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낳으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중풍으로 5년간 누워 계시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생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아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훨훨 털어버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천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제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 락 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 강 /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전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가 · 세계침구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 협회 회원 · 대한신불교 천우종 포교원장 삼봉 김영생 법하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 열려

무주불교대학 우승


10월 3일 열린 전북 불교대학 체육대회.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10월 3일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하나되어 미래의 지평을 열자'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8회를 맞은 행사에는 전북사암승가회 스님들을 비롯해 홍학표 무주군수 등 지역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화엄 · 전북 · 이리 · 남원 · 무주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는 배구, 터치볼, 단체줄넘기, 탁구, 단체 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전북사암승가회 원행 스님은 "서로 관용하며 힘써 도우면 일의 성취가 어렵지 않다. 대화합, 대도약의 큰 명제를 세우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애정이 깃든 함성과 환희로운 박수소리는 마장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된다. 이를 전북지역 불교대학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열린 다수의 경기에서 심판을 맡은 전북포교사단 김진수 단장은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경쟁과 승패를 떠나 불자들의 화합과 치목을 도모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는 무주불교대학이 우승, 화엄불교대학이 준우승, 전북불교대학이 응원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분이면 생명 구해요"

광주생명나눔 10주년 골수·장기기증 캠페인



10월 9일 광주시청사에서 열린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명예헌혈증을 들고 있다.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유치원생들의 똘망똘망한 목소리가 광주시 청사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난치성 환우들을 위한 생명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10월 9일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청 1층에서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생명나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로 윤예중 사무국장은 "10분만 수고하면 난치병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광주 연화사 유치원생들은 명예헌혈증을 만들어와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골수조직검사를 위한 3cc 채혈에 동참한 이순희(27)씨는 "작은일이지만 아픈 아이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 10주년 행사는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에 이어, 18일 '환우가족과의 만남' 가을소풍을 떠난다. 19일 생명나눔 환우 천도재를 무등산 원효사에서 봉행하며, 22일 5·18기념관에서 난치성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헌신에 보답해요"

미륵사 실비노인요양시설 '백양실버타운' 개원



10월 8일 열린 백양실버타운 개원식 테이프 컷팅 장면.

조계종 미륵사(주지 원일)는 10월 8일 나주 봉황면 송현리 일대에 18교구(교구본사 백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다.

개원식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대종사,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대오 스님(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을 비롯해,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신정훈 나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민요가수의 공연과 만담, 사물놀이패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원식, 개관테이프 커팅, 축하공연이 열렸다.

수산 스님은 축하법어에서 "효자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효자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름을 얻기 위한 거짓 효자들이 많다"며, "실버타운은 현대인을 위한 좋은 노인 봉양"이라고 치하했다.

원일 스님은 개원사에서 "백양실버타운은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대중생활 불교의 도량이자, 안락한 노후생활시설"이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의료계와 좋은 시설,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지역 최고의 시설로 가꿔가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대신한 치사에서 대오 스님은 "미래에 대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어른들을 위한 요양시설 개관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말했다. 스님은 "백양실버타운은 단순한 노인요양이 아닌 일생을 사회에 헌신한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노인복지요람으로 발전하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층 규모의 백양실버타운은 생활실 20개와, 휴게실 3개, 물리치료실과 재활실,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춰 최대 50명 입소가 가능하다.

원장 포함 20여 명의 근무자가 입소자들을 보살피게 되며, 입소자는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이면 가능하다.

백양실버타운 관계자는 "입소 어르신에게 상담과 건강의료 서비스는 물론 심리재활 서비스, 여가서비스, 정서관리 서비스, 안전 서비스 등을 입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 소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희망 · 안락주는 마음의 고향 되도록…"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1409주년 개산대재 18일 봉행

수확을 앞둔 김제 들녘 한켠 모악산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추억이 가득 담긴 템플스테이가 개최됐다.

올해 2회를 맞은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10월 4~5일 300여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이순호 거사의 산사체험 사진전, 신가림 연화선 작가의 설치미술과 전통등 전시, 텍스타일 전시, 참가자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함께한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모였다"며, "산사체험이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 진경 스님은 "외국인들의 사물놀이 공연에 감동을 받았다"며,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 등 한국전통문화 홍보에 템플스테이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원행 스님은 산사체험 진행에 매번 자원봉사로 참여한 혜광 거사, 금산 거사, 대법성 보살, 이승호 거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금산사는 1409주년 개산대재를 18일 대적광전에서 개최한다.

역대 금산사 조사스님들에게 다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금산사 개산대재는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의 창건정신을 계승하고 부처님 자비와 보살행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공연을 관람하는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원행 스님은 "1409년 역사를 가진 금산사가 중생들에게 희망과 안락을 전해주는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조사스님들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성불 미뤄도 이 생서 전법하리라"



군산의 영산 오성산 주봉 아래 넓게 펼쳐진 서해바다를 바라보는 성흥사에서 송월 스님을 만났다.

송월 스님은 1992년 성흥사 주지로 부임했다. 당시 성흥사는 거의 폐찰에 가까웠다. 법당은 비가 새고, 도량은 황폐하고, 남아있는 신도는 2가구에 불과했다. 스님은 도량 정비부터 서둘렀다. 현재의 관음전과 요사채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 현재 성흥사 신도는 600가구에 이른다.

신도회 불교대학으로 신행 기초 다져

송월 스님의 포교에 대한 의지는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열정에 가득 차 있다. 신도조직을 중시한 스님은 관음회, 거사회 등 신도회를 조직하고 성흥사 불교대학을 설립했다. 신도회와 불교대학을 통해 신행활동 기초를 다진 송월 스님은 이어 극락조 합창단을 창단했다. 어린이 법회와 계절별 불교학교도 개설했다. 특히 한문학당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당시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해 이제는 어엿한 성흥사의 주축신도로 자리 잡았다.

스님은 군산대, 호원대 등 동아리도 지원하며 청년포교에 매진했다. 그 사이 스님은 태극권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 시민회관 문화강좌, 교양강좌 등에 출강해 덕망을 높였다.

송월 스님은 지금까지 1만권에 달하는 불서를 시내 전 지역에 무료로 보급했다.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특히 개신교인들의 불교폄하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공격적이라 문서포교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스님은 돈이 조금씩 모여질 때마다 <신해행증> <울지 말고 염불 좀 해봐> <불교학개관> 등 불교기초 등을 직접 편집하고 인쇄한 10여 종 저서를 시청, 군, 교도소, 군산대학교 등에 무료로 보급했다. 이제는 군산시내 집집마다 스님의 책 한권쯤은 누구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예능문화교류회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1가정 부처님 말씀 모시기 운동' 도 전개했다. 송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서예 작품을 1만점 가까이 무료로 보급했다.

송월 스님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도 앞장서 왔다.

2006년도부터 스님은 그린피아 전북연맹 회장을 맡아 전북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 및 사생대회을 개최하고 금강 살리기 운동, 철새 보호 운동 등 환경보전 계몽활동을 펼쳐왔다.

태고종 포교연구실장과 전북종무원 부원장 등 바쁜 소임 속에서도 스님은 군산교도소 법당에 8년째 법회를 열고 있다. 군경불자들 포교에도 매진해 공군 38전대 호국군성사 법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라북도 경찰청 경승으로도 활동중이다. 또 군산대 평생교육원에도 출강해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 처소에 걸린 "내 성불 한생 늦추더라도 이 생에서 전법포교하리라"는 글은 지역포교에 대한 스님의 열정을 대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5일(토요일)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자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9월 27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5일 (음, 9월 27일)
- 3재 : 양력 11월 8일(음, 10월 11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6일 (음, 11월 9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볼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약천사 방생안내
11월 3일(음. 10월 6일 월요일)에 등명낙가사(강원도 강릉)로 방생법회를 갑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수월관음도

가정에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가문의 가보 거실에 걸으면 품격



가로60cm 세로90cm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부처님의 영험으로 가정의 소원이 성취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는 집안의 대비주로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가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까지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 한다음 진품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축원불공마쳐

속령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불경)
저희들의 온갖소원 하루속히 이루옵고(해설)
수지신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幢)(불경)
법을모신 이 내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해설)
수지심시신통장(受持心是神通藏)(불경)
법을지닌 이 내마음 신통력의 곳집이라 (해설)
소원종심실원만(所願從心悉圓滿)(불경)
원하는일 마음대로 모두다 이루리다(해설)

〈 천수경 강의 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소원기도 한다음 소장인란에 서명하고 거실 또는 집안에 걸면된다.
가격1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생,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수미산문 정통 계승한 묵조선 수행"

대한불교조동종(종정 지명)은 묵조선풍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1989년 5월 27일 중창했다. 간화선 일색인 한국에서 여래의 지견이 담긴 묵조선 수행법으로 불교를 중흥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조동종의 총본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청련사다.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를 높이 받들어 ▲직지인심(直指人心) ▲지관타좌(只管打坐) ▲즉심시불(卽心是佛)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 자주성과 묵조선풍을 종풍으로 수행에 매진하는 본 종단의 역사는 1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동산양개 선사는 859년 묵조선을 보존 ·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조동종을 개창했다. 국내에서는 이엄진철 선사가 신라 말 계승했다. 이를 기념해 중국 소림사 장경각 앞에는 입실건당비가 세워져 있다. 한 개의 종단이 정통 법통을 대거 승계한 한국 불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본 종단은 1100여년 전 동산양개 선사의 혜명을 이은 소중한 법통을 영구보존 · 발전시키기 위해 450여 스님을 비롯한

859년 동산양개 선사가 중국 조동종 개창
'바른 조동종 역사관 수립'에 전 종도 매진

엽 중국 조동 제2조 운거도응 선사 문하에서 묵조선을 수선하고, 고려 태조 5년(932년) 황해도 수미산에 광조사를 창건했다. 한국불교 최초로 묵조선을 위주로 하는 수미산문(須彌山門)의 탄생이다. 수미산문은 구산산문 중 가장 늦게 시작됐지만, 고려 태조 당시 전성기를 맞은 후 일연 · 만해 등에 의해 현대까지 자취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불교조동종은 1994년 7월 16일 초대 종정이신 운파 종정스님 등 60여 스님이 중국을 방문해 단절된 법맥을 잇고 조동종 본류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숭산 소림사의 조동 제44조 청심소희 선사를 수계법사로 모시고 입실건당(入室建幢), 법맥계보를 수여받아 서천 제82조 · 동토 제55조 · 조동 제45조의 확고한 정통 조동종 법맥을 전 종도가 '바른 조동종 역사관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2000년 8월 청련사 대형 오석에 항렬을 각인하는 장엄불사를 회향하고, 2006년 10월에는 중국 동산 보리선사에 '양개 존자 사리탑전 한중 양국 조동종 법손 영구 우호 돈독비'를 불사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친견을 위해 중국 조동종 사찰을 순회하며, 현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본 종단은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경기도 이천시 연화정사 인근에 새로운 총본사 및 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종단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묵조선풍 유지 · 발전에 만전을 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무원 (02)2091-0408

정리=김진성 기자

경로잔치 열어 지역화합·효행 up!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

남모르게 매년 20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여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호국불교효예종 청원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 스님은 5년째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왔다. 오는 10월 25일에도 제5회 석문사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스님이 매년 대규모 경로잔치를 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혜전 스님은 "어머니의 원력 덕분"이라고 답한다. 스님은 "5년 전 주지로 부임할 때 어머니 칠순잔치를 맞았다. 그때 어머니께서 오히려 500만원을 보태시며, 당신의 칠순 잔치 대신 동네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열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스님은 깨달는 바가 있어 지역 어르신과 소년 · 소녀가장 돕기에 적극 나섰다. 미혼모 아이 돌보기와 불우가정 장학금 지원, 김장담그기 등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가리지 않았다. 8월 중순에는 교도소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청주 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대회'도 주최했다.

현재 혜전 스님은 효예종 의전국장을 맡아 총무원장을 수행하고 의식을 총괄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참된 삶 실천운동본부' 충북지부장까지 맡는 등 지역봉사의 원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참된 삶 실천운동본부'는 효예종에서 1998년 설립한 소외계층 위한 봉사단체로, 효예종 전국 240개 사찰에서 효와 예를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불을 지피는 단체다.


2007년 열린 '제4회 석문사 경로잔치'에서 혜전 스님이 지역 어르신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벌써 5회째를 맞는 석문사 경로잔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칭찬은 자자하다.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보살 같다. 스님 같은 분들 덕분에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에서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자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지자체 단체장들도 참석 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혜전 스님은 "누가 돌봐주지도 않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누군가 소외계층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들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린다. "먹고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스님은 "내 몸이 움직이고 다리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닐 생각이다. 출가해 내 몸을 움직여 소외계층을 돕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석문사로 찾아가면 스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보시행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스님에게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본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울릉 관음성지 해도사 생전예수재 봉행


천태종 해도사(주지 비룡)는 10월 5~8일 영산재 및 생전예수재 천도법회를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지난 5월 해수관음부처님을 봉안한 비룡 스님은 "동해의 관음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법회를 개최했다"며 동참 대중에 감사를 표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 주장에 반박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은 10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사)법화종정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총무원장 비리폭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혜륜 스님은 "사욕을 위해 총무원을 흠집내고 비방한 정화추진위 배후에는 '교헌사 납골당' 관련 수백억원의 이권이 개입된 세력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태고종 총무원장 퇴진 놓고 갈등

원로 "수습대책위 구성"-종무원협 "즉각사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내년 3월 이전 퇴진' 발표(10월 1일)를 둘러싸고 원로회의와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는 10월 7일 회의를 열고 "평생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해 전승관 건립불사 마무리와 조계종과의 봉원사 문제 등을 해결하는대로 퇴진하겠다는 운산 스님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원로회의가 종단 안정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결의했다.

원로회의는 또 "총무원은 종단 현안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종회의장 인공 ·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를 3부 기관장이 합의하여 구성하고 종단의 중요사항을 처리토록 하라"며 권고했다.

한편,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회장 대은)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4개 교구 중 20개(위임 7명) 교구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운산 스님의 즉각 사퇴와 원장 직무정지, 사퇴 거부시 중앙종회의 탄핵촉구,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부채의 전액상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산 스님 퇴진 때까지 교구종무원 전체의 총무원장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운산 스님의 거취문제는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 보다는 총무원장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분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우 기자

최초의 한글책 '용비어천가' 강원서 첫 발견

한글날 기념, 원주 고판화박물관 공개

최초로 한글로 쓰인 <용비어천가>가 강원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돼 눈길을 끈다.

태고종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최근 입수한 효종본 <용비어천가> 1,2권(1659년간,36.8×25.5㎝)을 10월 8일 공개했다.



세종본, 광해본, 효종본, 영조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비어천가>는 서울대 규장각 등 국내 소수기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이 지난해 발굴해 유일하게 소장중이다.

<용비어천가>는 국한혼용문으로 표기된 가사 125장과 한문 주석문에 나오는 한글 표기의 고유명사 등 300여 단어가 수록돼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유물을 감정한 남권희 교수(경북대 문헌정보학과)는 "책이 훼손이 심한 상태지만 한국에 몇 권 남지 않은 효종본으로 초기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고판화박물관의 <용비어천가> 소장으로 강원도는 홍천 수타사의 <월인석보>와 함께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책을 모두 소장하는 지역이 됐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미타종 외국인긴급지원센터 개설

(재)대한불교미타종 권성우 재단이사장은 10월 2일 총무원내에 외국인 긴급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갑자기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불의의 사고나 긴급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무료수식을 제공하고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게 된다. (02)2242-1049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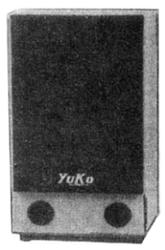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참 행복위해 스스로 만족지수 배워야 해”

선지식을 찾아서 지환



산등성이를 훑어 내린 바람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울리고서 내달리는데 그 소리 끝에 오동나무 향이 살풋 얹힌다. 하늘을 가리고도 남을 커다란 잎사귀를 달고 있는 오동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오동의 보랏빛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는 몸피 좋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여섯 줄을 이고 노는 거문고가 되어 거문고의 깊고도 장중한 소리 세상을 떠돌다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지 모를 일이다.

동화사내 기본선원은 산철인데도 결제를 하여 정진에 정진을 더하고 있었다. 선원 수업을 마치고 바삐 걸어오시는 지환 스님의 몸가짐에서 맑고도 고요한 기운이 느껴진다. 멀리서 볼 때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은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멀리서 볼 때 뭔박질을 해도 고요한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선정을 닦은 사람이라 했던가.

지환 스님에게는 초발심 시절을 야물려 주신 두 분의 스승이 계신다. 한 분은 성철 스님이요, 또 다른 한 분은 은사이신 광덕 스님이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구도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성철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철 스님께 ‘사회를 개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려면 너부터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야단을 쳤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를 끝맺기도 전에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요즈음도 가끔씩 성철 스님을 꿈에서 뵙는다고 한다.

“수행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남들에게 보여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철 스님의 수행 중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은 ‘철저한 수행’인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첫 단계도 가지 못했어요. 철저하려면 일체를 다 버려야 하는데 일체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물질적으로는 최저의 삶을, 정신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각자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할뿐더러 더 존경받는 승가(僧家)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대학생 시절 봉은사의 대학생수도원에서도 활동하였는데, 그때 수도원장이 광덕 스님이었고 그런 연으로 사제지간이 되었다. 광덕 스님이 <월간 불광>을 운영할 때는 모두들 가난한 시절이라 폐간 위기를 두 번이나 맞았다. 그런 광덕 스님을 도와 <월간 불광>의 업무파트와 편집파트를 한 몸에 지고 뛰었다. 두 번의 폐간 위기도 무사히 넘겼다. 한창 공부해야 할 30대 때 9시간짜리 보급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고간 횟수를 어림잡아 헤아려보아도 70여회가 넘는다. 30대 때 그렇게 일하다 보니 건강도 망가지더란다. 그렁저렁 보낸 시간들이 아까워 그때 모든 것을 뿌리치고 경전연구를 했든지 참선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겪어야 할 인생의 교과과정이라 여기니 후회의 맘이 없어지더란다.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교과과정이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러니 남의 교과과정을 부러워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교과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는 가르침으로 이해했다.

지환 스님은 풋내 나는 신심을 함부로 내치지 않고 귀히 여겨 출가의 길로 이끌어 준 두 분의 스승이 그저 고맙다면서 “성철 스님과 광덕 스님 두 분의 수행과 사상을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라 한다.

일체 중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또한 행복이기에 지환 스님은 법문을 요청하는 이에게는 ‘행복론’을 들려준다.

“행복에는 참행복과 거짓행복이 있어요. 밖으로 구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짓행복에 불과해요. 우리 마음과 욕망의 구조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기에 그러한 것을 갈구하는 욕망은 끝이 없어요. 거짓 행복을 얻는데 많은 고통이 동반되고 또 그 행복이 사라질 때 괴로움을 겪어야 하니, 평생을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스스로가 만족지수를 배워가야 합니다. 지족(知足)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밖으로 구하는 행복은 최소화 시키고 참행복을 열어야 합니다. 왜 참행복을 연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내 마음 세계’에 참행복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마음의 속성은 참행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수행해 본 사람은 그 법열(法悅)의 맛을 알아요. 참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그것이 니르바나의 세계요, 니르바나의 세계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수행 위해 일체를 다 버려야해

간화선, 수행원리 다 있어 가장 좋은 수행법

물질로는 최저 정신으로는 최고의 삶 돼야

한 사람이 아닌 대중들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하듯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창 밖에서 스님의 사자후를 들은 산새 한 마리가 화답이라도 하는 듯 커다란 울음소리를 허공 속으로 내놓는다. 그 덕에 숨 한번 크게 쉴 수 있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마음의 ‘관성의 법칙’이란 바로 업력이란 다. ‘삶의 습관, 삶의 습기’를 업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참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업력의 힘이 나를 행복한 과정으로 가도록 쉽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하여 불교 강좌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결코 지식불교에 머물러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기초수행 과정부터 불교의 핵심인 무아, 공, 연기의 이 법을 체득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단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다음 올바른 삶을 향해 수행을 한다면 내 오랜 삶의 습기가 바뀌어 질수 있다.

지환 스님은 “간화선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원리가 그대로 다 들어있고 또 간화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기에 아직까지도 좋은 수행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밀하고 수준 높은 수행법이기에 간화선을 할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금강경>을 통한 관법이나 <심경>을 통한 관법 등 그러한 반야관법 수행을 통하여 거친 마음의 결을 다듬은 다음 간화선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반야관법 수행을 거치고 나서 간화선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하여 몇 사람 지도하였더니 효과가 좋았어요.”

한국의 간화선이 세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쭈었더니 “대혜 스님 이전에도 간화선의 요소는 있었지만, 대혜 스님 때 완전히 정착되었어요. 대혜 스님은 완전히 깨달으신 분으로 그 당시 수행풍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간화선을 내놓았기에 그렇게 폭발적인 힘이 있었어요. 간화선의 위대한 장점과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접목되어 새로운 수행방법이 나온다면 세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역량으로는 세계인들을 간화선으로 이끌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불자”이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찰의 역할이란다. 종교란 결코 기복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초심자들 중에는 기복(祈福) 불교적 동기로 입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안아주고 받아들여야 해요. 수행이 중하다 해서 기복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중생구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복기도에서 수행기도가 되도록 끌어올려주어야 합니다.”

중생들에게 기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기에 지환 스님은 기복불교를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는다. 단 기복불교로 입문해서 끝까지 기복불교로 남게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단다.

“처음엔 기복(祈福) 단계로 입문했지만, 그 다음은 복을 짓는 작복(作福)의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물론 작복에는 ‘내가 복을 지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여기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는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6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생활과 수행은 두 길이 아니야”



것은 아닙니다. 작복 그 다음은 수복(修福)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수복은 내가 비워지는 단계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주는 바 없이 주고 베푼 바 없이 베푸는 그런 단계지요. 그 다음이 복을 초월해버리는 초복(超福)의 단계인데, 보통사람의 경지가 아닌 성자의 단계입니다. 작복은 아직 어린이 단계이고 성숙된 불자는 수복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요.”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논리 정연한 지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를 현대학문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불교학과에 진학했다’는 스님의 그 첫 번째 발원이 빛바래지 않은 채 더욱 튼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를 수행의 원리에 맞게 하려면 기도의 7요소가 필요하다면서 스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일곱 가지 요소를 조목조목 말씀했다.

첫째는 신심인데,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기도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대승수행법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며 간화선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단다. 둘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경하고 찬탄하는 ‘자기 바침’ 즉 헌신이 있어야 한다. 예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행이란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인데,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해롭게 하고 욕설을 하여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기 실상의 도리를 자연히 깨닫게 된단다. 넷째는 널리 공양하고 보시해야 한다. 인색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단다. 다섯째는 참회를 통하여 죄업을 소멸시켜야 한다. 여섯째는 일심정근인데, 진실하고 간절하게 일심으로 정근할 때 미혹이 사라지고 청정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일곱째는 발원과 회향이다. 발원을 하되 대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겠다는 회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의 7요소가 <천수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덧붙인다.

지환 스님은 ‘세상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 세상 일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행만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견문각지(見聞覺知)가 각각이 아니니 산하대지를 거울 속에서 보지 말라’고 설두선사가 노래했다지.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이 음식 먹고 우리 고객들이 건강해지기를 발원하면서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한다면, 교사는 흘륭한 교사가 되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이 되지요. 내가 하는 일들을 수행차원으로 전환시키면 자신의 직업 자체가 수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금하신 직업은 곤란하지요.”

이처럼 생활수행은 내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집중수행은 수행일과를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함을 뜻한다. 지환 스님은 생활수행과 집중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단다.

“사람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데요. 그렇다면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거나 남자들은 술 먹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집중수행 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 보다 더 중히 여겨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는 길입니다.”

무심히 보아도 산새의 자취를 그려낸다고 했던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지환 스님의 안목이 꼭 그러하다. “가없는 중생은 자기가 받들 중생이며, 그 중생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광덕 스님의 말씀 받들어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묘용을 두루 발휘하고 있는 지환 스님에게 절하고 싶어진다.

말미 끝에 “세상의 가치란 죽으면 그만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일생 동안 ‘죽으면 그만인 것’에 바친다면 허무하지 않나요?”하고 반문한다. 창 밖에서 우짖던 산새는 어디로 갔는지 밖은 텅 비었고 초록빛이 열어진 산색(山色) 위로 사위어가는 해가 금빛을 흘뿌리고 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1966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들어가 구도부 활동을 하면서 성철 스님과 광덕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과 인연이 닿아 출가사문의 길에 들어섰다.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사미계, 197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 뒤로 범어사, 해인사, 백양사 운문암, 지리산 쌍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 정진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리산 금당선원장을 맡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기본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4〉 덕암당 흥덕 대종사

“깜짝 꿈 가운데서/ 티끌 속에 세계 있음을 깨달으니/ 꽃은 뜰 속에 있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한다.”

덕암 스님(1914~2003)의 오도송이다. 스님은 이처럼 큰 것 속에서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보아 크고 작은 것에 걸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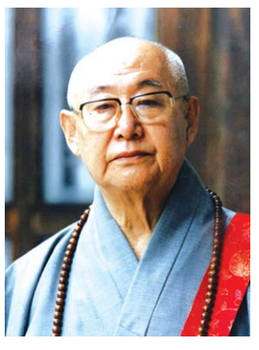
1914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스님은 1927년 해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유점사 벽산 스님께 득도하고, 운암 스님께 계를 받았다. 1935년 일본 동경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철원 보계산 심원사 불교강원을 나와 선암사 달마전, 송광사 삼일암에서 각각 1 안거를 마치고 서울 법륜사 포교사로 취임했다. 1949년 불교신문사 총무국장, 1950년 동국학원 감사, 1951년 조계종 재무국장, 1954년 교무부장을 거쳐 1959년 월간 <현대불교> 편집위원이 되었다.

스님은 인물이 특출하게 잘 생기고, 위엄이 덕스럽게 태어나, 황금 가사장삼에 비로관을 쓰고 법상에 오르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하듯 세상이 숨죽인 듯 고요해진다. 불자를 한 번 흔들어 눈을 연 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다.

일찍이 법륜사에서 뵈온 적은 있지만 1981년 인도성지를 모시고 간 것이 큰 인연이 되어 불교통신대학장, 금강선원 총재까지 겸하게 되었다. 스님의 불교관은 근본불교 경전에 6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사상에 있었다. 누구를 보든지 밥 먹일 줄 알고, 옷 입힐 줄 알며, 잠재워 편안하게 해주셨으며, 멀고 가깝고 간에 교통비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떨어지지 않았다.

늘 시장처럼 법석이는 가운데서도 불법중흥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였다. 부처님 성도지에 가서는 70노구를 이끌고 철야정진 하셨고, 쿠시나가라 열반지에 가서는 통곡하였다.

“어찌 일미 수유(水乳)의 불교가 상좌 · 대중부로 갈라지고, 마침내 여러 파가 되었다가 중국,



쿠시나가라에서 불교의 분열 슬퍼하며 대성통곡
평생 6바라밀 실천…한국불교의 화합·중흥 소망

쉬시던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 한국에 와서는 태고보우 국사의 출생지인 양평 옥천리를 거쳐 보우국사탑이 있는 사나사와 국사께서 친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열반하신 가평 설악면, 출가지 회암사, 백운암가를 지어 부르셨던 동두천 백운암, 비석이 있는 태고사에 가서는 옛 주석지 중흥사지까지 발견하였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현장을 답사하여 역사적 기록물을 낱낱이 확인하시고, “보소. 이태조도 태고 국사 제자로 되어있지 않나. 중간에 사람들이 비석을 절단 내어 그렇지!” 하셨다. 과연 비석에는 이성계의 이름도 태고 문도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두 차례 태고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고 종회위원, 교육원장, 태고총림 방장을 지내시면서도 종도들에게 중의 위신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시고, 스승을 잘 모시고 제자들을 잘 거느릴 것을 당부하셨다. 대륜화상문도회, 법륜사 조실을 맡으시면서 스승의 일을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화양사 창건, 태고종 중앙회관, 태고사 건립을 위해 온갖 성의와 정성을 다 하였다.

장장 20년간 먹을 것만 있어도 부르고 볼 것만 있어도 부르시던 그 잔잔한 음성,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스님의 열반송을 다시 한번 읊어본다.

“내 법계를 보니 본래 성품 없으며/ 생사열반이 도시(都是) 무상이네/ 만일 내게 오고 감 묻는다면/ 구름 걷인 곳에 붉은 해가/ 서쪽 하늘을 비친다 하리.

망하지 말고 진묵 스님 같은 도력을 기르고, 만해 스님의 유신정신을 살려 한국불교를 중흥해주기 바라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살 택하기 전 그대 안의 연꽃 보세요

해외불교칼럼

최근 여러 유명인들의 연이은 자살소식은 듣는 이 모두의 마음을 시리게 한다. 누가 어디서 뭘 하다 삶을 마감하든 죽음이란 슬픈 일이며, 영생이니 천국이니 제아무리 그럴싸하게 둘러 붙여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괴로움에 치여 스스로 택한 죽음은 살아남은 이들을 상심과 상실감의 수렁으로 떠민다. 다음은 미국의 불자인 제럴드 포드 도반이 '삶이 고달파서 아주 거두시려나요?'란 제목으로 9월 16일 국제 사이버전법지에 올린 글을 발췌 편역한 것이다.

'붓다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연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속 진흙탕에 뿌리를 내린 연은 눈에 띄지 않게 점점 자라 올라 이윽고 물위에 곱고 청초한 연꽃을 피워내지요. 붓다께서는 우리도 연처럼 온갖 어둠과 혼란이 뒤엉긴 진흙탕을 헤치고 벗어나 마침내 맑고 밝은 깨우침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하셨어요. 나와 너, 우리 모두는 연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조각의 포테이토칩도 무량억겁 이어진 인과 연으로 생겨나지요. 포테이토칩은 감자에서 비롯하며, 감자는 해와 땅과 비와 농부의 구슬땀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씨감자는 또 다른 감자를 키워 새로운 인연을 엮어가지요. 삶의 매 순간, 매 숨결은 하나같이 경이롭고 독특한 터라, 그 어느 것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대의 삶이 제아무리 고달파도 고귀한 삶의 순간을 함부로 자르고 그토록 감사한 숨결을 틀어막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그대가 슬픔과 분노와 공포에 짓눌리는 그 순간에도 그대안의 연꽃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대에게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도 그대안의 연꽃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어요. 매순간, 매 숨결마다 그대안의 고귀한 연꽃망울을 가엾는 사랑으로 아끼고 돌봐줘야 해요. 그대안의 연꽃은 무량억겁 모든 인과 연이 얽히고설켜 함께 키워주는 거예요. 그대안의 연꽃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결코 잊지 마셔요.'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이 글을 쓴 법우님의 간절한 마음이 새록새록 전해져 온다. 그럼 이번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에서 발간한 불교사전 중 불교와 자살에 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자.

'불교에서는 자살이 전혀 고통의 해결방안이 못되는 헛된 행위라 본다. 윤회를 믿는 불교의 교의에 따르면, 자살은 당면 문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내세의 고통으로 연장할 뿐이다. 또한 자신을 포함하여 중생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5계의 첫 번째인 불살생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살은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한다. 자살은 사납고 거친 카르마를 완화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더 처절하게 악화시킬 뿐이다. 인간은 자살로써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할 수 없다. 자살은 내세에 끔찍한 업장으로 이어져 더욱 가혹한 고통으로 이어진다.'

자살에 대한 냉정한 원론적 해석이다. 그런데 이보다 현실적인 자살대처방안을 제시한 예도 있다. 전통적 불교국가인 태국의 창마이 대학의 정신의학과에서 발표한 '자살예방을 위한 불교적 접근방식' 중 일부 요약이다.

'첫째, 자살에 대한 불교적 교리를 충분히 이해시킬 것, 둘째, 내세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할 것, 이 둘은 불교의 교리적 설득을 통해 자살을 막자는 뜻이다. 셋째, 승려를 대상으로 자살과 내세에 대하여 폭넓은 교육을 시킬 것, 이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승려의 상담능력을 키우라는 뜻이다. 넷째, 정서불안장애의 초기증세를 적시에 포착해 적절한 정신심리전문가에 치료를 의탁할 것, 이는 즉 안수기도회니 마귀를 내쫓느니 하는 사이비돌팔이 노릇을 치우고 신속히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다섯째, 각종 자살도구에 접근을 통제하고 자살충동 및 방조의 환경을 차단할 것, 여섯째, 약물남용 및 음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 일곱째, 무책임한 소문과 보도를 통제할 것, 이 세 가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자살케이스와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참선을 널리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 등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사후 애도(哀悼) 못잖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참선이 우울증, 자살충동억제 등 정신신경질환의 치유요법으로 이미 일반화되고 의료보험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Buddhism 8 Level, Chiangmai Medical, Oxford Press: Buddhism 등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



Once there was a well-known Sanskrit scholar priest who was young and much talented. Being so proud of his academic achievement, he delivered lectures all around. His mother heard about this and wrote him a letter.: "Son, I do not think you became a devotee of the Buddha because you became a walking dictionary. There is no end to knowledge, glory and honor. I wish you would stop this lecture business. Shut yourself up in a little temple in a remote part of the mountain. Devote your time to meditation and attain true awakening."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하고 재능이 넘치는 젊은 학승이 있었다. 자신의 학구적 업적에 잔뜩 자부심을 지닌 그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가르치러 돌아다녔다. 그 얘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걸어 다니는 사전'이 됐다 해 참된 불제자가 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식이나 명성에는 끝이란 게 없단다. 이 어미는 네가 남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그만뒀으면 한다. 부디 심산유곡의 암자에 은거하여라. 그리고 참선 정진하여 참된 깨우침에 이르길 바란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국제불교영화축제 열린다
멕시코서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국제불교영화축제(IBFF)가 개최된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개최됐던 동 영화축제가 주로 스페인어권이자 가톨릭국가들이 밀집한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불교영화축제는 멕시코의 사마야재단, 미국의 불교영화협회 및 프라즈노파야 불교재단 등이 공동주관한다.

축제기간에는 49개 이상의 불교에 관련된 영상작품이 심사되며 역대 불교명화 시리즈의 시사회와 불교영화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토론 및 심포지엄 등도 동시 개최된다.

출처 ; BCTN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❶

보편사고 넘어 영적 세계 탐구

1990년대 초 뭇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영화 '사랑과 영혼'을 기억하실 것이다. 망령, 유령을 뜻하는 'Ghost'란 원제목의 이 작품을 쓴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은 불교철학과 문화를 깊이 연구한 학자풍의 불자다. 이 작품으로 1991년 오스카 최우수각본상을 받은 그는 1943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했다.



브루스 조엘 루빈.

1960년대에 뉴욕대학과 인디아나 대학에 다닌 전형적인 히피 제너레이션의 문인이자 영화인인 그에 대한 '뉴욕타임스' 평

1991년 '사랑과 영혼'으로 오스카 최우수 각본상
불교철학 연구 관심 높이는 영적 신드롬 일으켜

론 중 일부다. '그는 변함없이 삶과 죽음에 초점을 고정한다. 그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뭔가를 깨닫는 임사인지(臨死認知), 그리고 죽음 뒤에 이어지는 사후세계에 대해 늘 탐구한다. 그는 인간이 지닌 보편사고와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세계를 탐색한다. 또 그는 영화제작자 겸 각본작가로서 단순히 이야기를 나열하는 따분하고 진부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예술성과 흥행성의 동시성공을 거뒀다. 그는 인간세계의 현실적 감성의 플로트, 그리고 영혼세계의 환상적 영상을 절묘하게 조화시킨다. 이 같은 독창적 업적은 그가 젊은 시절 그리스, 인도와 네팔, 티베트 등지를 다닌 일종의 구도행각이 빚어낸 결정체다.' 그는 1970년 영화 '69 디오니서스(Dionysus in 69)'를 브라이언 디 팔마와 공동연출하며 영화계에 첫발을 내딛고 '엄마, 안녕(Hi, Mom!)'에서는 그의 조감독으로 일한다. 그 후 NBC방송의 영상편집조수로 자리를 바꾼 그는 지중해 파로스섬부터 히말라야 산맥 오지까지 두루 누비며 자아발견과 영적 가치를 추구한다. 네팔 불교사원에서 수개월간 수행 정진하던 그는 미 CIA공작원이란 혐의로 네팔정부로부터 48시간 내 출국명령을 받는다. 수행은 중단됐지만 짧은 기간 그가 터득한 심오한 영적 체험은 후일 그의 작품활동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휘트니박물관에서 보조 큐레이터로 일하다 영상담당부장으로 승진한다. 얼마 후 미술교수인 부인과 미국 중서부지역으로 옮겨간 그는 그곳에서 각본을 쓰며 석사학위도 취득한다. 그 과정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인근으로 활동무대를 옮긴다. 1986년 그곳에서 그의 첫 각본인 '지독한 친구(Deadly Friend)'가 웨스 크레이번 감독의 연출로 개봉된다. 그 작품은 한 착한 청년이 자신의 죽은 여자친구를 되살려낸다는 한마디로 만화 같은 영화다. 게다가 흥행실패는 그의 패배감만 되레 더 부추긴다. 풀리는 것이란 없이 사방이 꽉 막힌 고행의 세월이 4년이나 계속된다. 그러던 그에게 마침내 쨍하고 볕들 날이 찾아온다. 1990년 직전부터 '사랑과 영혼' '야곱의 계단(Jacob's Ladder)' 두 작품의 각본을 동시에 쓰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내심 바라던 부제작자까지 떠맡는 행운이 거푸 닥친다. '사랑과 영혼'은 어느 선남선녀의 못 다한 사랑, 죽음, 영적 교감을 그린 순정만화와 같은 환타지 애정영화다. 그렇듯 단순하고 다소 유치해 보이는 플로트가 뜻밖에 순수익 2억 달러 남짓의 대히트를 치고 그간 음울한 좌절의 늪을 허우적대던 그에게 오스카 각본상까지 안겨준다. 앞서 말한, '지독한 친구'란 못난 꽃(因)이 있었기에 '사랑과 영혼'이란 탐스런 열매(果)가 맺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작든 크든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는 일 가운데 '헛수고'란 결코 없다. 후일 그는 '사랑과 영혼' 및 '야곱의 계단'의 원소재가 사실은 '바르도 퇴돌'이란 티베트의 <사자(死者)의 서>이며 이를 자신이 나름대로 재해석했다고 밝힌다. 이 책은 8세기 티베트불교의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펴낸 108개의 저서 중 하나라 전한다.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환생한 라마들의 증언을 통해 사후의 영혼이 겪게 되는 현상, 그리고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계속> 성휴 스님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고구려삼계탕 3층 지장사
☎ 02)796-7579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9 양송이 들깨즙탕

양송이는 마분 · 볍짚 등으로 만든 비료위에서 인공으로 배양한다. 담자균류 주름버섯목 주름버섯과로 분류, 전 세계에 분포돼 있다. 서양송이 · 머시룸이라고도 불린다.

세계 각국에서 식용으로 널리 재배하는 양송이는 여러 품종이 있다. 양송이는 유럽에서 재배가 시작돼 미국으로 건너가 일본을 거쳐 한국 · 타이완에서 대량 생산해 해외시장에 출하된다. 한국의 양송이 재배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 중부이남 지역에서 주로 봄 · 가을 2기작으로 재배한다. 통조림으로 가공해 수출하거나 생 버섯으로 국내에 시판된다.

양송이버섯의 갓은 5~12cm이고 처음에는 거의 구형이나 점차 펴져서 편평해진다. 표면은 백색에서 점차 담황갈색을 띤다. 주름은 자루 끝에 붙어 있고 밀생하며, 자루는 백색이고 속이 꽉 차 있다. 어렸을 때는 밑동이 팽대하다가 성장하면서 상하가 같게 된다.

양송이버섯은 저열량 고단백 건강식품으로서 가치가 뛰어나다.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필수아미노산(스테오닌 등 6종) 함량이 육류 · 채소류보다 높은 이유다. 특히 비타민D · 타이로시나제(Tyrosinase) · 엽산을 대량 함유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전분을 함유하지 않아 당뇨와 빈혈에도 효과가 높다.

양송이는 단백질 함량이 버섯 중 최고다. 성인병과 항암 등에 탁월한 효과도 있다. 체내 단백질 소모량이 매우 커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기 쉬운 암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좋은 영양식품이다. 더욱이 양송이의 추출물은 간암 예방에도 탁월하다.

저열량 고단백 건강식품 … 필수아미노산 함량 높아

양송이 추출물 간암 예방 · 콜레스테롤 제거 효과 탁월

양송이는 버섯 중 콜레스테롤 제거 효능이 가장 높다. 수시로 섭취하면 항암 및 항바이러스작용 · 고혈압 강하작용 · 동맥경화 등에 큰 효능을 볼 수 있다. 매일 신선한 것으로 150g을 볶거나 끓여 먹으면 소화 기능도 원활해진다.

산촌 (02)735-0312



양송이 들깨즙탕 재료 : 양송이, 들깨즙, 식용유, 소금.

만드는 법
① 양송이는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놓는다.
② 식용유를 펜에 두른 후 양송이를 넣고 소금을 약간 뿌린 다음 노릇노릇 볶는다.
③ 들깨즙을 진하게 끓인 다음 볶은 양송이를 넣고 한소끔 더 끓여낸다.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6 우울증3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오직 지금 이 순간 행복하자' 결심 후 내려놓기

국민스타 최진실씨의 자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항상 밝고 귀여운 이미지로만 보이던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우울증이었다. 세계적인 스타이자 만인의 연인이었지만 자살을 택한 장국영도, 왕비이자 세상 여인들의 온갖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영국의 다이애나비도 죽기 전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이면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인류를 괴롭힐 질병이라 경고했을 만큼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 증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할 질병이다.

 # 우울증 자가진단

1. 체중이나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는가? ( )
2. 불면 또는 잠을 많이 자게 됐는가? ( )
3. 이유 없이 초조하거나 우울한가? ( )
4.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의욕이 없는가? ( )
5. 삶에 대한 무가치감과 지나친 죄책감이 드는가? ( )
6. 사고력 · 기억력 ·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해 고민인가? ( )
7. 죽음, 자살에 대한 생각 · 계획이 있는가? ( )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연속되고 위의 증상 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당장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신이나 주변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되면 혼자 섣부른 판단이나 오해를 하지 말고 전문 상담인이나 병원 등을 찾아 치유하도록 한다.

▲정말 인생의 행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가?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그렇다. 마음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열쇠다. 똑같은 조건의 '관계'라도 행복할 수도 괴로울 수도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한 것이다. 지난호에서도 강조했지만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는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 오직 지금 이 순간 행복하자 (평상심 갖기)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0으로 하고, "~때문에"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그 다음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행복하자(now and here)"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매번 놓치고 산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즐기고 최대한 집중한다면 스스로 연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모인 과거와 미래는 당연히 알차고 밝아진다.

▲비교하는 마음 없애기 (분별심 버리기)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 살면서, 비교하며 괴로움을 자초한다. "저 사람은 저만큼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보석 등을 가졌는데" 등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는 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대상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더, 더, 더"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한숨과 허망만을 제공한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나를 자각(自覺)해야만 한다.

▲놓아버리기 (방하착 하기)

인간에게 욕망은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집착의 원인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 물질을 예로 한 움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는 양손 양발 그것도 모자라 입으로도 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잠시 눈을 감고 내가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지 떠올리며 편안하게 심호흡 후 그 꽉~ 쥐고 있는 손을 살짝만 놓아보자. 잠시만이라도 놓으면 한 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게 너무나 많은 짐과 욕심을 지워 힘들게 나를 혹사시키지는 않았는지, 상대를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나 자신과 상대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방목하는 소는 도망가지 않는다.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내게서 더 멀어질 뿐이다. (02)576 -7575 (계속)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1



베트남서 본 약왕보살 침향과의 첫 만남

좋은 향의 재료를 찾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지 보름째. 전설의 나무라는 진자단과 전백목을 찾아서 밀림을 헤매다가 베트남과 접경지역인 후미비엔둥(phumi vieng dung)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치료 받기 위해서는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거나 의료시설을 갖춘 호치민으로 나가야했으나 상황이 너무 급했다. 그나마 수도인 프놈펜까지는 너무 멀었고 일단 베트남으로 가자고 국경을 넘어 정글을 가로질러 나가던 중 베트남의 툭북(tuc buc)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늘한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베트남의 원주민 노파가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다.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던 나를 데려왔다고 한다. 마을 의사이자 무녀(巫女)이기도 한 그녀의 정성어린 간호로 나는 약간이나마 기운을 되찾았다. 내가 이만 떠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 몸으로는 무리라며 극구 만류했다. 계속해서 내가 떠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녀와 나의 전생 인연을 들려주며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했다.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집이었다. 들어가 보니 법당이었다. 어두운 실내에는 두 자 남짓한 약왕보살이 서 있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짙은 검은색이었다.

약왕보살상 옆으로 다가간 그녀는 가져간 불로 약왕보살 옷자락에 불을 붙였다. 놀란 내가 어찌할 틈도 없이 그녀는 약왕보살 옷자락에 붙은 불을 껐다.

순간 사방을 둘러싸는 고귀하면서도 따스한 이제껏 맡아보지 못한 신비로운 향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향기가 병마에 시달린 고달프던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온 몸을 휘돌고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약왕보살은 침향으로 만들어졌다"며, "약왕보살에게는 한 가지 신비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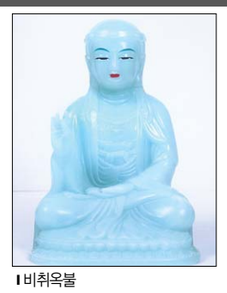
20여년 전 프랑스 학생 30여명이 이곳으로 봉사를 왔었다.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떠나기전 법당에 들렀다. 학생 중 10여명이 약왕보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꿈에서 약왕보살을 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왕보살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한 것 같아 법당을 정리하고 가라고 했다.

학생들이 법당 청소를 마치고 돌아간 시간은 예정된 출발시간에서 서너 시간 지체된 후였다. 프랑스 학생들이 타고 갈 버스가 있는 마을로 향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놀란 얼굴로 비에 젖은 운전사였다. 운전사는 약속한 학생들이 오지 않자 잠시 버스에서 내렸고, 갑자기 쏟아진 비에 언덕 위 인가로 피했다고 한다. 잠시 후 산사태로 인한 흙더미에 버스를 덥쳐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학생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02)3663-6777

(계속)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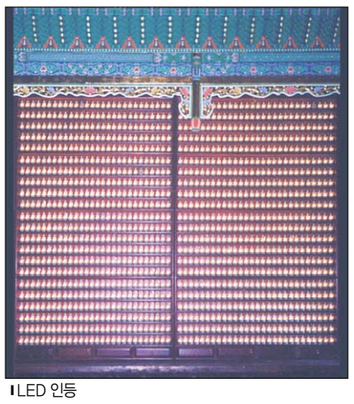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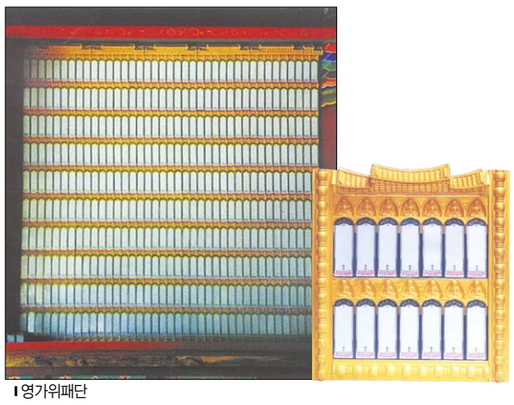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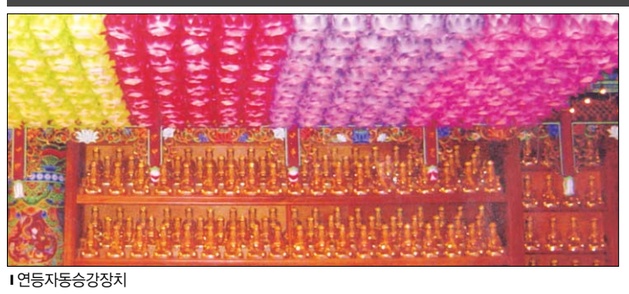

LED 인등


영가위패단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LED 전구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 BEST 추천도서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붓다가 되신 예수님

21세기에 붓다가 전하는 참 메세지!

일찍이 그 어떤 선지식도 밝혀내지 못했던, 마음 밝아지는 영적 로드맵(Road Map)과 수도의 명확한 방법론(Methodology)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 티벳「사자(死者)의 서(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혼이 전생에서 금생으로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실감나는 체험의 말씀을 이 책에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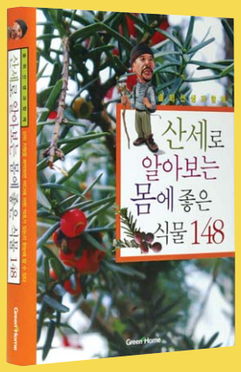
백성욱 박사 말씀 · 김원수 글 | 신국판 | 231쪽 | 값 8,000원 **공경원**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이 책은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의 불이법不二法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현대인의 수행지침서 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자들이 금강경을 실천함으로써 화두를 깨치고 마음속 아상의 벽을 허문다면, 불교만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요 그리스도교가 불교와 다른 가르침이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원수 지음 | 신국판 | 양장 | 288쪽 | 값 12,000원 **공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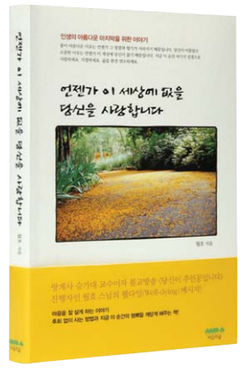


산세로 알아보는 몸에 좋은 식물 148

"25년 산 속 생활에서 체득한 저자만의 생생한 정보! 산세로 알수 있는 약초 자생지"

이 책은 25년간 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식물을 연구해 온 저자가 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체득한 정보를 정리 한 것으로 전체와 줄기, 수액, 열매, 뿌리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한다.또한 컬러 사진과 명칭, 생태와 분포 및 채취기,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관한 팁도 함께 수록하였다. 〈산세로 알아보는 몸에 좋은 식물 148〉은 뿌리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전체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잎줄기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꽃과 열매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등으로 나뉜다.

솔뫼 지음 | 신국판 | 양장 올 컬러 | 478쪽 | 값 28,000원 **그린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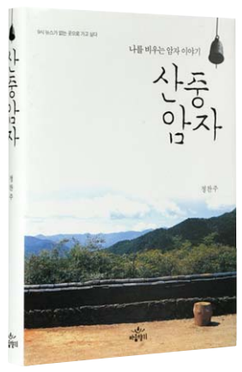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스님이 들려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이야기!

이 책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다. 죽음을 삶에 비춰 보면서, 죽음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려준다. 삶과 죽음의 어느 한 순간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별하기를 반복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저자는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애틋하고 소중한 것처럼, 죽음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애틋하고 소중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월호 지음 | 신국판 | 양장 | 249쪽 | 값 9,500원 **마음의 숲**



산중암자

나를 비우는 암자 이야기!

9시 뉴스가 없는 곳, 분별도 시비도 훌훌 떨치고 마음으로 가는 산중암자.....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일대기 〈산은 산 물은 물〉의 저자인 정찬주의 암자 순례기이다. 암자 가는 산길은 금산면 소재지 마을 뒷밭부터 시작된다. 땀이 나면 등 뒤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쉬고, 진달래꽃에 눈을 맑히며 쉬엄쉬엄 걸으면 된다. 도회지 삶의 타성으로 결코 빨리 오를 일도, 서둘 것도 없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큰스님들의 족적과 화두가 있고 그의 숨결이 머무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한 생각을 목표에 두고 사시오. 가지치기를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언행일치이지요"

정찬주 지음 | 4×6판 | 양장 | 208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마음향기**



호이에르슈타인 지음/김형준 옮김
4×6배판 양장/944쪽/38,000원
무우수

요가 전통

-요가의 역사, 철학, 문학 그리고 수행

요가를 연구하거나 수행할 때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되어줄 요가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설서

요가의 의미와 사상적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요가의 역사, 철학 그리고 수행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요가 전통』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시크교 요가의 5000년 역사를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주요 경전들에 대한 완역 및 부분 번역과 200장이 넘는 삽화들을 담고 있다. 또한 책 뒤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용어해설〉, 〈연대기〉, 〈참고 문헌〉 등은 독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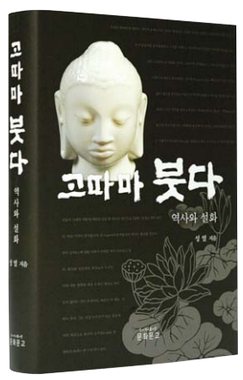


불교성전 + 불교용어사전 정가(전5권):123,000원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설하신 설법을 (출가/전법, 수행/교화, 승가/자비, 정토/열반, 불교용어사전)의 구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히 지니고 부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성전은 부처님 당시의 설하신 설법의 내용을 시대상황과 더불어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수행스님께는 불자들에게 당시의 구체적인 부처님의 설법을 전하는 데 더없는 자료가 될 것이며 불교의 어려움을 느끼던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크고도 넓으며,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교성전편찬회 | 신국판(양장본) | 문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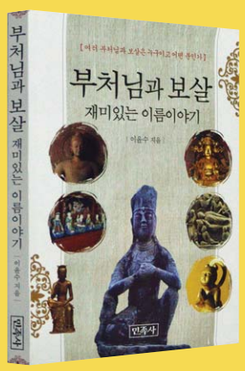
고따마 붓다

'고따마 붓다, 그는 진정 누구인가'

한국불교의 위기는 불교를 믿는다면서 교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한다.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책은 '고따마 붓다, 그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불교의 교주론을 분명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붓다의 존재를 설화의 집합체, 또는 비역사적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와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고따마 붓다의 삶을 생생하게 읽어내고, 그를 본 받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삶인가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성열자음 | 신국판 | 양장 | 502쪽 | 값 22,000원 **도서출판 문화문고**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부처님과 보살에 얽힌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를 담은 책

불자들은 집이나 절에서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기도하면서 산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밝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부처님과 보살이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불자라고 해도 쉽지 않다.

방송작가인 저자가 불심으로 엮은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등 불교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잔잔한 문체의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윤수 지음 | 신국판 | 295쪽 | 값 9,000원 **민족사**



| 왕초보 드디어 불교의 고수가 되다 |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 양장 | 319쪽 | 값 9,500원 **민족사**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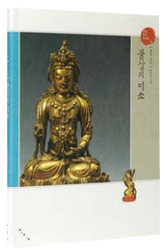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

계환스님 지음 | 4×6판 | 양장 | 304쪽 | 값 9,500원 **민족사**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 양장 | 328쪽 | 값 9,500원 **민족사**



불상의 미소

시대의 미의식과 문화가 숨 쉬는 불교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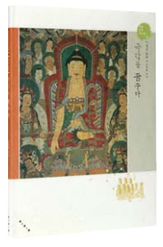
사찰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얼굴은 여러 가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연예인처럼 잘 생기신 부처님이 있는 반면, 무섭게 보이거나 때로는 부드럽게 웃으시는 부처님도 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인간의 모습을 닮은 형상으로 불상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불상에서 티지는 그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가?

정은우 지음 | 235×305mm | 양장 | 72쪽 올컬러 | 값 20,000원 **보림**

극락을 꿈꾸다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의 나라

불화는 불교 교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불화에는 선조들의 생활과 신앙, 바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즐거움이 가득하고 온갖 보배가 널려 있는 등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후 지옥에서 겪게 될 끔찍한 고통을 보여 주어 몸서리치게 만들기도 한다.



김정희 지음 | 235×305mm | 양장 | 72쪽 올컬러 | 값 20,000원 **보림**



禪에서 본 般若心經

| 大顚和尙注心經 |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통한 선(禪) 입문(入門)
선사의 체험으로 새롭게 열어 보인 반야의 세계
그 깨달음의 안목이 돋보인다

불광출판사이 책은 모두 금옥(金玉)과 같아서…… 비록 도행(道行)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삿된 소견이 들어있는 자에게는 영약(靈藥)이 되며, 어둠속에 길 잃은 자에게는 밝은 등불이 되고, 문 밖에서 헤매는 사람에게는 표본이 되는 주석이며, 바른 눈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표준이 되는 안목이다.

대전요통 지음 · 현봉 옮김 | 신국판 | 304쪽 | 값 13,500원 **불광**



마음의 고향 (전5권)

만유일체(萬有一體) 두두물물(頭頭物物) 세상 모두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청화 큰스님께서는 1947년 24세 나이에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대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시고 그 후 50여 년 동안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청화 큰스님의 강의를 집대성한 법문집 「마음의 고향」시리즈는 성불(成佛)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큰스님의 말씀을 어투와 내용의 훼손 없이 옮겨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청화 큰스님의 육성을 고스란히 후세에 전하고 기록하고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淸華 큰스님 | 신국판 | 전5권 | 값 63,000원 **도서출판 상상예찬**



광명진언 사경

"백중기도, 수능 및 시험 합격발원"에 산란심을 없애고 일심(一心)이 되게 하는 광명진언 사경을 !!!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眞言으로 모든 진언 중 가장 묘하고 보배로운 진언眞言이다."

지범 엮음 | 340×215mm | 208쪽 | 값 15,000원 **심궁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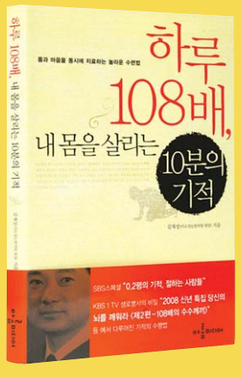
맑고 밝은 마음 백팔배

"맑고 밝은 말 한마디' '귀의 삼보' '참회' '감사와 발보리심' '서원'으로 구성된 한글 완역본 백팔배, 부처님 예경서!

통도사 적멸보궁에서 천일기도용으로 사용함

지범 편저 | 220×285mm | 51쪽 | 값 10,000원 **심궁출판사**
※ 별매 – 맑고 밝은 마음 백팔배 CD 값 10,000원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SBS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2008년 신년 특집 당신의 뇌를 깨워라 〈제2편 – 108배의 수수께끼〉" 등 에서 다루어진 기적의 수행법

이 책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을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소개하고 있다. 막역한 친구가 당뇨로 쓰러진 후 108배로 건강을 되찾은 과정을 지켜본 저자는 한의사로서 '절'이 가진 운동의 효과와 의학적 치료성에 주목한다. 108배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여분, 이 10분이 병든 몸과 마음에 끼치는 기적 같은 힘을 자신은 물론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저자는 절하는 방법을 바꿔가며 운동법으로서 가장 좋은 절 동작을 연구해 소개했다.

김재성 지음 | 신국판 | 237쪽 | 값 10,000원 **아롬미디어**



법/성/게/강/의

신라의 의상스님은 「60화엄경」의 골수 내용을 뽑아 「법성게」라는 2백 자의 간단한 문구 속에 심오한 진리를 요약하여 담아, 불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므로 해서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를 일상 속에서 쉽게 기억하게 하였다.

화엄경에 대한 강의나 해설에 대한 책들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다. 하지만 법성게란 단일 제목으로된 강의나 해설은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서 희소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성철스님의 오매일여 사상에 대한 저자의 일갈은 단순한 알음알이로 강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만든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화엄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욱더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석우스님 지음 | 신국판 | 424쪽 | 값 13,000원 **여래출판사**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DAUM 통합검색 붓다북 검색 or NAVER 통합검색 붓다북 검색 을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살았으면

|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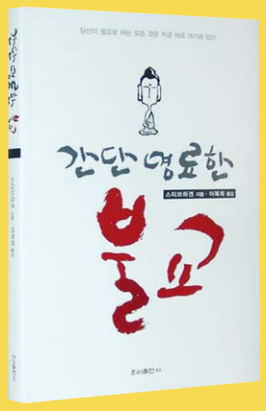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는 불교적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한 권의 보현행원품으로도 충분 하며 불교와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보현행원품을 공부하는 것은 불자로서 필수적인 일이다.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 카페〈염화실〉은 불교 경전과 어록들을 총망라하여 동영상과 육성으로 해설 강의 함으로써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는 설법 자료의 보고(寶庫)입니다.

http://cafe.daum.net/yumhwasil

무비스님 풀어씀 | 신국판 | 194쪽 | 값 7,000원 指花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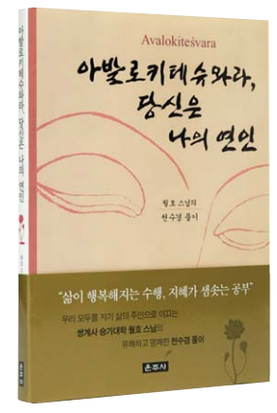
간단 명료한 불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눈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내용이 두드러진 책이다.
이 책을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일상의 선(Everyday Zen)〉의 저자, 샬럿 조코 백(Charlotte Joko Beck)

이 책은,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향해 곧바로 난 유쾌한 길이다.
〈누가 죽는가?(Who Dies?)〉의 저자, 스티븐 러바인(Stephen Levine)

스티브하겐 지음 · 이복희 옮김 | 4×6판 | 246쪽 |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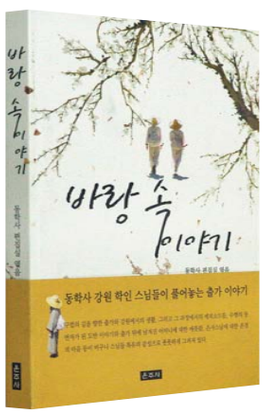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쌍계사 승가대학 – 월호스님의 천수경 풀이
삶이 행복해지는 수행, 지혜가 샘솟는 공부!

- 우리 모두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이끄는 유쾌하고 명쾌한 천수경 해설
- 실제 강의를 듣는 듯한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
- 일상에서의 다양한 일화와 예화, 생활속의 이야기들을 통한 재미있고 살아있는 해설

"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바라는 것 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주리라."

월호스님 지음 | 국판 | 240쪽 | 값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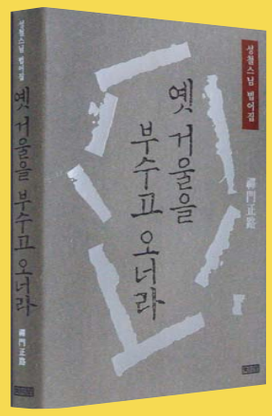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마음자리와 출가 이야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출간된 지 25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

한국불교계의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철 스님의 대표작,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불교계는 돈점(頓漸) 논쟁에 휩싸였다.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저자가 1981년 출간한 〈선문정로〉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개정판』에서는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 등을 첨가했으며,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자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선문정로〉를 교재로 해인사에서 강설한 내용을 추가하 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원문 출처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철스님 지음 | 신국판 | 424쪽 | 값 10,000원 장경각

마음에 빛을 주는 티벳 사자의 서 오디오 북

죽음의 시기에만 행해지는 매우 가치 있는 실험으로의 초대.
우리는 죽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오디오 CD 3장, 낭송 대본 포함 / 값 18,000원

20세기 초반 서구 사회에 처음 소개된 후로 학자와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받아온 고전 《티벳 사자의 서》가 국내 최초로 본래의 형태인 듣는 책(오디오북)으로 제작되었다. 생사의 업을 짊어진 모든 생명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해탈의 길로 이끄는 이 궁극의 가르침을 불교방송 DJ 정목 스님의 맑고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 듣는다. 정신세계사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TV "산성 할아버지의 신新 사고思考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풀어낸 바로 그 책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내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천명일 지음 | 신국판 | 고급양장 | 536쪽 | 값 18,000원 | 값 25,000원 지혜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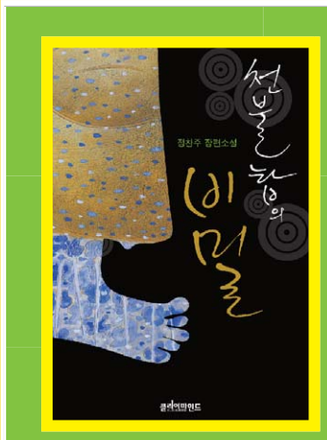
절로 가는 길

절이 지닌 의미와 깨침의 미학

심신心身의 모든 감성과 마음까지도 환히 깨닫는 절 이야기

사찰은 본래 우리 내면의 각성세계를 밖으로 잘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면목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적 풍광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자로 보이고, 형색의 도설이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 해 준다.

천명일 지음 | 신국판 | 597쪽 | 값 20,000원
신국판 양장본 | 597쪽 | 값 28,000원 지혜의 나무



정찬주 장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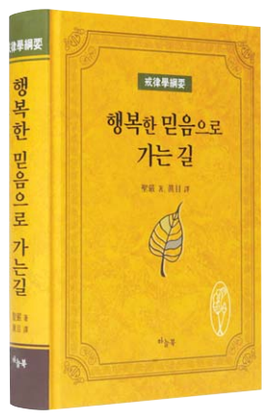
천불탑의 비밀

인생의 의미를 마법의 융단처럼 펼치는 소설_ 최인호
우리들의 가벼워진 삶에 의문을 던지는 소설_ 한승원

천불탑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비밀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되어, 때로는 가슴 조이고 때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흥미진진한 천불탑의 비밀 속에 빠져든다.

저자_ 정찬주
A5판 • 322면 • 값 10,000원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9-1
전화: 02-722-2322 / 팩스: 02-730-2646
e-mail: hanulbook@yahoo.co.kr

| 계율학강요(戒律學綱要) |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길

대만 법고산사 개산조 성엄스님의 대표작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계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의 근본정신을 강조하여 계율 조항의 틀에 박힌 대로 사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상적으로 부처님의 근본교의를 통하여 시대적 문화영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향은 바로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표출해 냄으로써 불교의 시대정신을 배양하고, 매 사람들로 하여금 승단제도를 정리하고 사명의식을 갖는 새로운 시대의 불교청년이 되도록 한다. 사상 또한 모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불교의 새 시대문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다면 불교 내의 문란하고 잘못된 일체의 관습과 사상 등을 돌파하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도 없어진다. – 서평

聖嚴 著 | 眞目 譯 | 양장본 | 신국판 | 704면 | 값 15,000원 도서출판 하늘북



생활 속의 명상수행

빠알리대장경 앙굿따라니까야 앤 솔로지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출가수행자들과 재가신자들이 겪게 되는 일상의 관심사에 대한 물음을 풀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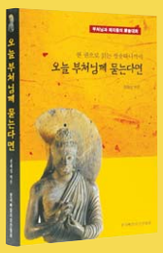
전재성역주 | 653쪽 | 신국판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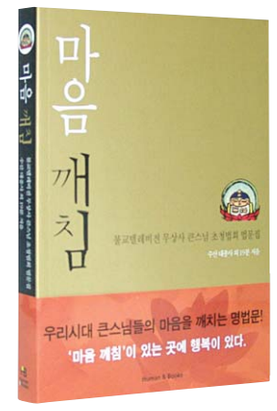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쌍윳따니까야 엔솔로지 개정증보판

〈쌍윳따니까야〉에 실린 2,889개의 경 가운데 이시대에 유용한 180개의 경전을 골라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전재성 역주 | 신국판 | 665쪽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마음 깨침

불교텔레비전 무상사 큰스님 초청법회 법문집

이 책은 불교텔레비전에 속해있는 무상사(無相寺)에서 3년간 일반불자를 위해 초청한 큰스님들의 생동감 넘치는 법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큰스님들의 구도정신뿐 아니라, 종교가 지니는 가치, 종교생활을 바른 태도, 세상을 바르게 사는 이치 등이 묻어나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잇다.

20인의 큰스님이 들려주는 법문의 핵심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다. 오늘날 자신의 주인이 '나'임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수산 지음 | 신국판 | 433쪽 | 값 18,000원 휴먼앤북스

근원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생명표현



현대불교 696~698호를 통해 적멸보궁의 장대한 영기화생의 광경을 3회에 걸쳐 보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적멸보궁은 금강계단에 부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강계단과 적멸보궁은 둘이 아니고 하나(不二)입니다. 법과 법계와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계단의 존재가 먼저 있었고 그 인연으로 적멸보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금강계단의 장대한 영기화생의 광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적멸보궁은 17세기 중엽에 지어진 건축이고, 현재의 금강계단 역시 같은 시기에 조영된 계단으로 보고자 합니다. 논증은 지면 상 생략합니다. 그런데 자장(慈藏)이 636년에 왕명에 의해 입당(入唐)하고 643년 7년 만에 왕명에 의해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사리 100립(粒)을 셋으로 나누어, 황룡사 9층탑과 태화사 탑과 통도사 계단에 각각 두었다고 했으니 모두가 자장이 창건한 호국사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종의 개조인 자장이 계단을 조성한 까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선덕여왕은 돌아온 자장을 곧 전국 승려의 규율을 통할하는 승직으로는 최고인 대국통(大國統)을 삼으며 불교를 더욱 강한 정치적 이념으로 삼되 계율로써 했으며, 통도사 금강계단이 그 구심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 통치에서 자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모든 승려의 수계의식 행해져
중심부에 비로자나불 조각해 법계 상징

결국 이 계단에서 모든 승려의 수계의식(授戒儀式)이 행해 졌습니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만약 불자가 수계를 원할 때 먼저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며 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불상이 없으니 석가여래의 진신사리 앞에서 서원을 세우며 수계하는 것이어서 가장 엄격하고 엄숙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탑의 개념보다 계단의 개념이 강합니다. 계단의 카테고리 안에 사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계단 위에서 라기 보다는 적멸보궁 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도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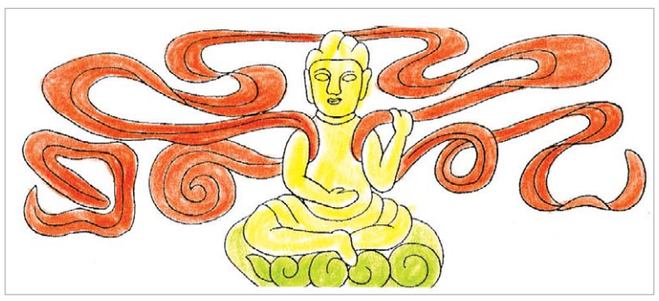
중층 기단부의 높이는 1미터 40센티, 하대의 가로 10미터 세로 1미터, 상대의 가로 세로 7미터로 정방형에 가깝습니다. 석종(石鐘)모양 탑의 높이는 연화대좌를 합하여 1미터 80센티(탑신부 높이 1미터 34센티)의 규모입니다. 하층 기단에는 정면(남면)에만, 중앙의 배례석 때문에 기단의 중앙부를 제외하고 양 쪽에 각각 중심에 비로자나불을 조각하여두고 그 좌우에 비천상을 둔 삼존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서북 세 면은 중심에 비로자나불을 두고 비대칭적으로 좌우에 각각 3구의 비천과 4구의 비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단 네 면의 중심부에 비로자나불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역시 <화엄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멸보궁은 그러니 법계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로자나불의 대좌는 연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꽃 양쪽으로 녹색의 영기문이 발산하며 그 갈래에서 연봉과 연꽃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제3영기 싹' 모티브가 반복되어 있군요. 바로 그 영기문의 갈래 사이에서 비로자나불이 홀연히 나타납니다. 영기화생입니다. 여래의 몸은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비로자나의 머리 양쪽에 있는 범자의 성음(聖音)은 비로자나불이 설한 법입니다. 화엄경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비로자나불이, 「초록색 영기문에서 화생하는 연꽃」사이에서 화생하며 설법한 진리가 두 梵字로 요약되고 있다.



비천을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비천입니다. 비천이란 하늘을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을 의인화한 것으로 비천이 있으면 천계를 , 더 나아가 법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증하기 어려우나 간단히 설명합니다. 비천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볼까요. 비천은 연꽃이 아니고, 연두색 영기문 모양의 대좌에서 직접 화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의(天衣)는 실은 옷이 아니고, 천인으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를 천의를 빌어 나타낸 것입니다. 한 쪽 끝은 영기 싹이 도르르 말린 모양이고 공간을 한껏 활용하여 천의자락을 길고 역동적인 영기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천의에서 떨어져 나간 한 조각 영기문도 있습니다. 석가여래 사리탑과 함께 중층 기단의 도상을 채색하여 전체를 보면, 사리탑의 장대한 영기화생의 장대한 광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영기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사리탑이 우리 앞에 홀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탑은 모두 사리탑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계단의 석가모니 사리탑'이라 불러야 합니다. 홀연히 나타난 탑의 형상 역시 대단합니다. 먼저 영기 싹 무늬로 이루어진 영기문에서 연꽃이 화생하고, 그 위에 탑이 나타납니다. 탑은 범종모양입니다. 범종은 신체(神體)이니, 즉 부처님의 몸입니다. 아래 부분에 역동적인 영기문이 둘려져 있고, 사리를 담은 사리 장엄구가 있는데 그 형태의 모든 부분이 영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뚜껑 양쪽에 역시 '제3영기 싹'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들이 영기화생하며 천계 혹은 법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범종의 상징을 파악하게 되면 범종모양 부도의 상징은 곧바로 풀려집니다.

탑의 정상에는 연꽃으로 받쳐진 보주모양 연봉이 있습니다. 흔히 보주로 정상을 마감하고 매듭지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연봉이 막 피려고 합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정상에 입을 열어 막 피려는 연꽃모양 영기문으로 표현하여 여기서 '법'(일체)이 나타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꽃도 영기문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형미술에서 보는 모든 연꽃은 영화(靈化)된 연꽃입니다. 모든 연꽃이 영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통도사 금강계단이 얼마나 장대한 영기화생의 광경을 보여주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적멸보궁과 금강계단에는 조각-회화-건축-공예 등 모든 조형에 '제3영기 싹'(이 도상에는 제1, 제2 영기 싹 모양이 포함되어 있다)의 모티브가 한 없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道)를, 비로자나를, 영기를, 즉 "일체를 탄생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이 한없이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법계에 바로 그 근원적인 생명이 충만하다는 장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로써 적멸보궁과 금강계단의 영기화생의 광경을 자세히 풀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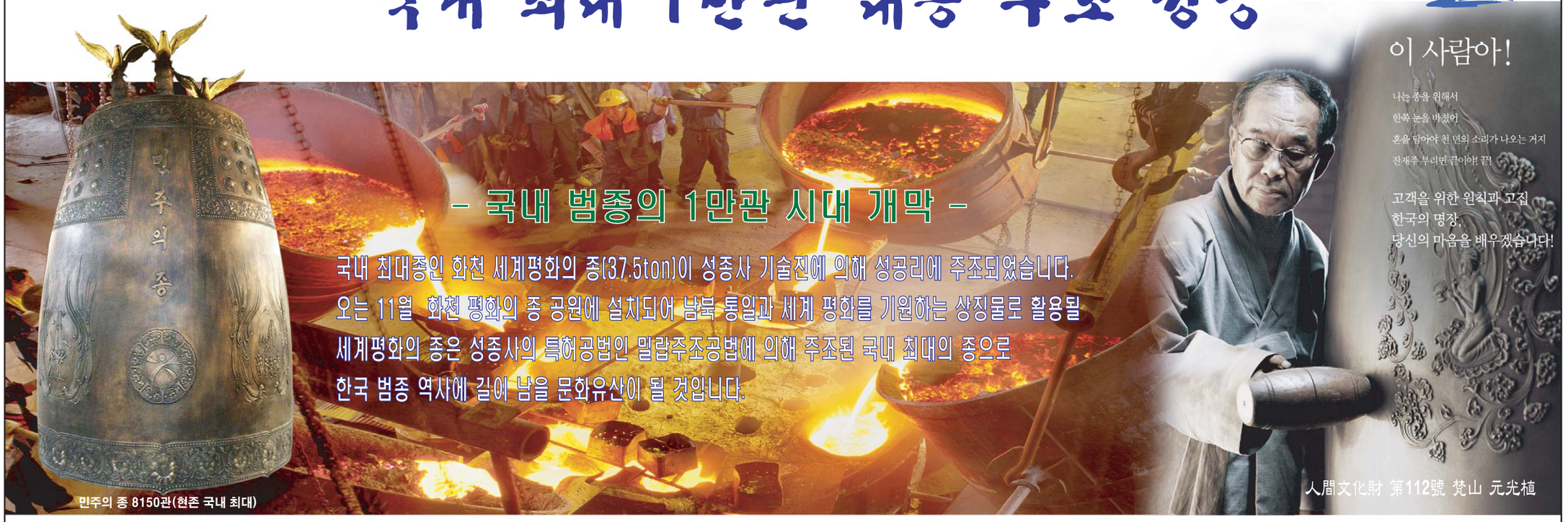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佛紀 2552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교 무 정수
학 장 덕민　　재 무 종천
선원장 종우　　사 회 각천
부주지 장주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종민
기 획 정문　　신도회장 변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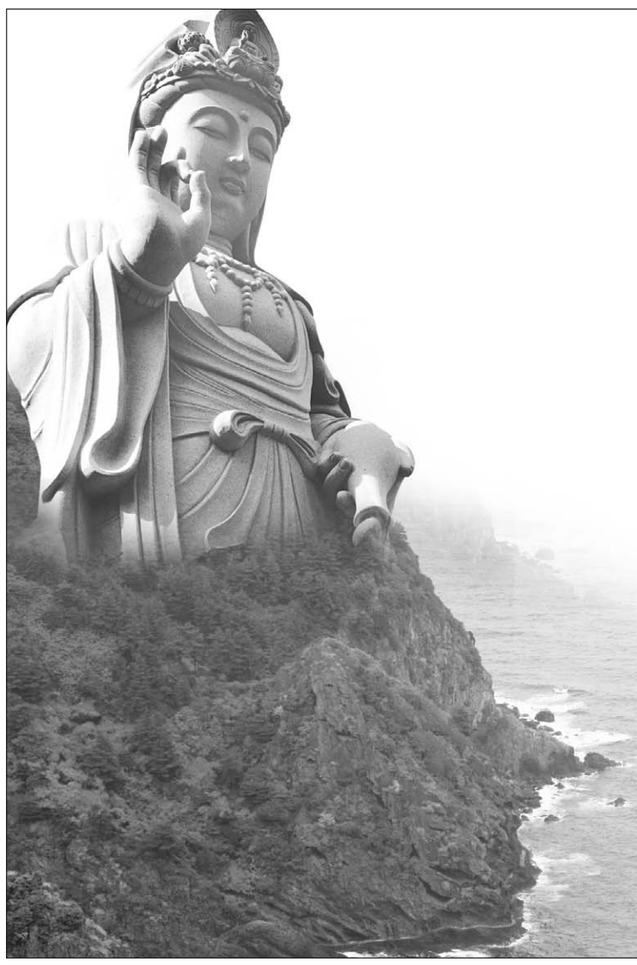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 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 봉 식

남양 성인사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행 자 (예 비 스 님) 모 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 국 불 교 대 학　大 관 음 사　053)474-8228　TVbuddha.co.kr

세조가 문수보살 친견한 곳 … 장엄한 숲의 바다

(107) 백화산 반야사


반야사에서 건너본 백화산.


반야사 영천.

절 입구 인공호수 무분별한 방생으로 생태계 교란
반야사 배롱나무 무학 대사 짚던 지팡이라 여겨

조선조 신불의 군주였던 세조가 전국의 명천(名川)을 순례한 것은 다만 몸에 난 피부병만을 치료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 좋은 산사를 찾아가 몸을 씻고 법회를 연 것은 등극과정에서 빚어진 살육의 업보도 함께 씻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충북 영동 반야사는 오대산 상원사나 속리산 복천암 등과 함께 세조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물 좋은 산사 가운데 하나이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황간휴게소를 지나노라면 왼쪽 차창 멀리 시커먼 산들이 지나간다. 해발로는 1000m에 이르지 못하지만, 산세가 자못 웅장하여 따로 백화산맥이라고도 부른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이루었고, 지금은 충북과 경북이 도계를 이루고 있다.

이 백화산중에 반야사가 들어선 것은 신라 성덕왕 때의 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절의 사격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속리산 복천암에 머물던 세조가 이곳을 찾아와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면서 비롯된다. 그때 세조는 문수보살을 따라 망경대 아래 영천(靈泉)에 이르러 목욕을 했다고 한다.


감국.

반야사는 영동 황간읍내에서 푸른 석천계곡을 거슬러 20릿길이다. 절 입구에 농업용수를 얻기 위한 큰 농보가 놓이면서 위쪽으로 인공호수가 생겼다. 이 호수에 향어와 잉어 등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은 불자들의 무분별한 방생의 결과로 보여진다. 석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방생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맨 먼저 호랑이 형상을 한 앞산의 너덜지대가 눈에 띈다. 백화산 일대는 이러한 너덜지대가 많다. 너덜은 기암절벽들이 빙하기 때 물리적 풍화작용을 받아 조각이 난 채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반야사 가람들은 상하단으로 단순하게 배치돼있다. 경내 조경은 특기할 만한 것은 없고, 극락전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노거수 배롱나무에 눈길이 간다. 배롱나무는 옛날 유학승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사찰 경내에 처음 심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찰 조경수 가운데 꽃이 가장 화려하고, 홍갈색으로 매끈하게 벗겨진 줄기도 특색이 있다. 꺾꽂이가 잘 되는 나무이기에 무학 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라는 전설이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극락전 주위로 대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이라 생육상태가 그리 튼실해보이지는 않는다. 키도 5m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600년 전 박흥생이 반야사에 와서 머물며 노래했던 그 대나무숲이 아닐런지.

비가 오면 잠수교가 되는 구멍다리가 종무소 아래 석천에 걸려있다. 그 다리를 건너면 관음전으로 가는 숲길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다.

숲길 주변으로 이따금 가을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9월말, 개체수는 적지만, 반야사 주변의 산과 들에서 다양한 가을 꽃을 볼 수 있다.

'황국(黃菊)'으로도 불리는 감국은 전체에 짧은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국에 비해 꽃봉오리수는 적지만, 꽃잎이 큰 편이다. 향기는 덜하지만, 독성이 없어서 국화차의 재료로 쓰인다.

개미취 역시 국화과 식물로, 키가 1m 가까이 자란다. 가을 일찍부터 곧은 줄기 끝에 연한 자주색이나 하늘색 꽃이 핀다. 씨앗이나 뿌리로 번식시키면 사찰 조경에도 알맞다.

꽃이 핀 귀화식물로는 비짜루국화, 망초, 개망초, 달맞이꽃, 토끼풀, 미국가막사리, 미국쑥부쟁이, 미국자리공 등이 조사됐다. 심산유곡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부터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온 것은 관광객과 등산객 등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이다.

비짜루국화는 1년생 초본으로, 반야사에서는 석천 물가에 이따금 나타나고 있다. 가지가 어지럽게 번지고, 가을이면 가지 끝에 흰꽃이 핀다.

가을이 깊어가는 9월말, 반야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으로는 잠자리 종류가 가장 많다. 두점박이좀잠자리, 밀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쇠측범잠자리, 마아키측범잠자리, 검은물잠자리, 고추잠자리….

두점박이좀잠자리는 중간 크기의 몸집으로, 암수의 몸색깔이 달라서 가끔 헷갈린다. 노란 이마에 검은 점이 2개 나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늦가을까지 살다가 짝짓기를 마치고 나서 죽는다.

반야사 일대에 서식하는 텃새로는 박새류를 비롯하여 노랑턱멧새, 딱새,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어치, 물까마귀, 굴뚝새 등이 있다. 계곡 주변 물가에서 활동하는 여름철새로는 꼬마물떼새, 물총새, 삑삑도요, 검은댕기해오라기, 알락할미새 등이 조사됐다.

경내를 나와 우측으로 돌아가면 망경대 문수전으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그 숲길이 끝나는 곳에 석천계곡 별천지가 열린다. 경북 상주 땅에서 충북 영동 경계를 넘어온 석천의 물이 넓은 반석 위로 면경을 깐 듯 고요하다. 바로 이곳이 세조가 문수동자의 안내를 받아 멱을 감았다던 곳이다.

석천에는 피라미와 갈겨니가 우점하는 가운데 모래무지, 칼납자루, 돌고기, 참마자, 돌마자, 미꾸리, 참종개, 동사리, 밀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2급수 어종인 모래무지는 모래나 잔 자갈이 깔린 곳에서 산다. 몸은 길고 둥글고, 뒤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주로 물속의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 까닭에 주둥이는 길고 입은 주둥이 밑에 있다.

이곳 석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강의 하류에서나 관찰되는 재첩이 이곳 심산유곡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서식하는 재첩은 황갈색을 띠고, 씨알은 다른 강에서 나는 것보다 작은 편이다. 모래 속의 유기물이나 플랑크톤 등을 걸러 먹기 때문에 수질향상에 도움을 준다.

재첩 말고도 다슬기, 말조개, 물달팽이 등이 석천에 살고 있다. 석천계곡의 다슬기는 황록색 바탕에 흑갈색의 가로무늬가 있는 일반 다슬기가 많다. 하지만, 개체변이가 매우 심해서 판별하기가 까다롭다. 다슬기 역시 바위에 붙은 조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수질정화에 도움을 준다.

영천에서 고개를 들어 오른편 절벽 위를 바라보면 망경대라고 불리는 천길 단애 위에 문수전이 아스라히 앉아있다. 문수전에서 건너다보면 백화산 암봉들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가파르고 험준한 암봉들이 눈앞에 와서 멈췄다.


오갈피꽃.

문수전 발아래는 온통 숲의 바다이다. 백화산과 반야산 주변은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가 적당히 혼재돼 있다. 군락으로는 소나무, 신갈나무 군락이 비교적 넓은 분포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갈나무-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소나무 군락이 하부에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는 느티나무, 음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팽나무,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까치박달, 고광나무, 비목나무 등의 교목들이 우점하고 있다. 그보다 키 작은 나무들로는 오갈피나무, 고광나무, 노린재나무, 노박덩굴, 누리장나무, 당단풍, 딱총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생강나무 등이 있다.

고로쇠나무는 이른 봄에 수액이 많이 올라온다. 나무 껍질은 회청색이며, 세로 무늬가 나 있다. 잎은 손가락 같은 열편이 5개 안팎으로 갈라진다.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든다.

오갈피나무는 많은 줄기가 올라와 우산 모양의 나무모양을 이룬다. 잎은 다섯장이며, 가을이면 자주색 꽃이 핀다. 뿌리와 줄기의 껍질은 '오갈피'라 하여 약재로 쓰인다.

문수전 발아래 석천계곡이 아스라하다. 상주땅에서 발원한 석천 물줄기가 백마산중에 이르러 곳곳에 협곡을 만들며 마치 뱀처럼 기어드는 모양새이다. 이를 지리학에서는 감입사행(嵌入蛇行)이라고 한다. 구비지는 안쪽엔 모래와 자갈로 선상지를 만들고 바깥쪽으로는 산을 깎아 기암절벽을 만들어낸다. 문수전이 앉은 망경대도 기실은 감입곡류가 만들어낸 절경이다.

지금도 토박이들은 석천을 구수천이라고 한다. 일찍이 석천 계곡의 아름다운 여울목을 일러 '구수천 팔탄'이라고 했다.

그 옛날 비경의 팔탄을 끼고 외줄기 산중길이 상주 모동땅으로 나 있었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나온 지도에도 그 소롯길이 표시돼 있으나, 지금은 석천 물줄기만 옛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 옛 길은 자취도 없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접수에서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수비라 초기화면 · · 신도등록접수 · · 재무회계통계 · · 접수별통계 ·
종무행정 보상판매 실시
◆종무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 사찰대상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제한 없음
108사찰 한정 특가
250만원 (연회비 별도)
130만원
신도간 쌍방향 커뮤니티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제공
- 지대방 기능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지원
- 보안 인증 기술
- 내마음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무상제공
- One-stop관리자 환경 등
송광사, 용주사, 봉선사,
부석사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주)탑스컴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문의전화 031)965-6629, 031)965-8253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커뮤니티포탈(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탑스컴 www.topscom.net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0월 17일 금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대행 스님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으라!

주인공도 실상이 아닌 이름인데

질문: 스님께서는 본래 주인공도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본래 없는 주인공을 지극하게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믿어야 열쇠를 맡기죠? 믿지 않으면 열쇠를 맡길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참나'인 주인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거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주인공이라는 그것 자체도 이름이고 실(實)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다가 놓아 버린다면, 믿고 놓아 버린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어도 차는 운전수가 끌고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삼합(三合)이 되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공존하니까 색이 공이자 공이 색이다 하는 거고 그렇게 공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몰락 놔 버리면 그대로 공존돼서 바로 일체 유생 무생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의 의사가 되니 나는 손을 까딱 안 하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당하는 거지 누가 가난을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말에 어느 부자가 복을 지은 거라고는 동네에서 누가 어린애 낳는 데 고작 짚 한 단 준 거밖에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부자가 죽어서 가 보니까 부자 복(福) 창고에 짚 한 단밖에 없더란 셈으로, 그런 마음을 썼으니 짚 한 단만 있을 수밖에요. 자기가 준 대로, 한 대로밖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을 해 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안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에 놓는, 방하착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참자기의 감응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그럴 겁니다. 또는 안 그런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한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오온에 칠보(七寶)가 가득히 차 있듯이, 가난도 면할 것이고 병도 물러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자기의 뿌리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 뿌리엔 자식의 뿌리도 있고 부모의 뿌리도 있는데 뿌리는 다 똑같이 공이다 이겁니다. 만 강에 달이 비쳐도 그 달이 한 달에서 비쳤지 여러 달에서 비춘 게 아니듯이 말이죠. 만 강에 달이, 수많은 달이 비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달이 만 강에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달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달이 하나의 달일 뿐이냐? 아니다. 만 강에 비칠 수 있는 달이다. 그런다면 때로는 달빛이 만 강에, 즉 말하자면 만 달이 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달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달이 만 개가 될 수가 있고 이렇듯이 인간의 마음도 한마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을 때는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바로 '무(無)!'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니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공에다가 놓아 버리세요. 모든 것을 공에다 놔 버리라는 것은 왜냐? 예를 들어 만약에 장님이 있다고 한다면 장님은 지팡이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 공에다 놓지 않는다면 장님의 눈을 밝게 할 수는 없고 겨우 지팡이 하나 쥐어 주는 것밖엔 안 되죠. 그래서 공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다 놔 버린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뜻이 풀려 공도리(空道理)도 알 수 있으며, 바로 인에 의해서 연도 생기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연기법(緣起法)이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쓰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연이라고 할 때, 그 연에 따라서 인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에 다니면서 건성 다니지 마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고 진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름이라고 깔보려거든 아예 당신 이름을 불러요. 성을 부르든지. 김 씨면 김 씨, 박 씨면 박 씨. 다 당신이 이날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안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잘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안되는 거 되는 거 다 거기다 놓는다면, 맡겨 놓고 참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홀연히 자기의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것입니다.

타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지

질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 다 좋은 말씀이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정말 이 불교만 믿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림 · 최주현

답변: 말 잘했어요. 궁금하걸랑 내 대답해 주죠. 외국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를 볼 때 티베트 불교든지 알라신교든지 뭐 또 가톨릭교, 기독교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또 이렇게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교(佛敎)라는 단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일체, 하다못해 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전체 생명은 불이에요, 불!

그리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뜻과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그러는 거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교(敎)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단어는 방편 아닌 방편으로써 그것은 이름이자 진리예요, 그대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 그릇을 다르게 하고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주처에 근본이 있는 거지 바깥에 근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외국에도 가 보면 여기 기독교든지 뭐, 가톨릭교든지 많이 이렇게 토론하러 오셔요.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왜? 불교고 기독교고 가톨릭교고 다른 게 없이 선지식은 전부 "딴 타의의 사람을 믿으면 마구니 소굴에 드느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부터 알라. 주처는 바로 너한테 있느니라. 너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 바로 그 자체가 주인이니라. 그 주인부터 알아야 이 전 우주의 섭리, 하나로 돌아가는 이 이치가 바로 거기에 직결이 돼 있으니깐 알 수 있느니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를 막론해 놓고 '아이고! 잘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부처님!' 하고 찾거든.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간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 너부터 알라 이 소리예요. 어떤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 이름을 떠나서 너부터 알라 이 소립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네가 이 세상에 형성이 됐으니까 상대가 있고 종교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지, 네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런 거죠.

내 몸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천차만별로 의식들이 많고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것을 들이고 내는 물질세계,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들이고 내고 하는 그런 선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을 바깥에서 찾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죠. 부처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만날 바깥으로 찾고 하니깐 그런 것이지 내가 왜 그러겠어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해 놨는데도 그렇게 모두 기복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이치가 있었죠. 물론 불교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이조 때에 탄압을 받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해산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스님네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방편을 쓰고 이랬던 그 습이 아직까지도 그냥 내려오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고쳐야 될 거고 개선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할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이거고 저거고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르게 찾으니까 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아, 자기부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있고 그 이름이 모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할머니의 이름이 있듯이 그렇게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근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믿고 나를 찾아라." 이런 거지, 자기 몸뚱이를, 그 고깃덩어리를 찾고 믿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는. 각자 너를, 진짜로 네 주인을 믿어라 이런 거지. 그런 건데 편집을 잘못했든가 뭐가 잘못됐던 게 있었겠죠. 그러니 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2면으로 계속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 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내는 한생각이 보배!

☞21면에서 계속

나로부터 그 구원도 있는 것이지 누가 딴 데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질문: 제가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의식을 잃어 눈을 떠 보니 법당 탱화에서 보아 왔던 오간지옥이 보이면서 그곳의 사자가 아직 이곳에 올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다시 살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켜봐도 죽어서만이 오간지옥고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과정 또한 지옥고 아닌 지옥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힘이 듭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살면서 겪는 이러한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지금 다닙니다. 카세트 하나에 감긴 거를 지금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솔솔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펄펄 뛸 때는 보살의 행으로, 보살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 펄펄 끓는 기름 도가니를 녹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칼산지옥이나 화탕지옥이나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여러분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그냥 딱 가라앉습니다. 전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는 거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되놔 버리는 겁니다. 그럭하면 지옥도 무너지죠, 자기는 보살이 되죠. 그러나 지옥이 한두 가집니까? 아수라지옥도 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주정을 부리는데 그런 것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조금만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발산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길이는 팔십 리요, 넓이는 오십 리니라. 그렇게 큰 솥의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지옥고(地獄苦)를 받으니…." 이러셨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십 리라는 것은 유(有), 무(無)를 말합니다. 저승, 즉 말하자면 내가 나기 이전으로부터 좇아 나온 사무! 좇아 나온 사유! 이렇게 해서 사(四)·사(四), 팔(八). 팔십 리. 그래 십(十)이 들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묶어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같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가 자꾸자꾸 다가오는 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가 있다고 팔자 운명을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에 어떠한 자식들이 그렇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깊이깊이 다잡고 '이거는 전자에서부터 좇아 나온 지옥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없다.' 하곤 거기다가 놨을 때에 지옥고가 다 무너집니다.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여러 가지 일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국내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든지 소기업이든지 또는 경제면에서라든지, 또는 남북이 갈려져서 있는 거라든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자라나는 자식들한테 그 보배를 맡겨 줄 수 있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뿌리를 싱싱하게 잘해 줘서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지금 세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무역도 될 수 있고, 앉아서 호국불교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마음의 조절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모든 스위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리고,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는 거는 사량으로 해서는 아니 되니까 주인공에 맡겨서, 주인공이 적절하게 하게끔 맡겨 놓으시란 얘깁니다. 그래야 틀림없거든요, 그게. 어느 것이든, 경제, 국방, 통일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울' 하는 거는 전체 통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마는 '하늘' 하는 것은 지혜로도 돌아갑니다. '한울'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통신을 말하고, '하나님' 하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 자체로서 세계, 우주의 섭리와 항상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생각 그냥 그 자리에 맡겨서 이렇게 하시되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무조건 스위치만 눌러도 안 된단 말입니다. 스위치 올려놓고서도 뭐 갖다 놓고 하질 않으면 그거는 빈 가스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잘못돼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다 적절히, 당신은 할 거라고 믿고 놨을 때 나라도 적절히 돌아갑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과 더불어 섭리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다른 혹성들도 다 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요 부분만 생각하는데, 세계가 있다면 우주가 있어요. 대천세계(大千世界)가 있고 소천세계(小千世界)가 있고 중천세계(中千世界)가 있어요. 전체가 돌아갑니다.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생각 내는 게 그게 요지라 이겁니다. 보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 간에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이 시급한 거를 막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강을 막아서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새 발의 피입니다. 그거는 어디로 빼든지 전체,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이 돕는다면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닙니다.

> 안되는 거 되는 거 다 거기다 놓는다면
> 맡겨 놓고 참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 바로 거기에서
> 홀연히 자기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력이, 도도하고 당당한 위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놓고 빌고, 나한테 그냥 묻고 이러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히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에서 적응하게 만들면서, 지금 웃고 묵묵히 가면서도 주장자 하나를 탁 들면 우주를 받쳐 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여여하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놓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질문: 놓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일이 놓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답변: '모두 공(空)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라. 이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라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럽니다. 놓는 게 뭐냐! 왜 어떤 스님은 방하착(放下着)을 하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놓으라 그러느냐?

무전통신기도 눌러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켤 때는 켜고 끌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하니까,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런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똑바로 관(觀)해 봅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네 역시 머리만 깎고 목탁이나 치고 경(經)이나 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한번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선 점을 딱 찍고 넘어간다면 그건 그대로 통과예요, 그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한대서야 어찌 귀중한, 아주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이름의 법칙을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뛰어넘으려면 시공도 없는 것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어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이러한 도리를 증득한 분이 있으면 그 나라를 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데를 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를 아는 자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었죠. 공부하는 인간이 살다 살다가 어떻게 참,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큰 뱀이 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일편단심 공부를 했더랍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군인들이 주둔을 해 가지고 그 동네를 그냥 싹 모두 깨트려 버리고 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동강동강 났죠. 즉 그로 인해 그 동네가 망했다는 얘깁니다. 자손들이 전부 미치고 병들고, 다 흩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만큼 이거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自性),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침입을 한다면

질문: 저는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 안에 도둑이 침입을 했다면 어떻게 놓고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그냥 다가져가도록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때려잡는 것도 주인공인가요?

답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도승이 계신데, 마적 떼들이 "야! 도승이라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 껍데기로 봐서는 도승 같지 않아. 그래 네가 도승이라면 어디 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네 가슴에는 철판을 대서 안 들어가겠느냐?" 하고선 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꾸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딱 다가오니까 '저 죽을 줄 모르고 오는구나!' 하면서 '도인은 무슨 놈의 도인이냐!' 하면서 칼을 들고 "네 가슴에 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진짜로 도인이라면 내놔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네 가슴을 찔러서 네 가슴속에 뭐가 들었나 내가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추운 동절에 고목을 잘라 봤던들 거기서 꽃이 나오더냐?" 그러곤 물었습니다. 꽃이 나오더냐고. "고목만 잘라질 뿐 꽃은 나오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스스로서 네 마음에 봄이 온다면 꽃이 필 수도 있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봄이 와서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따르던 모든 사람이 전부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도둑이야!" 하고 "강도야!"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침착하게 거기 맡겨 놓으면 스스로서 몸뚱이의 모든 게 보살로 화하니까 오고 감이 없이 그쪽에 가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은 봄이 돼서 그 칼로 사람을 찌르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찰나에 그 사람 마음에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놓고 살아, 착하게. 악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돼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야 당신 돈 줄 거 아니야? 그러니 항상 착한 마음으로써 다 놓게 되면 스스로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 그랬습니다. 착하게 놓으니까 스스로서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주더랍니다, 정말.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는 무술도 고수가 되려면 그렇고, 태권도도 마음을 놓지 않고 모든 잡념을 버리지 않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유인이 되시라고요.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붕, 골반사랑101, 척추사랑 (신선대)



불자 세상보기

홍 사 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묘방

지난 봄 가수 나훈아씨가 괴소문을 참다못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일이 있었다. 인기여배우와의 염문설, 야쿠자로부터의 폭행설 등 갖가지 루머에 시달리던 나씨는 '보여주면 믿겠느냐'며 바지까지 벗으려고 한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회견에서 나훈아씨는 '대한민국은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를 내는 나라'라고 질타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헛소문을 양산하는 악플러들에게 주는 경고였다.

최근에는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가 괴소문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 사채장사라는 헛소문을 유포시켜 만인의 사랑을 받던 한 재능 있는 연기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비열한 살인자들은 무슨 억하심정인지 최씨가 죽은 다음에도 악플을 달았다. 망자에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악플을 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짓이다. 오죽했으면 그녀가 자살을 결심했겠는가.

두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는 유명인사들이 근거 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고소를 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다. 그럼에도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를 죽음의 언덕으로 내모는 것이다. 장난이든 의도적이든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섭섭하다' 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또한 옳은 일은 아니다. 어떤 고통도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둠은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 최씨의 인내심이 아쉽기만 하다.

남이 나를 모함할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좋은 모범을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한때는 괴소문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그것은 전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자 이를 시기한 외도들은 손타리라는 처녀로 하여금 정사를 즐입하게 한 뒤 임신했다는 소문을 냈다. 부처님은 억울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그녀는 배에 찼던 바가지가 깨지면서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부처님은 더욱 거룩한 분으로 추앙받았고 모함자들은 쥐구멍으로 숨어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두 개의 '살(殺)' 자를 품고 괴로워한다고 한다.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殺人)욕망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自殺)의 유혹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최악의 선택일 뿐이다. 최선은 첫째도 인욕, 둘째도 인욕이다.

물론 억울한 일을 참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잡아함 42권 <빈기가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경전이다.

어느 날 외출을 나간 부처님이 뜻밖의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다. 친족 가운데 한사람이 출가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외도가 부처님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부처님은 듣기 거북한 모욕적 언사를 한참동안 참고 듣다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여, 그대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내놓았다고 하자. 그런데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물론 내 차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오늘 그대는 나에게 욕설로 차려진 진수성찬을 대접하려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 모욕적 언사들은 모두 네가 가져가야 할 것 같구나."

이 이야기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 가르침이 들어있다. 하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과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모함이나 모욕을 받게 되면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극단적인 대처를 하면 자신만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社說

역경원의 고민 전불자의 것

최근 동국역경원이 아주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전국의 대강백들을 초청해 동국역경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경로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연 이 모임에서는 동국역경원이 처한 현실이 냉철하게 진단됐고 역경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발전적인 제안도 쏟아졌다. 이날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만 잘 정리되고 그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불교는 머지않아 세계의 불교학과 실참수행을 이끄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의견이 의견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대강백들이 경학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이라면 그대로 정답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정답을 검토하고 현실화할 기구가 부족하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역경사의 양성과 기존 번역본의 재가공 그리고 전산화 작업 등을 추진할 경제적 여건 마련은 동국역경원만의 힘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계종의 3대 사업이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지만, 역경에 대한 종단적 관심은 언제나 미약했다. 매년 종단 예산에서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역경사 배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 앞날을 염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동국역경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개진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종책에 반영돼야 한다. 오늘날 동국역경원의 고민은 불자대중 전체의 고민이다.

창간 14주년의 감사와 다짐

창간 14주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본지가 또 한 번의 생일(10월 15일)을 맞았다. 어려운 가계에도 불구하고 매주 본지를 기다려주고 정성껏 읽어 주신 독자제현께 전직원은 엎드려 감사를 드린다.

오늘날처럼 첨단통신 수단이 발달한 시대에 활자를 근간으로 하는 신문매체는 여러 측면에서 '고전' 중이다. 그러나 경전의 역사가 장엄하듯 전법의 사명을 나눠 갖고자 다짐한 신문의 역사도 빛나는 가치를 지닌다고 자부한다. 본지는 매주 발간하는 신문이 경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는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불교의 14년은 불민함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깨침의 메아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매체로 성숙해 나갈 것을 엎드려 약속드린다.

본지에 대한 독자제현의 사랑은 황송하게도 크고 넓다. 오탈자를 발견하면 불같이 질책하는 독자도 있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제보해주는 독자도 많다. 정법과 거리가 먼 광고를 게재한다고 질책하는 독자도 있고 "불교계의 험궂은 일을 보도해 다수의 신심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요청하는 독자도 있다. 이 같은 독려와 질책이 본지를 길러주는 영양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모진 질책을 감내하고자 한다. 지난 14년간 본지를 믿어주고 지원해 준 광고주 제위에 대한 감사는 고함쳐도 모자라다.

제작자의 입장보다는 독자의 입장에서 늘 깨어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마음 놓치면 재물이 오히려 독"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5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 있으면 행복할거야

"정말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간 망해요." 조씨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시골에서 태어난 조씨는 가난하게 살아왔다. 대학진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공부를 괜찮게 했지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다니게 된 직장은 월급이 별로 넉넉지 않았다. 그래도 조씨는 항상 성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했다. 주위의 어른들도 "자네는 항상 눈이 반짝여서 좋아. 마음이 진실하니 잘 될 거야"라고 했다. 열심히 살며 30대 초반에는 결혼도 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둘이 오순도순 저축하며 사는 재미가 있었다. 조씨의 고향친구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다. 가끔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곤 했다.

그런데 35세가 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골에 대대로 있던 조씨 조상집과 근처의 땅이 개발이 된 것이다. 무슨 도시 계획에 연결돼 하루아침에 엄청난 가격에 팔리게 됐다. "꿈이냐 생시냐, 우리 팔자에 이게 웬일이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외아들인 조씨에게는 이십억이 넘는 돈이 주어지게 됐다. "얼마나 좋았던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돈이 있으니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하고 결심했지요."

행복은 어디 갔나

그 때부터 조씨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 우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증권 투자다 뭐다 하고 다녔다. 어울리는 친구들도 달라졌다. 돈을 잘 쓰니 주위에 다른 여성들이 다가오게 됐다. 가정을 점점 소홀히 하고 놀러 다녔다. "얼마나 신이 나던지, 부자가 된다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서 방탕하게 살았지요." 결국 일년 만에 부인과는 이혼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십중반까지 십년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에 적신호가 왔다. 결국 병원에 갔고, 술을 끊지 않으면 치명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내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천천히 병원문을 나오는데 누가 불렀다. "이게 누구야!" 예전 고향친구였다. 그러고 보니 지난 십년동안 이 좋던 친구들을 멀리하며 살았었다. "반갑다. 어쩐 일이야!" 근처 커피집으로 갔다. 친구는 마주 앉더니 "야, 너 부자됐다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었구나"하며 머뭇거렸다. 조씨는 뜨끔했다. '우리 둘 다 45세인데 저 녀석은 왜 저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사십도 안 되어 보이네. 그런데 사실 요즘의 나는 오십도 넘어 보인다. 동갑인데 친구가 나보다 십년은 젊어 보이다니.' 중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였다. 그 친구를 보고 있자니 지난 날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그래, 나도 저랬는데, 마음이 진실하고 땀 흘려 일하려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에 비하면 지금 난 눈빛도 탁하고 살도 쪘고 아이고.' 한숨이 나왔다. '난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소용이 없구나. 도무지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이 저 친구에게 비할 수 없이 탁하구나. 이러니 늙어 보일 수밖에.' 조씨는 충격을 받았다.

내 마음이 주인

그날 밤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자 전에는 느끼지 않던 외로움이 몰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낮에 만난 친구가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도 떠올랐다. '십년간 돈으로 몸은 호강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몸까지 망가져 이젠 술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다. 조씨는 가슴을 쳤다. 십년 간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졌다.

그 날 이후 삼년이 흘렀다. 건강 때문에 명상을 시작하다가 절에 인연이 되어 다니고 있다. "돈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을 놓쳤더니 돈이 오히려 독이 되던걸요." 조씨는 정색을 하고 말한다. "정말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 벼락돈 생기기 전의 제 마음이 훨씬 행복했어요. 이거 변명이 아니에요. 혹 마음보다 돈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증거라도 되고 싶어요." 조씨는 이제 마음공부를 하며 서서히 본래의 마음을 회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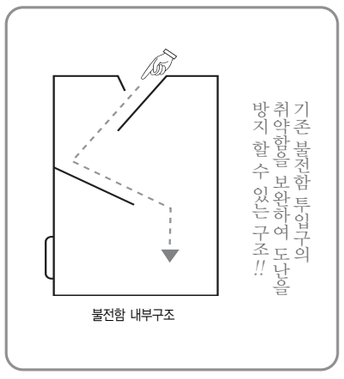
그는 미소 지으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은 스스로 내는 거지 절대 살 수가 없다고요." 돈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누가 주인인가. 내 마음인가 돈인가.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어긋나는 것이다. 마음 속 부처님을 주인으로 하여 돈뿐 아니라 일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진해야겠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범양금고 불전함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70만원
◆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40만원
◆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95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 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BY630 사무가정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 보광사, 법성사, 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길)
기업 485-005940-01-017 (강순길)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 **중앙율원장 :** 성민 ◎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남, 혜경, 월산

◎ **부 종 정 :** 혜일 ◎ **총 무 원 장 :** 혜인 ◎ **종 회 의 장 :** 백공 정봉 ◎ **중앙선원장 :** 도일

총무부장 : 동산 총무국장 : 도업 종무실장 : 정금욱(불이성)
재무부장 : 법정 재무국장 : 대도 총무과장 : 조 일
교무부장 : 정텩 교무국장 : 해인 조사과장 : 문희만
사회부장 : 자명 사회국장 : 도흥
문화부장 : 지우 문화국장 : 효천 문화재관리국장 : 운하
비구니부장 : 증비 비구니국장 : 법련, 덕산 문화교류국장 : 지운

교육원장 : 일봉 포교원장 : 정오 감찰원장 : 상산 호계원장 : 대풍
교육부장 : 봉선 포교부장 : 정산 감찰부장 : 지오 흐법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성텩 포교국장 : 도안 감찰국장 : 지호 규정부장 : 월성
감찰제2국장 : 운산 흐법국장 : 다정
규정국장 : 영산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 상산 경북교구종무원장 : 혜관
서울서부교구종무원장 : 법선 부산동부교구종무원장 : 봉선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 정담 전북교구종무원장 : 정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법정 광주.전남종무원장 : 지각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 수원 제주교구종무원장 : 덕산
인천교구종무원장 :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 도오
강원교구종무원장 : 광덕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충남교구종무원장 : 무광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충북교구종무원장 : 백공 미국뉴욕주종무원장 : 성산
경남교구종무원장 : 지운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 총림

- 삼화총림 : 백화사
- 부산총림 : 흥국사
- 경남총림 : 백천사
- 강원총림 : 조주선관
- 충북총림 : 청룡사

◈ 종단법인

- 학교법인 : 삼화학원
- 사단법인 : 본국검도협회
  천지무에도협회
  행복한사회
- 의료법인 : 효성
- 재단법인 : 가평그린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인주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지호
발행인 : 조일 편집인 : 동산
이 사 : 정오, 혜원, 정산,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관불, 해인

◈ 총무원사업부

사무총장 : 노사나

◈ 전국신도회

고 문 : 김윤주
상임회장 : 인권식
대표회장 : 허정석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박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등균
조 교 : 정금옥
은영이사 : 무불, 성산, 원명,본각, 혜관,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운하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조 교 : 조일
은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진제, 연각, 성묵, 청산, 동안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혜인 부 총 장 : 신병용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김병호
학생주임 : 이화목 조 교 : 손정, 주소리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1-2026 / 총무부 (02)511-2027 / 총무원장실 (02)511-1080
전국신도회 (02)3445-7375 /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6 / 전송 (02)511-2028

인터넷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삼화불교학림 : www.njtu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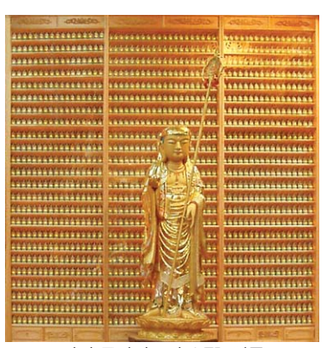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천안 동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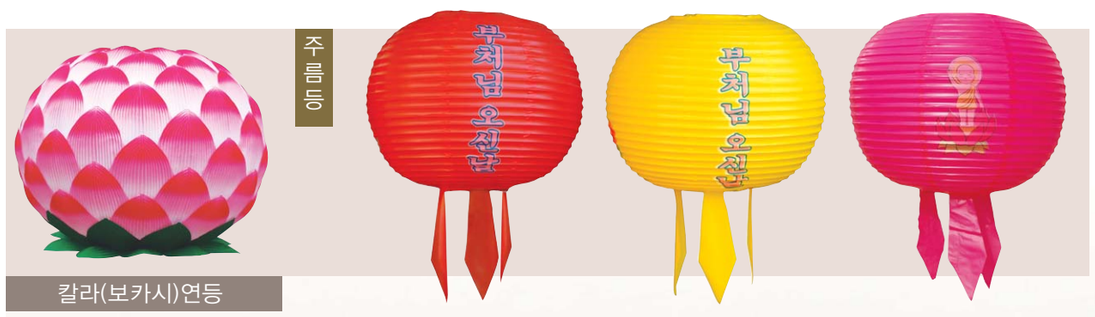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팔각·봉축접등



오색공단등

주름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영가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제 701 호 B1

서래 스님이 서쪽에서 온 까닭은?

방글라데시 줌머인 西來 스님



“한국 불교 배우러 왔습니다”

“두둥~ 둥”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 경내에 법고 소리가 울린다.

제8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시작한 10월 4일, 축제를 찾은 대중들로 전등사는 분주했다. 무명을 걷고 자성을 밝히는 울림을 좇아 종루로 모여든 사람들은 법고를 울리는 외국인 스님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진나라 아도 화상은 신라에 불법을 전하기에 앞서 382년 전등사를 창건했다. 전등사는 서양세력과 처음 전투를 벌인 ‘병인양요’ 등 외세를 극복한 호국도량이기도 하다. 외국인 승려가 전법을 위해 창건한 현존 최고(最古)의 고찰 전등사에서 천년의 세월을 넘어 만난 외국인 스님은 전법에서 구법의 대상으로 달라진 한국불교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일까?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한국에서 다시 출가해 전등사에서 수행 · 정진 중인 서래 스님을 만났다. <2면에 기사 계속>

“고국 돌아가 고통받는 동포에 佛法 전할 터”

→ 강화도 전등사에서 만난 서래 스님

소수 민족 출신, 15세에 출가 스리랑카서 유학
한국서 재출가 송광사 강원 졸업, 범패에 ‘매력’

은사 장윤 스님이 “서쪽에서 왔으니 서래라 하자”해서 지어진 ‘서래(西來)’라는 법명이지만 불교를 좀 안다는 사람이면 농삼아 피우기 쉬운 망상이다. 만나자마자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한국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달마 조사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서쪽에서 온 까닭을 가부좌 틀고 고민하는 수행납자들에게 그러했을까? 스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찰나의 멈칫함도 없었다.

“한국에 불교 배우러 왔습니다.”

서래 스님은 스리랑카 유학 중이던 1999년 한국을 찾았다.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역 소수민족 줌머(jumma)족 출신인 스님은 1982년 출생해 15세에 방글라데시에서 출가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승가교육기관이 없었기에 스님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에 유학했다.

스리랑카 강원(virivena)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故 원명 스님을 만나면서 한국을 알았다. 성철 스님 상좌로 해외 포교에 주력했던 원명 스님은 강화 연등국제선원을 개원했고, 지금도 선원에는 1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수행 중이다.

원명 스님을 만난 서래 스님은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명 스님의 원력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달리 뚜렷하게 무엇 때문이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면 한국과의 인연이 지중해서 아닐까요?”

1999년 스리랑카에서 서래 스님을 비롯해 혜일 스님, 혜광 스님 등 3명의 줌머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서래 스님을 제외한 혜일 · 혜광 스님은 원명 스님 상좌다. 혜일 스님은 한국에 귀화해 연등국제선원에서 수행중이며, 혜광 스님은 동국대를 휴학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서 다시 출가한 서래 스님은 연등국제선원에서 행자생활을 하던 중, 원명 스님과 도반인 장윤 스님(전등사 회주) 상좌가 됐다. 2000년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해 정식 스님이 됐다. 스님은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서래 스님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다. 연등국제선원에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가나다…’부터 배운 스님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지금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증명한다.

“스리랑카에서 공부했다면 빨리어 경전을 보며 쉽게 공부했을 텐데, 한국에 와서 괜한 고생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한국말도 서툰데다 한문으로 쓰인 경전을 봐야하는 강원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참고 견뎠다. “도반스님들의 배려를 불보살 가피로 여기고 참고 견뎠다”는 스님은 “10여년 한국 생활 가운데 강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서래 스님이 법고를 배운 곳도 강원이었다. 스님은 “선배스님들이 한번 쳐보라고 해서 배웠다. 법고 앞에만 서면 신이 났다”고 말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찾은 대중들 사이에 “서래 스님의 법고만큼은 반드시 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스님의 법고 실력은 수준급이다.

2005년부터 장윤 스님을 시봉해 온 스님은 요즘 범패 배우기에 열심이다. 그냥 염불하면 기분이 좋아 혼자 흥얼거리던 서래 스님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장윤 스님은 “목소리가 좋다. 염불을 배워보라”고 권유했다. 2년여전부터 서래 스님은 옥천범음대에서 범패강좌를 수강중이다.

“범패 배우기와 병행해 염불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기도 하지만 염불하면 쉽게 망상이 걷히고 시름이 사라져요.” 어려서 고향을 떠난 서래 스님의 시름은 고향 치타공 걱정이다.

‘차크마’로도 불리는 줌머인들은 ‘벌목과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소수민족이다. 마을마다 불교 사원이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줌머인들은 1960년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10만여명이 인도로 강제 이주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파키스탄 정부에 맞서 벵갈리인과 독립운동도 벌였다. 독립 후 자치권을 요구하는 줌머인에게 방글라데시 정부는 “줌머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며 탄압을 시작했다.

“2년 전 고향을 찾았을 때 정부의 불교도 탄압이 심해져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슬람 정부의 보호 속에 방글라데시의 98%를 차지하는 벵갈리인들은 살인 · 약탈 · 방화를 저지르며 지금도 줌머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줌머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서래 스님의 눈시울이 젖었다. 스님은 “특히 한국 불교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단지 불교가 좋고, 한국이 좋아 10여년을 지낸 제게, 고향에 한국교회가 들어섰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 50여 줌머인 노동자들도 인근 교회의 지원과 관심에 흔들리고 있고요.”

스님의 원력은 방글라데시에 한국 사찰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서래 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방글라데시에 돌아가 핍박받는 동포들을 도와 포교하려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하지 않겠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시가 아깝다는 생각에 스님은 하루하루 촌각을 다퉈 정진중이다. 스님은 범패 배우기를 마치면 동국대 등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후 선방도 찾을 계획이다.

스님은 <숫타니파타>를 가장 아낀다. 그 이유를 스님은 “불교는 가장 인간적인 종교다. 특히 1149편 시구로 이어진 <숫타니파타>는 운율 하나하나가 중생을 보듬고 일깨운다”고 설명했다.

<금강경> <육조단경> <서장>,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등 서래 스님 처소 책장에 빼곡히 꽂힌 불서 가운데 스님이 선택한 <숫타니파타>는 불교 최초의 경전이다. 먼 이국땅에서 출가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과는 별도로, 스님에게 <숫타니파타>는 망향가(望鄕歌)와 같았다.

1700여년전 전등사를 창건한 외국인 승려 아도, 그리고 지금 전등사에서 수행하는 외국인 승려 서래. 현존 최고(最古)의 고찰 전등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두 외국인 승려를 전법과 구법으로 잇는다.

아도 스님 이후 천년을 기다려 만난 서래 스님의 모습에서 이번 삼랑성 문화축제 슬로건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 자원봉사의 집 -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 전국소년소녀가장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卍 양화사 건강원 卍 고려수지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분회

인간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 구현을 실현하여 건강 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 (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자원봉사의 집” 입니다.

※ 전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한하여 관할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서”을 발급 받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경통, 관절, 혈압, 성인성질환〉〈아토피, 피부, 부인성질환〉〈불치난치성질환〉〈각종 희귀성질환〉등에 대하여 “수지대체요법”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수지대체요업, 민간요법, 자연요법, 체질개선〉〈기능식품,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양화사 건강원. 고려수지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서금요법 수지침 무료교육 안내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가정의 건강관리” “수지침 자원봉사” 고령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입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을 아시면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건강걱정 줄여 줍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 “자격증” 취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 합시다.
※ 전국지방 각종단체 “무료출장교육” 신청 상담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 201호 ☎ 문의 031)251-2213, 254-2213 / 전화 · 팩스 258-2213, 010-3013-2213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80520 / 제 일 604-20-378236 / 국 민 877001-01-362102 / 우체국 104323-01-001733 (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알립니다.

자 격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교육기간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수 강 일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준 비 물 필기도구, 녹음기
수 강 료 월 10만원
교육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헌스님
문의전화 055) 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 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고국 돌아가 고통받는 동포에 佛法 전할 터”

→ 강화도 전등사에서 만난 서래 스님

소수 민족 출신, 15세에 출가 스리랑카서 유학
한국서 재출가 송광사 강원 졸업, 범패에 ‘매력’

은사 장윤 스님이 “서쪽에서 왔으니 서래라 하자”해서 지어진 ‘서래(西來)’라는 법명이지만 불교를 좀 안다는 사람이면 농삼아 피우기 쉬운 망상이다. 만나자마자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한국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달마 조사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서쪽에서 온 까닭을 가부좌 틀고 고민하는 수행납자들에게 그러했을까? 스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찰나의 멈칫함도 없었다.

“한국에 불교 배우러 왔습니다.”

서래 스님은 스리랑카 유학 중이던 1999년 한국을 찾았다.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역 소수민족 줌머(jumma)족 출신인 스님은 1982년 출생해 15세에 방글라데시에서 출가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승가교육기관이 없었기에 스님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에 유학했다.

스리랑카 강원(virivena)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故 원명 스님을 만나면서 한국을 알았다. 성철 스님 상좌로 해외 포교에 주력했던 원명 스님은 강화 연등국제선원을 개원했고, 지금도 선원에는 1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수행 중이다.

원명 스님을 만난 서래 스님은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명 스님의 원력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달리 뚜렷하게 무엇 때문이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면 한국과의 인연이 지중해서 아닐까요?”

1999년 스리랑카에서 서래 스님을 비롯해 혜일 스님, 혜광 스님 등 3명의 줌머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서래 스님을 제외한 혜일 · 혜광 스님은 원명 스님 상좌다. 혜일 스님은 한국에 귀화해 연등국제선원에서 수행중이며, 혜광 스님은 동국대를 휴학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서 다시 출가한 서래 스님은 연등국제선원에서 행자생활을 하던 중, 원명 스님과 도반인 장윤 스님(전등사 회주) 상좌가 됐다. 2000년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해 정식 스님이 됐다. 스님은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서래 스님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다. 연등국제선원에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가나다…’부터 배운 스님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지금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증명한다.

“스리랑카에서 공부했다면 빨리어 경전을 보며 쉽게 공부했을 텐데, 한국에 와서 괜한 고생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한국말도 서툰데다 한문으로 쓰인 경전을 봐야하는 강원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참고 견뎠다. “도반스님들의 배려를 불보살 가피로 여기고 참고 견뎠다”는 스님은 “10여년 한국 생활 가운데 강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서래 스님이 법고를 배운 곳도 강원이었다. 스님은 “선배스님들이 한번 쳐보라고 해서 배웠다. 법고 앞에만 서면 신이 났다”고 말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찾은 대중들 사이에 “서래 스님의 법고만큼은 반드시 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스님의 법고 실력은 수준급이다.

2005년부터 장윤 스님을 시봉해 온 스님은 요즘 범패 배우기에 열심이다. 그냥 염불하면 기분이 좋아 혼자 흥얼거리던 서래 스님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장윤 스님은 “목소리가 좋다. 염불을 배워보라”고 권유했다. 2년여전부터 서래 스님은 옥천범음대에서 범패강좌를 수강중이다.

“범패 배우기와 병행해 염불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기도 하지만 염불하면 쉽게 망상이 걷히고 시름이 사라져요.” 어려서 고향을 떠난 서래 스님의 시름은 고향 치타공 걱정이다.

‘차크마’로도 불리는 줌머인들은 ‘벌목과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소수민족이다. 마을마다 불교 사원이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줌머인들은 1960년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10만여명이 인도로 강제 이주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파키스탄 정부에 맞서 벵갈리인과 독립운동도 벌였다. 독립 후 자치권을 요구하는 줌머인에게 방글라데시 정부는 “줌머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며 탄압을 시작했다.

“2년 전 고향을 찾았을 때 정부의 불교도 탄압이 심해져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슬람 정부의 보호 속에 방글라데시의 98%를 차지하는 벵갈리인들은 살인 · 약탈 · 방화를 저지르며 지금도 줌머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줌머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서래 스님의 눈시울이 젖었다. 스님은 “특히 한국 불교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단지 불교가 좋고, 한국이 좋아 10여년을 지낸 제게, 고향에 한국교회가 들어섰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 50여 줌머인 노동자들도 인근 교회의 지원과 관심에 흔들리고 있고요.”

스님의 원력은 방글라데시에 한국 사찰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서래 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방글라데시에 돌아가 핍박받는 동포들을 도와 포교하려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하지 않겠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시가 아깝다는 생각에 스님은 하루하루 촌각을 다퉈 정진중이다. 스님은 범패 배우기를 마치면 동국대 등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후 선방도 찾을 계획이다.

스님은 <숫타니파타>를 가장 아낀다. 그 이유를 스님은 “불교는 가장 인간적인 종교다. 특히 1149편 시구로 이어진 <숫타니파타>는 운율 하나하나가 중생을 보듬고 일깨운다”고 설명했다.

<금강경> <육조단경> <서장>,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등 서래 스님 처소 책장에 빼곡히 꽂힌 불서 가운데 스님이 선택한 <숫타니파타>는 불교 최초의 경전이다. 먼 이국땅에서 출가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과는 별도로, 스님에게 <숫타니파타>는 망향가(望鄕歌)와 같았다.

1700여년전 전등사를 창건한 외국인 승려 아도, 그리고 지금 전등사에서 수행하는 외국인 승려 서래. 현존 최고(最古)의 고찰 전등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두 외국인 승려를 전법과 구법으로 잇는다.

아도 스님 이후 천년을 기다려 만난 서래 스님의 모습에서 이번 삼랑성 문화축제 슬로건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 자원봉사의 집 -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 전국소년소녀가장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卍 양화사 건강원 卍 고려수지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분회

인간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 구현을 실현하여 건강 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 (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자원봉사의 집” 입니다.

※ 전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한하여 관할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서”을 발급 받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경통, 관절, 혈압, 성인성질환〉〈아토피, 피부, 부인성질환〉〈불치난치성질환〉〈각종 희귀성질환〉등에 대하여 “수지대체요법”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수지대체요업, 민간요법, 자연요법, 체질개선〉〈기능식품,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양화사 건강원. 고려수지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서금요법 수지침 무료교육 안내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가정의 건강관리” “수지침 자원봉사” 고령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입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을 아시면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건강걱정 줄여 줍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 “자격증” 취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 합시다.
※ 전국지방 각종단체 “무료출장교육” 신청 상담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 201호 ☎ 문의 031)251-2213, 254-2213 / 전화 · 팩스 258-2213, 010-3013-2213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80520 / 제 일 604-20-378236 / 국 민 877001-01-362102 / 우체국 104323-01-001733 (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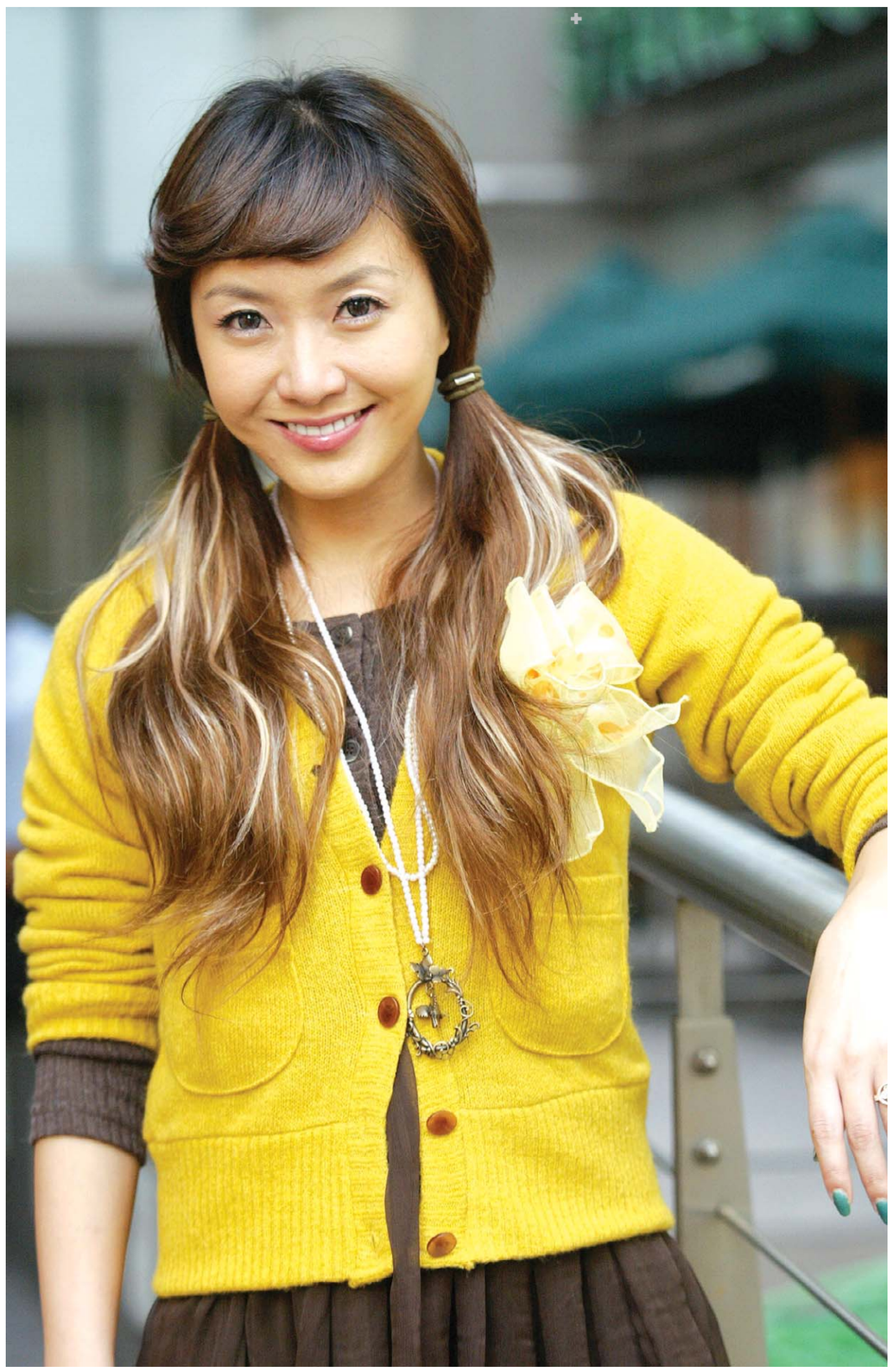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알립니다.

자 격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교육기간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수 강 일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준 비 물 필기도구, 녹음기
수 강 료 월 10만원
교육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헌스님
문의전화 055) 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 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머리 속 메모리칩 자주 포맷…항상 새롭게”



→ 지혜의 삶을 디자인하는 배우 겸 사업가 이 의 정

‘직업에 얽매이지 않는다’ 생활신조…취미는 PC게임
어머니 불심에 늘 배우는 자세, 투병중에도 해외봉사활동

“조급해하고 기대치를 설정하면 삶은 힘들어져요. 항상 내 삶을 사랑하고 만족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장 풍요로운 부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기억의 시간을 선물하는 이가 있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는 바로 배우 이의정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스타라는 화려한 은막 뒤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짙은 고독이 연상된다. 군중속의 고독이란 대중의 관심을 이슬로 먹고사는 이들이 지녀야 할 숙명과 같은 것으로 단언돼왔다. 그러한 편견을 허물고 지극히 진솔하고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선 그의 근황이 궁금했다.

그의 관심사는 연예활동과 무관하게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관리에 집중돼있었다. 1982년 아역배우로 데뷔, 20년 이상 연기 활동을 해온 그는 “배우라는 직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삶의 신조다.

“소녀 가장 역할을 비롯해 다양한 배역을 연기했지만 시트콤 ‘남자셋여자셋’ 번개머리 이미지가 강하게 인지됐어요. 그러고 보니 유일하게 악역만 안 해봤네요. 웃음을 전하는 캐릭터라면 가리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펼치고 싶어요.”

그의 유일한 취미는 PC용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다. 가상의 종족 ‘프로토스’와 ‘저그’ 아바타(Avatar)들과 공격 전략을 펼치다보면 손에 쥐가 날 정도다. 새로운 아이템 구상을 즐겨하는 그의 인간관계가 여실히 들어나는 일례다. 인연맺은 이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는 비결은 물론 항시 재기 발랄한 그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취향은 온라인 쇼핑몰 ‘아미까(www.amicca.co.kr)’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미까를 입으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전수하고 있죠.”

아미까(amica)는 창조적인 컨셉에 중독된 친구들이라는 이탈리아어다. “의류쇼핑몰이기 전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말하는 그는 온라인 일기장과 코디자랑 게시판을 통해 대중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다.

인간 이의정이 당당한 자유를 즐기는 비결은 어머니로부터 기인한다.

“어머니는 냉정한 분이세요. 절대 자상하지 않죠. 저를 현재의 자립심으로 살아가도록 키워준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고, 네가 친 사고수습 역시도 네 몫이다’라고 가르치셨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식은 부모 인생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깊은 뜻을 알았죠. 하나의 인격체 · 완전한 생명체로 저를 인정한 거죠.”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그의 모친 다행미(多行美) 보살은 부처님이 탄생하며 인간의 존엄을 사자후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의 참 의미를 딸에게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이다.

“어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셨어요. 어머니에게 불교란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와 같았고 그 안에서 많은 위안과 안정을 누리셨죠. 항상 두 아들과 두 딸의 건강을 부처님 전에 지극히 발원하셨어요. 엄마만의 기도였지만 그 마음자리가 자연스럽게 저에게 물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막내인 저를 불심으로 낳았다고 자랑하세요. 제 생일이 성도재일이거든요. 지난봄에는 어머니를 통해 산사음악회 MC 제안을 받고 공연 날짜를 묻자, ‘부처님이 알려주실꺼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 불심이 이정도예요.”

그는 불과 2년 전에 뇌종양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투병당시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향했던 미얀마 봉사활동 기억을 떠올렸다.

“종교인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준 분이 미얀마문화원 원장 목탁 스님이세요. 오지에서 허드렛일을 마다않고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 저분이 진정한 종교인이구나.’ 인정했죠. 그 후 스님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 바자회도 열었어요.”

연예인으로서 다양한 삶을 누려온 그가 인생의 고비 한 가운데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 한 집안의 막내로 제일 강한 리더십을 지녔다고 자부해온 그가 비로소 어머니의 불심에 공감한 순간이다. 이후 목탁스님을 또 한 분의 아버지로 여기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좌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인식된 메모리칩을 자주 포맷해 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일체 마음에 달렸다. 바로 내가 마음의 주인이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결국 마음가짐의 노력이죠. 스스로 내 몸과 정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불교에서 배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연법을 믿거든요. 제가 현재 사업가잖아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급증하는 연예계 비보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급증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헐뜯고 질투하는 마음이 늘어날수록 그것이 종말과 다름 아니죠. 자비와 정이 메마른 지구는 싫어요. 이기주의를 단1분만이라도 버리고 그 순간 누군가를 향해 배려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지구가 된다고 봐요.”

마음을 활짝 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하는 그는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다며 체중감량의 비법을 공개했다.

“올 가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방법은 바로 사찰 음식이에요. 다이어트에는 최고랍니다. 어머니가 절에 가자고 할 때는 항상 ‘의정아! 절밥 먹으러가자’고 하세요.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나물에 불자들이 올린 공양미로 지은 밥을 먹다보면 최고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대신 반드시 소식해야 합니다.”

특유의 입담과 해맑은 웃음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14주년 인터뷰를 흔쾌히 받아들인 만능엔터테이너 이의정, 그의 이름처럼 부처님의 광명을 널리 펼치는 건강한 행복전법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글=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료기,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 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제품구성 : 희담석볼 찜질기 외피 + 온도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자개열선 사용)
내 용 물 :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 ① 100cm x 50cm (사진) 가격 250,000원
② 170cm x 60cm 가격 550,000원

사은품
숙면을 도와주는
희담석 베개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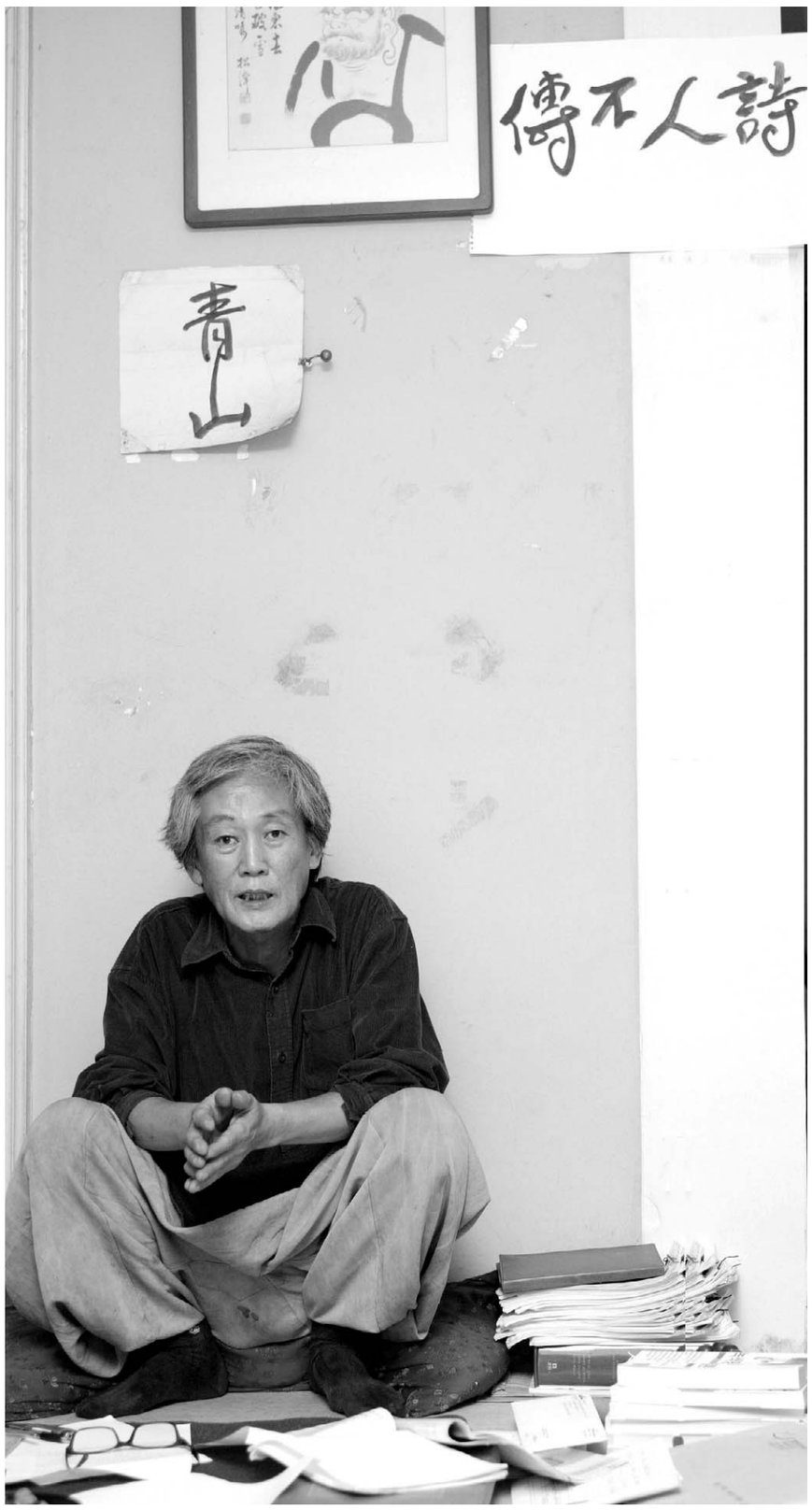
정신집중이 잘되는 희담석 방석
찜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찜질팩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염주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문명 발달할수록 인간은 오그라들고 있으니…”



→ 절 아닌 절에서 전하지 못할 글 쓰는 소설가 김 성 동

이렇게 깊은 곳에 이렇게 좋은 터가 있다니!

누렇게 익은 벼가 논두렁을 걸어 나올 것 같은 가을 다랑논들을 따라 한참을 들어간 계곡 끝. 신기하게도 그 끝에서 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에서 홍천 지경으로 넘어가는 우벚고갯길을 확장 포장하는 공사다. 우거진 숲과 웅혼한 산세로 봐서 참으로 아름다운 고갯길이었을 성 싶은데, 파헤쳐진 황톳길이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인간에게 속살을 침탈당한 고갯마루에 소설가 김성동 선생이 살고 있다.

비사란야(非寺蘭若).

작가(作家)의 집 이름은 ‘절 아닌 절’이란 뜻이다. “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 바지는 승복처럼 생겼고 윗옷은 와이셔츠다. 작가의 별호는 전중거사(前中居士), 뜻을 물으니 “전직 중이었으니까” 짧게 답한다.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중심이 되라는 뜻이라 풀던지…” 작가는 더 이상 이름 따위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전기는 들어오지만, 전화와 컴퓨터가 없었다.

“전화 넣으려면 전신주 박는 데만 몇 백 만 원이 들어. 휴대폰 있으니 이걸 생명줄로 알고 살면 돼. 가끔 원고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전화도 없는데 무슨 팩스야. 컴퓨터? 난 싫어.”

작가는 언론사나 출판사에 급한 원고를 보내기 위해 20리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우편으로 원고를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교정지를 받는다.

“글을 손으로 쓰는 것과 컴퓨터로 찍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야, 너도 생각해봐. 컴퓨터로는 유장하게 출렁출렁 거리는 문장을 구사할 수가 없어. 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어휘를 구사하느냐에 달렸는데 컴퓨터로 찍어내는 언어는 전달부호에 불과해. 손끝에 혼을 실어서 써나갈 때 미려하고 장엄한 글이 이뤄지거든. 컴퓨터 때문에 우리말의 섬세한 맛이 시들어 가고 있어. 조선의 문체는 출렁거리는 유장한 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글을 쓰고 읽는 맛이거든.”

소설 <만다라>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작가는 아직도 승적을 박탈당하던 때의 아픔을 지워내지 못했다.

“어느 종교 신문에 ‘목탁조’란 소설이 당선됐지. 도봉산 천축사에 있을 때였어. 중노릇한지 9년쯤 됐을 때야. 축, 당선. 그 전보를 받고 참 좋았었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 그땐 감찰부야. 지금은 호법부라고 하지만. 소환장을 받고 갔는데, 왜 방황하는 승려를 내세워서 승단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느냐는 거야. 살벌한 분위기야. 야, 너도 생각해 봐.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4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내라는 거야. 참 환장할 일 아니겠어? 내가 뭘 어쨌는데? 소설 쓴 것뿐인데. 안티 없는 발전이 있겠어? 아무튼 항변도 안 먹히고 해서 광고 내겠다고 거짓말하고 토꼈어. 내가 그럴 돈이 없잖아. 사과 광고 낼 일도 아니고. 그렇게 도망쳐서 호남 일대를 돌아 다녔어. 그러다가 부산엘 갔는데 어느 절에서 한 장의 공문을 보게 됐어. 어느 절에서든 나를 먹여주지도 말고 재워주지도 말라, 어기면 그 절도 동류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내용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작가는 그 때의 살벌하고 기막힌 공문 내용을 줄줄 외어 보이며 웃었다. 씁쓸하게.

좋은글엔 읽으며 자신 돌아보게하는 힘이 있어
깊은 산 오두막서 은거하며 집필…‘고통 즐기기’

“그 후 서울에서 ‘목탁 노동자(부전살이)’를 하다가 기성복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 살 돈을 마련해 옷을 갈아입었어.”

그리고 작가는 바둑 잡지에 취직을 했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입산의 원력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그 젊은 나날 속에서 작가는 세상의 모순과 역사의 왜곡을 뼈저리게 아파했다. 그 고통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깊은 산골에 혼자 살면서 외출도 극도로 억제하는 작가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수행이다.

“세상이란 게 말이야. 절대로 만만치 않아. 야, 너도 생각해 봐. 어디 맘 놓고 자유롭게,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인지. 저기 아래 참 좋은 고갯길이었거든. 오다가 봤지? 이 깊은 곳까지 저렇게 파헤치고 포장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게 말이야. 한동안 문밖에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 보니 땅이 우는 소리야. 깜짝 놀랐지. 그래 그 울음소리를 따라 내려 가봤더니 커다란 불도저가 땅을 파헤치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뽑아내고 있더라고. 야, 너도 생각해 봐. 산천이 무너지니까 인심도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파헤쳐 지는 우벚고개에서 작가는 ‘분이 누나’를 만났다. 영마루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누나’는 귀(鬼)였다. ‘분이 누나’는 의병이던 정인(情人) 판돌과 우벚고개에서 헤어졌다. 그 사무치게 보고 싶은 판돌이를 기다리느라 영마루를 떠나지 못한 ‘분이 누나’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술도 나눠 마신 작가는 그 아리고 시린 이야기를 <창작과 비평> 2007년 겨울호에 ‘무섭고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의 단편으로 발표했다. 이 소설은 올 여름 <문학의 문학>에 발표한 ‘리로 리런나’와 함께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우수작에 선정됐다. ‘리로 리런나’는 한국전쟁 때 이념의 회오리 속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는 소년의 이야기다. ‘무섭고 슬픈 이야기’가 현재의 삶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라면 ‘리로 리런나’는 깊은 회한 속에서 건져 올린 그리움이다. 작가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고 한국전쟁과 이념분쟁의의 와중에 목숨을 잃었다. 언제 어디서 이승의 옷을 벗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생신날 제사를 모신다.

“진짜 좋은 글이 뭐겠어?”

작가는 갑자기 본연의 업(業)으로 이야기를 돌렸다. 망연해진 기자를 다그치는 작가의 눈에 핏기가 어려 있었다.

“진짜 좋은 글은 말이지,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글이 진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야, 너도 생각해 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날카로움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존재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즐겁고 재미있고 읽고 나면 그것뿐인 그런 글이 좋을 글일 수 있겠어?”

작가는 요즘 한 잡지(위클리 경향)에 ‘김성동의 현대사 아리랑’을 연재하고 있다. 작가가 불치병처럼 화두처럼 품고 있는 역사에 대한 견해를 바루는 작업이다. 근현대사에 명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찢어지고 곡해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염원이 불꽃같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가끔 아니 자주 글을 써 놓고 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고 되물어. 글을 쓰는 동안은 이런 불안과 회의를 벗어나지 못할지 몰라.”

작가가 작가인 동안 앓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고통. 어쩔 수 없다면 그것마저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은 붓글씨 쓰기에 힘을 들인다는 작가의 머리위에 ‘시인부전(詩人不傳)’이란 글씨가 선명하다.

“문학으로는 전할 것이 없어. 문학으로 뭘 어떻게 전하겠어? 야, 너도 생각해 봐. 삶 전체가 그대로 터져 나와야지. 온 몸으로 부딪히고 깨치고 이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할 길이 없잖아. 봐. 쌀가마니(석가모니)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 해주셨잖아. 우리가 그 밥을 못해 먹는 것뿐이지. 야, 너도 생각해 봐.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그만큼 오그라들고 있잖아. 이렇게 오그라들어서야 뭐가 될지 알 수 없어.”

장산곶의 매처럼,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처럼, 곤륜산을 넘는 붕새처럼 활개를 펴고 우주를 비상하는 꿈. 그런 꿈마저 오그라들어버린 이 세상의 풍경을 작가는 높은 산 오두막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자기계발

10여년 전부터 서점가에는 처세와 성공을 주제로 한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를 휩쓸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장기적인 불황으로 직장내부의 경쟁이 심화되고 실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자기계발서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 계발서 코너는 불황이란 게 없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자기계발이란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 또는 자아성취나 깨달음 등 궁극적으로는 균형잡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주로 돈과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동양의 전통사상이나 고대 서양철학을 배경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창의성, 결단, 인내, 절제, 갈등극복, 흐름, 비전, 결단, 배려, 비움, 용서 등의 전통적인 미덕들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자기계발서의 사상적 근거가 붓다, 예수,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등 성현의 가르침이란 것이다.

이처럼 자기계발서의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 전통 종교와 연관이 있음에도 국내에서 출간되는 책의 상당수는 외국 서적을 번역한 것이다. 게다가 원저자의 경우 목사나 경영인, 심리학자, 컨설턴트 등 서구인이 대부분이다. 서구인들이 동양종교를 서구식으로 완전히 소화해 동양으로 역수출하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문제는 넘쳐나는 자기계발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비움(방하착), 쉼(휴테크) 등 전형적인 선(禪)의 논리들 마저 이웃 종교인들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바탕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작 불교계에서 그러한 좋은 포교 소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시중에 쏟아지는 자기계발서들은 다분히 상업적이다. 고전적인 품성론(品性論)이나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인 성공학, 처세술, 공허한 미사여구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불교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계발서를 쓸 경우, 독자들은 기독교를 보다 우월한 종교로 바라보게 되리란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늦었지만, 불교계에서도 수준 높은 자기계발서와 처세술 서적들이 나와 생활인들의 시름을 풀어주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높은 비전, 올바른 식견, 판단력, 결단력 등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자기계발의 핵심 키워드를 불교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참된 성공과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불교계 유일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불교아카데미 '마이리더스클럽'의 팀별 토론 모습.

#무엇이 참다운 성공인가

오늘날 소위 '성공학' 분야의 토대를 만든 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 힐, 벤자민 플랭클린, 토마스 에디슨 등은 성공의 의미와 목적, 과정, 수단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며, 그로인해 어떤 행복을 얻게 되며, 또 얻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인생의 절반은 그 재능을 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끔 정상에 도달했음에도 좌절하는 사람들 처럼 자기 안에 있는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참다운 자기계발이란 진정한 자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기가 본래 원했던 일, 자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에 비중을 둘 것이고, 출세간에서는 정신적인 가치의 획득에 비중을 둘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요,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지만, 사람의 행복은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인 만족과 편안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바로 인식이라는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자아 완성'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고통의 소멸인 동시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행복인 열반(涅槃)을 지향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열반이 '지금 여기'의 삶을 떠나 다른 곳에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완전한 행복은 영원을 담은 '지금'을 떠나서는 개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반을 저 멀리 밖에서 찾는 이들을 향해, 선사들은 "지금 여기가 열반이다"고 일깨운다. 완전한 행복인 열반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며,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질 때 증득되는 열반은 일체의 분별을 초월하기에,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며, 원인과 결과와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열반은 항상 눈앞에 있기에, 故 마하 고사난다 스님은 "행복의 비밀은 눈앞의 현실에 온통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다. 이혼, 불륜, 경제문제, 우울증 등 가지가지의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한 시가 눈물로 얼룩진 삶이다. 지금 마주한 인간의 세상이 지옥이나 아귀, 축생의 세상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고통의 국토로 여겨지는 것이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늘 '지금 여기'에 마주한 사람과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소중한 삶을 고통 속에서 허비한다는 점이다. 후회와 망설임, 절망, 갈망, 욕망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늘 주인이 아닌 '손님같은 번뇌(客塵煩惱)'의 노예가 되어 살 수 밖에 없다.

행복은 오랜 노력을 기울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여실하게 바라보면서(如實知見)' 감사하게 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사람과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새 행복의 파랑새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일과 하나되어 즐기는 노동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Steven Covey)와 같은 성공학의 대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일을 즐기고 거기에 전력투구한다는 점을 든다. 그들에게 있어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는 과정이자 즐거운 취미나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마치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일과 하나되어 모든 생활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엄청난 성과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상 그대로가 깨달음의 생활임을 강조하는 선(禪)은 생활선(生活禪), 노동선(勞動禪)을 제시함으로써 '일을 즐기라'는 성공학의 구호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한다.

선(禪)은 중생과 부처,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보지 않음으로써 '배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는' 평상심의 삶을 통한 해탈을 강조한다. 깨달음을 '물 긷고 나무 나르는' 자질구레한 일상사에까지 연결시키고 노동과 수행이 둘이 아닌 재가 수행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던 조사선의 근본 정신을 안다면 직장인도 자신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환주청규(幻住淸規)>는 생활선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일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나 동정의 두 모습이 여여(如如)하게 같아야 하며 근원적인 본래심인 당체(當體)는 일체의 경계를 지양(초연)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종일 노동을 하였지만, 아직 노동하지 않은 것처럼 여여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계발의 키워드 '일체유심조'

얼마 전 시중 서점에서는 <긍정의 힘>과 <시크릿>이라는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로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각각 '믿는대로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주제를 가진 두 책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 일체유심조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여서 많은 불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능엄경>에서 "너희들은 왜 산하대지와 허공이 모두 너희들의 묘하게 밝은 참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모르느냐"고 반문하신 것처럼, 참마음[眞心]에서 일어난 '한 생각[一念]'이 우주를 세웠다, 부수었다 하는 비밀의 열쇠임을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몇년 전 우승택 삼성 Fn Honor 호텔신라지점장이 쓴 <금강경-심상사성(心想事成: 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이라는 책도 이러한 관점을 일깨운 책이었다. 명나라 때 원료범(袁了凡) 거사가 <료범사훈(了凡四訓)>에서 강조한 "운명을 바꿔 마음먹은 일을 이룬다(改造命運心想事成)"는 유훈도 맥을 같이 한다. 불교 교리자체가 이미 2500년 전에 마음의 잠재력과 그 활용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자기계발서에 주로 등장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창의성(머무는 바 없이 마음내기), 배려와 소통(以心傳心), 비움과 내려놓음(放下着), 혁신(깨달음)과 리더십, 몰입(止觀), 주고받음(自利利他)와 인과법칙)의 법칙, 멘토링(인생의 선지식 역할) 등 핵심키워드들은 사실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실천없는 성공학은 탐욕에 불과

하지만 무수한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을 읽는다 하더라도 대승적, 이타적인 실천이 없다면, 또 다른 패배주의만을 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하나라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실천에 매진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백낙천 거사가 조과도림 선사를 친견하고 "불도(佛道)의 대의(大義)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도림 선사는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본받아서 실천하라"고 했다. 이에 백낙천 거사는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일곱 살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러자 도림 선사는 "일곱 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80세 어르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네"라고 말했다.

실천하지 않고 머리에만 저장해둔 명언과 가르침은 번뇌이자 똥에 불과하다. 백장 선사는 <백장록>에서 "있다 없다 하는 모든 지견을 쉬고 모든 탐욕을 쉬어 낱낱이 3구(三句) 밖으로 뚫고 지나면 이를 '똥을 치웠다'고 한다. 부처와 보리를 구하며, 있다 없다는 등의 모든 법을 구하면 그것은 똥을 퍼 들여오는 것이지 똥을 퍼낸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일체의 고정관념과 견해를 잊고, 깨달음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심, 기대마저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당장 실행에 옮길 때, 진리의 가르침들은 똥이 아닌 보석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E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리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무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재	학 원	천 북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재	학 원	경 서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전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재	졸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재	원 생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재	육 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울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재	사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경 기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산 구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서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울 북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내 안에 능력있다 … 찾는만큼 보이리라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자기계발서 6권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평생직장은 찾기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서점 자기계발 서적 코너에 가면 직장인 · 대학생 등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이나 성공담에 열광하는 이유는 자기계발서를 통해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미래와 성공, 경제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 같이 최근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자기계발서 중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불교적 시각으로 6권의 자기계발서를 살펴본다.

글=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시크릿

론다 번 저 | 김우열 역 | 살림Biz 펴냄

<시크릿>은 수 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돼 있는 비밀의 힘을 이용하면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저자는 "현재 삶 모두가 당신이 예전에 해왔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비밀'을 풀이한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비밀의 힘은 '생각대로 된다'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부터 그것을 끌어당겨온다는 것이다.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불교사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다르지 않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불교의 업력(業力) 개념과 유사하다. 업(業)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갖는 말 · 생각 ·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나름의 에너지를 행사해 '악이 악을 부르고 선이 선을 부른다(善因樂果 惡因苦果)'고 한다. 이 모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밀의 힘'을 통해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당신'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원하는 바를 실제화 하는 창조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선물

스펜서 존슨 저 | 형선호 역 | 랜덤하우스 펴냄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화엄경>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는 구도여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연장선이다. 그 선물은 어느 위대한 노인이 들려주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탐색을 마치고 나서야 찾게 된다. 다름아닌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바로 '현재 속에 살기, 과거에서 배우기, 미래를 계획하기' 이다.

저자는 이에 덧붙여 '소명감(purpose)'을 행동 방법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전자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삶의 행동 방법이었다면, 후자는 주변의 행복까지 고려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지침이다.

우리는 삶이 힘겨울 때마다 뭔가 비범하고 독특한 해법을 찾곤 하지만,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벽암록>은 '오늘, 지금 현재가 바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공기와 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듯,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함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소박한 이야기들로 일깨운다.

내려놓음

이용규 저 | 규장 펴냄

저자 이용규 목사는 수많은 영적스승들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나를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불성(佛性, 저자는 '하나님'이라 표현)으로 채우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된 과정과 그것을 내려놓은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성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찾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내려놓음'은 불교의 '방하착(放下着)'과도 같다. '나'를 온전히 놓음으로써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내안의 불성을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 · 명예 · 성공 · 배우자 · 가족 등 모든 것에 집착한다. 이것은 내가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놓고 '나'를 향하는 아상(我相)으로 꽉 찬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밝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내려놓는 삶은 한마디로 온유함을 이루는 삶이다. 내 생각 · 내 욕심 ·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해온 당신에게 내 안의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저 | 정성묵 역 | 두란노 펴냄

<긍정의 힘>은 뉴욕타임즈,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며 미국 내 200만부가 넘게 판매된 책이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미국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대표작인 이 책은 '긍정'이라는 아주 단순한 가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면서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매력을 보여준다.

'비전을 키우라,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베푸는 삶을 살라, 행복하기를 선택 하라' 등 최고의 삶을 사는 단계를 7가지로 나누어, 긍정의 힘이 우리 삶에 속속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한다.

저자는 마음의 힘을 강조하며 '긍정'으로 살라 한다. 이는 <화엄경>의 '여래성기품(如來性起品)'과 원효 대사의 '모두가 마음 아닌 것은 없다(萬法唯識)'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이다. 이 책은 기독교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지만 진리는 부처가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음의 힘'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것이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조 바이텔,이하레아카라 휴 렌 저
황소연 역 | 눈과마음 펴냄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성공의 지름길'로 긍정 · 시각화 · 감정해방요법 등을 말하는데 이 책은 그 한계를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는 '성취의 도구를 내던지고 그들의 마음속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순간 진짜 기적이 찾아온다'며 대안을 제시한다. '호오포노포노'란 '바로잡다, 오류를 수정하다'는 하와이어로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성한 생각과 말 · 업적 ·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휴 렌 박사는 "주변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무명으로의 회고를 통해 진정한 자아의 본체를 찾는다'는 12연기의 환멸(還滅)법과 '이것이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는 것'의 인과법과 유사한다. 또한 이 책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상태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제로 상태에서는 생각 · 말 · 기억 · 믿음 · 고정관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금강경>32분(分) '일체 유위법은 꿈 · 환영 · 물거품 · 그림자와 같고 이슬 ·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를 관하라(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와도 비슷하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 일러주는 '미안 · 용서 · 사랑 · 감사'를 통해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껴보자.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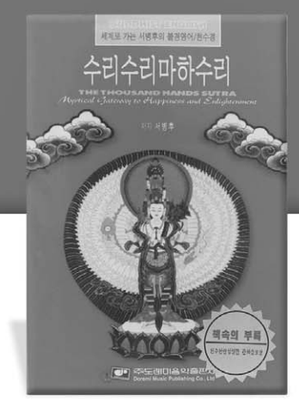
에크하르트 톨레 저 | 류시화 역 | 조화로운삶 펴냄

현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21세기의 영적 교사로 일컬어지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침서다. 이 책은 인류의 현재 상태 즉 자신의 생각과 에고(ego)를 자신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어떻게 분노나 질투, 불행에 이르게 하는 기능장애를 만들어왔으며, 이 행성과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에고에 바탕을 둔 현재 인류의 의식 상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존재를 회복하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유와 기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열린다고 조언한다. 불교의 <벽암록>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와 '오온으로 이뤄진 '거짓 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無我)'를 설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것, 거짓된 자아(ego)를 불태우고 우리를 순수존재로 현존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수행이자 진정한 삶일 것이다.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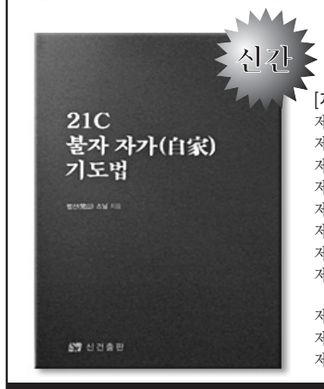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내 안에 능력있다 … 찾는만큼 보이리라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자기계발서 6권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평생직장은 찾기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서점 자기계발 서적 코너에 가면 직장인 • 대학생 등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이나 성공담에 열광하는 이유는 자기계발서를 통해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미래와 성공, 경제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 같이 최근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자기계발서 중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불교적 시각으로 6권의 자기계발서를 살펴본다.

글=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시크릿
론다 번 저 | 김우열 역 | 살림Biz 펴냄

<시크릿>은 수 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돼 있는 비밀의 힘을 이용하면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저자는 "현재 삶 모두가 당신이 예전에 해왔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비밀'을 풀이한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비밀의 힘은 '생각대로 된다'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부터 그것을 끌어당겨온다는 것이다.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불교사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다르지 않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불교의 업력(業力) 개념과 유사하다. 업(業)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갖는 말 · 생각 ·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나름의 에너지를 행사해 '악이 악을 부르고 선이 선을 부른다(善因樂果 惡因苦果)'고 한다. 이 모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밀의 힘'을 통해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당신'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원하는 바를 실제화 하는 창조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선물
스펜서 존슨 저 | 형선호 역 | 랜덤하우스 펴냄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화엄경>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는 구도여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연장선이다. 그 선물은 어느 위대한 노인이 들려주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탐색을 마치고 나서야 찾게 된다. 다름아닌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바로 '현재 속에 살기, 과거에서 배우기, 미래를 계획하기' 이다.

저자는 이에 덧붙여 '소명감(purpose)'을 행동 방법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전자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삶의 행동 방법이었다면, 후자는 주변의 행복까지 고려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지침이다.

우리는 삶이 힘겨울 때마다 뭔가 비범하고 독특한 해법을 찾곤 하지만,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벽암록>은 '오늘, 지금 현재가 바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공기와 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듯,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함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소박한 이야기들로 일깨운다.

내려놓음
이용규 저 | 규장 펴냄

저자 이용규 목사는 수많은 영적스승들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나를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불성(佛性, 저자는 '하나님'이라 표현)으로 채우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된 과정과 그것을 내려놓은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성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찾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내려놓음'은 불교의 '방하착(放下着)'과도 같다. '나'를 온전히 놓음으로써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내안의 불성을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 · 명예 · 성공 · 배우자 · 가족 등 모든 것에 집착한다. 이것은 내가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놓고 '나'를 향하는 아상(我相)으로 꽉 찬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밝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내려놓는 삶은 한마디로 온유함을 이루는 삶이다. 내 생각 · 내 욕심 ·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해온 당신에게 내 안의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저 | 정성묵 역 | 두란노 펴냄

<긍정의 힘>은 뉴욕타임즈,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며 미국 내 200만부가 넘게 판매된 책이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미국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대표작인 이 책은 '긍정'이라는 아주 단순한 가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면서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매력을 보여준다.

'비전을 키우라,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베푸는 삶을 살라, 행복하기를 선택 하라' 등 최고의 삶을 사는 단계를 7가지로 나누어, 긍정의 힘이 우리 삶에 속속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한다.

저자는 마음의 힘을 강조하며 '긍정'으로 살라 한다. 이는 <화엄경>의 '여래성기품(如來性起品)'과 원효 대사의 '모두가 마음 아닌 것은 없다(萬法唯識)'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이다. 이 책은 기독교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지만 진리는 부처가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음의 힘'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것이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조 바이텔,이하레아카라 휴 렌 저
황소연 역 | 눈과마음 펴냄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성공의 지름길'로 긍정 · 시각화 · 감정해방요법 등을 말하는데 이 책은 그 한계를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는 '성취의 도구를 내던지고 그들의 마음속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순간 진짜 기적이 찾아온다'며 대안을 제시한다. '호오포노포노'란 '바로잡다, 오류를 수정하다'는 하와이어로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성한 생각과 말 · 업적 ·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휴 렌 박사는 "주변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무명으로의 회고를 통해 진정한 자아의 본체를 찾는다'는 12연기의 환멸(還滅)법과 '이것이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는 것'의 인과법과 유사한다. 또한 이 책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상태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제로 상태에서는 생각 · 말 · 기억 · 믿음 · 고정관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금강경>32분(分) '일체 유위법은 꿈 · 환영 · 물거품 · 그림자와 같고 이슬 ·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를 관하라(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와도 비슷하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 일러주는 '미안 · 용서 · 사랑 · 감사'를 통해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껴보자.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에크하르트 톨레 저 | 류시화 역 | 조화로운삶 펴냄

현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21세기의 영적 교사로 일컬어지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침서다. 이 책은 인류의 현재 상태 즉 자신의 생각과 에고(ego)를 자신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어떻게 분노나 질투, 불행에 이르게 하는 기능장애를 만들어왔으며, 이 행성과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에고에 바탕을 둔 현재 인류의 의식 상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존재를 회복하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유와 기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열린다고 조언한다. 불교의 <벽암록>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와 '오온으로 이뤄진 '거짓 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無我)'를 설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것, 거짓된 자아(ego)를 불태우고 우리를 순수존재로 현존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수행이자 진정한 삶일 것이다.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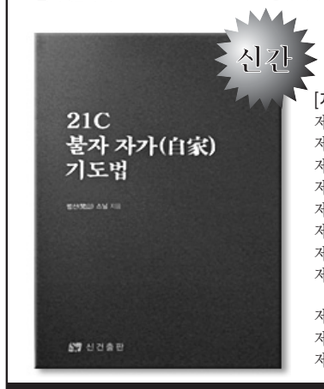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프롤로그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2008년,
대한민국에 낯선 단어가 풀씨처럼 날려 왔다.
종교편향. 종교편향. 종교편향...

그간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는 아주 미미하게 쓰였다.
그러나 이 풀씨는 '다종교 사회'라는 토양에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마침내
무성한 줄기와 잎으로 위세를 떨치더니 아뿔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말았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장로라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말했던 그의 과거 행보가
새 정부 들어 '약발 좋은 비료'가 되었던 것이었을까?
공직 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 투표소와 경찰서, 지도 만드는 곳에서도
'종교편향'의 뿌리는 깊고 줄기는 튼튼하고 잎은 무성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분노했다.
헌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민족문화의 중심이 부정되고
특정인의 권위에 편승해 활개를 치는 '종교편향'을 강력히
거부하고 규탄하며 경찰청장의 퇴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존중의 미덕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느냐, 그것이 종교의 본령이냐고
20만 불자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법회를 가졌고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했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했다.
그러나 권력자의 사과는 미온적이고 세상의 여론은 차가왔다.

밖으로 거부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동안
안에서는 자성의 차분한 목소리도 일어났다.
지난 반세기, 불교계의 행보를 찬찬히 돌이켜 보면서
진정 민족문화를 영도해 온 종교로서
변화의 세상과 함께 호흡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가?
반성하자는 목소리도 '종교편향'이라는 풀씨처럼 뿌리를 내렸다.

화살이 날아와 몸을 맞혔다면
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고 누가 쏘았는가를 따지는 일이
바쁜 것은 아니다.
차라리, 어쩌다가 화살을 맞았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다종교 사회 '존중의 미덕' 사라지면 공멸의 길
분노에 얽매여 있기보다 차분한 내적 자성 필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던가?
'종교편향'의 풀이 더 무성해지기전에, 화살을 뽑는 심정으로
우리의 허술한 방어 자세를 고쳐야 한다.
다종교 사회라는 대지는 변할 수 없다.
종교라는 바람과 햇볕도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두드리는 어리석음보다
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더 강한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맞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
분노를 초월해 차분한 내적 자성으로
민족의 진정한 영도세력이 되기 위한 지혜 모으기
지금 불교계는 그 지혜의 불사에 나설 때다.

화살을 뽑는 심정으로, 불사를 하는 마음으로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활동과 표현의 범위를 짚어보고
지난 시간 불교계가 걸어 온 길에 종교편향의 풀씨가
어떻게 착상했는가를 돌이켜 보자.
그리고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향후 행보를 전망해 보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인종·성차별처럼 취급하는 선진국 문화 배워야"



논제1 :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 활동과 표현의 범위

박광서(서강대 교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다종교 사회 종교의 공존을 위한 조건들

다종교 ·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다양한 전통이나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불거진 종교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안타깝다. '타문화와 타종교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을 선교성과로 자랑스럽게 내세워왔던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가 그 원인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른 것'이라고 가르쳐 온 편 가르기의 결과다. 단순히 몇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다. 그들의 무례한 전도행태로 인한 피로감은 비기독교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누적되었고, 여기에 현 정권 출범 후 대통령을 포함하여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몰지각한 종교 편향 행위가 불을 질렀다.

종교 갈등은 장로 대통령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기독교세가 주목받을 만큼 크지 못했고, 또 유일하게 대응할 만한 종교 세력인 불교마저 내부의 정화문제에 매달려 외부 변화에 적응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회이슈화 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넘기곤 했던 것이 내성을 키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 종교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종교로 성장하여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민주화와 함께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과 개혁세력의 등장으로 잠에서 깨어난 불교계의 사회의식은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종교차별과 종교인권 침해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우월감으로 인해 선 · 포교의 사명감과 함께 어느 정도 심리적인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을 내면의 자산으로 삼아 현실의 삶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포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종교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선교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그 표현과 행위는 다른 종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 타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과도한 종교적 행위가 '자비와 사랑 대신 소외와 차별, 자유와 소신 대신 편견과 굴종, 배려와 관용 대신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여 사회악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종교가 과연 선과 정의의 근원인지 헷갈리게 된다. 맨해튼 배경의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는 영국 방송국의 한 광고가 솔깃해지는 세상이다.

종교 간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무엇일까. 사찰방화, 불상파괴, 단군상 · 장승 · 제단 파괴 등 폭력행위나 국민의 혈세가 특정종교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정책 등 명백한 범죄행위는 아예 논외로 하자. 한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공인의 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과 행위의 한계를 사례들 중심으로 살펴보자.

타자에 대한 배려 기본, 개인권리 침해 '어불성설'

첫째, 개인의 종교 표현과 행위는 타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다. 한 개인의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계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종교에 심취해 있을수록 배려 없이 무심코 하는 말이 타종교인에게는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잊고 산다. 문화적 편견, 종교적 우월감을 배경으로 한 배타적 언행, 타종교를 교묘하게 조롱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 타종교를 비하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행위, 심지어 스토커 수준의 도를 넘는 공격적 선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의식적, 습관적 언행

아무 때나 하나님, 관세음보살, 기도 또는 합장, 특정종교에 대해 호 · 불호를 가볍게 말하기, 별 생각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구요" "종교가 있느냐? 교회 다니느냐?"고 묻기, 가정통신문이나 명함에 특정종교 상징 또는 교리 써 넣어 배포, 종교시설 아닌 곳에서의 결혼식 중 특정종교 기도 및 찬송, 강의 중 과목과 무관하게 자신의 종교 설명에 많은 시간 할애.

△문화적 편견

장례 또는 제사 때 "절 못하겠다", 아예 제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편애 또는 편 가르기

교회 다녀온 학생들에게만 '칭찬 스티커' 주기, 교수 연구실에서조차 학생들과 특정종교 공부하거나 특정종교인들끼리만 어울려 타종교인 노골적인 왕따.

△우월감 표현

큰 십자가, 염주 일부러 드러내기, 일요일을 굳이 주일이라 표현, "교인(개신교인)이라 거짓말 못 한다" "요즘도 불교 믿는 사람 있나요?" 등 황당한 말.

△타종교 비하, 조롱

"석가모니 불교 만들지 말았어야, 스님들도 예수 믿어야, 못사는 나라 종교." (장경동 목사)

"머리 민 정신 나간 사람들, 중들, 웃기는 짬뽕, 싸가지 없는 사람들." (신일수 목사)

△폭언, 협박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 불교는 미신, 야만, 마귀, 사탄.

△몰상식한 전도행위

스토커 수준의 무례한 선교(집 방문, 학교 내, 스님에게까지), 부처님오신날 불교의 상징인 조계사 앞에서 찬송예배,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협박, 군 장교의 고압적 종교 강요(세례원서 배포, 비신자 반성문 강요, 염주휴대 금지 등).

움직이는 권력, 공인의 공개적 종교행위 '위험'

둘째, 국민 대중에게 그 파급효과가 큰 공인의 공개적인 종교 행위는 위험하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은 그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인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개인의 종교 표현이나 행위도 공인인 경우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물론 공직자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이 경우 권력 남용) 타종교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소외감, 심지어 2등 시민으로까지 느끼게 한다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여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인의 자격이 없다.

공공장소나 행정시스템도 특정종교가 차지하거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이므로 누구나 종교적 부담 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행위는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의 (무의식적인, 묵인에 의한) 종교행위로까지 간주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종교차별, 정교유착

공식행사(이취임식, 개원식, 입학식, 졸업식, 출정식 등)에서의 기도와 예배, 개신교 공직자 기도모임 '홀리클럽' 및 '성시화운동'(국내외 50여 개 본부), 정장식 前 포항시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 복귀)의 시 예산 1% 성시화운동에 사용 계획,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교동협의회' 및 개인 선교행위,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 복음화' 광고 포스터에 조용기 목사와 사진 게재(관례?), 국고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의 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및 수용자 특정종교 강요, 공기업 위탁업체 선 · 포교 행위 묵인,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 꿈" 발언, 오현섭 여수시장 '복음박람회' 기고,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 하나님께 봉헌' 및 부산 '사찰 무너져라' 부흥회 축하 동영상, 이명박 서울시장 청계천 준공 예배(하나님 역사 운운, 비기독교인 납세자 우롱), 공정택 교육감 교육청의 전자문서 시스템 이용 기도회 홍보 및 참석(국민 93% 부적절), 검찰 수사관 불자 고소인에게 기도 강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시스템(알고가) 등의 사찰 누락, 종교시설 투표소(국가인권위 시정권고, 위헌소송 중).

△공교육기관의 기본권 침해

국고 지원을 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사학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과 특정종교 교육, 국공립학교(서울대, KAIST 등) 특정종교인만을 위한 특별 공간(교육관, 창조관 등), 국 · 공립학교 특정종교 행사에 장기 임대 계약(경기여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임대).

△공공장소의 종교 오염

공영방송에서 특정종교 언어(주일 등) 사용, 길거리 또는 청사, 경찰서 지하철 내 기도회, 예배, 선교행위, 공공시설에 종교 선전 문구 및 종교 상징물 부착(강의실 십자가, 옥외광고 선교문구).

△언론 방송 및 기타 공공자산의 사적 이용

방송연예인의 과도한 종교 표현, 공영방송을 이용한 국가대표 골 세리머니, 지폐 '예수천국 불신지옥'(국가자산 훼손 범죄).

종교 강요하는 것은 성희롱과 마찬가지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종교자유의 보장이나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중립이 잘 지켜져 상식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의 종교차별 기준에 대해 언급한 뉴욕의 어느 한인 교수의 글이 생생하다.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종교인권 상황과 비교되어 더욱 그렇다. 뉴욕 주법(州法)에 따라 관공서와 모든 주립 · 시립학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신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의 '허레스먼트(harassment)'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적극적인 전도(傳道)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종교에 관한 차별은 성 차별, 성희롱, 인종 차별, 동성연애자 차별과 함께 엄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송이 따르고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이 속한 단체, 학교,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종교 편향을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종교 편향처럼 느끼게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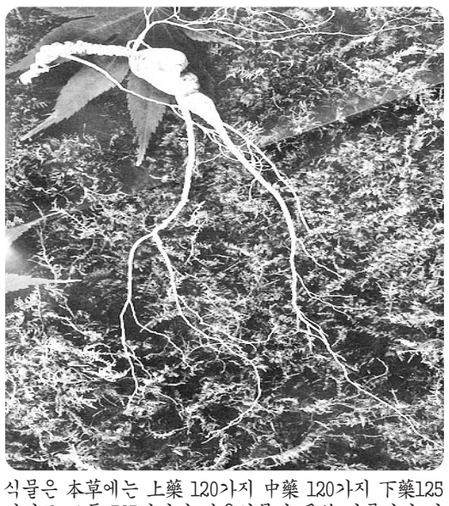


공적 영역에서 종교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면 종교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와 사회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 사진은 2006년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언행을 규탄하는 불자와 공직자 종교편향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모습의 합성.

종교적 오염, 무례, 차별, 폭력까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 타자에 대한 가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피해라고 느낄 때 마땅한 규제 또는 처벌 수단도 없어 더욱 답답하다. 공공영역만이라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종교중립'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농축액 (진액) 500g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불교사회화 달성·내적 청산 후 불교종합연구소 운영해야"

논제2 :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논리와 내적 자성

김광식(부천대 교수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연구실장)









불교계는 지난 반세기동안 내적 혼란상을 겪으며 외부 종교의 극단적 선교 방침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조계종 사태(❶ ❸)와 종교편향 항의 기자회견 모습(❷).

종교편향 사태에 즈음한 불교계의 여론

최근 불교계 내외에서는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불교계의 행보, 그리고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시정하기 위해 개최된 범불교도대회(시청앞 광장)의 의미 및 진로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 범불교도대회에는 조계종단을 비롯한 다수의 종단이 합세하였으며, 전국 각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참여한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기념비적인 대회가 되었다. 시청 앞에 모인 20여만 사부대중은 종교를 기독교로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을 비판하고, 그런 편향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여 나아가서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여만의 사부대중이 모여 그런 대회를 하게 된 저변에는 기독교의 성장, 기독교인의 공직자 진출의 상당함으로부터 불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추후에는 더욱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어떤 행보를 갈 것인가, 그리고 대회를 강행한 것이 정당하였는가,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었는가, 그 대회를 주도한 세력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시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불교의 의연함을 보여주고 사태를 봉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불교의 목소리는 다양하고, 그 분석과 해법도 분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유의할 것은 불교계 내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불교계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천주교뿐 만이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불교계 외부의 목소리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짧은 이 지면에서 불교계 내외의 진단과 목소리를 전달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근현대 불교를 연구한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개진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한다.

불교 사회화의 등장, 계승, 그 업보

이번 사태가 발발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공직사회에 불교를 믿는 재가불자들이 기독교인을 능가할 정도로 많았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불교계 신문에 불교신자가 청와대, 국회, 행정부에 입성한 사람이 몇 명인지 보도된다. 그 수는 기독교인에 비해 열등한 내용이다. 그러면 왜 공직자에 불교인이 그렇게 적은가? 이는 불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생명과 같은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불교는 지난 100여 년 간 불조혜명을 훼저히 계승, 구현하였는가? 그리고 중생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국가와 사회의 고통과 모순, 중생들의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고뇌하였는가? 이런 지적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을 하는 스님과 불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교는 그간 산중불교의 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불교의 사회화, 중생구제, 국가 및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동참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각성을 한 종단,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급성장하였던 개신교, 천주교의 활동에 비해서는 미약하다. 불교가 내적인 갈등을 보이고, 불교재산을 망실하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벌이고, 폭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이웃 종교는 불교를 추월했다. 그리고 삶과 존재 사이의 미로에서 고통을 받았던 다수의 무종교인들은 불교를 찾지 않고, 타종교로 갔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결과가 최근의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에는 인연법이 있다. 그 인연법을 불교 사상으로만 찾지 말고, 세속의 문제에서도 가늠해야 한다. 부처님 법으로 철저히,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 100년간 불교가 걸어온 길 중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 해결에 나섰던 흐름도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 흐름이 불교의 주류로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제시하겠다. 개항기의 불교는 서구문명의 도래, 일본불교의 침투 등으로 방향 감각을 찾지 못했다. 산중불교라는 멍에를 벗지 못했고, 그런 결과로 사회의식도 없었다. 더욱이 외세를 등에 업고 침투한 개신교의 위세는 감당도 못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승려들은 문명화된 일본불교의 모방에 급급했다. 그런 현실은 자주적, 자생적인 종단도 유지,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다. 종단도 만들지 못한 현실에서 중생구제, 국가와 사회의 문제 해결을 바랄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나라는 1910년 8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나라도 망한 현실에서 불교가 온전한 길을 갈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한용운은 불교의 체질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냈다. 당시 그에 대한 반응이 찬성과 비방이 비슷하였다 함은 당시 불교계 내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는 정도였다고 본다.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은 불교의 호국성, 민중과의 친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철저한 통제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찰령이었다. 그 결과 한국불교는 일제가 패망하는 그날까지 일제의 간악한 구속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불교 본연의 길을 가기 위한 고투를 전개한 스님들이 다수 있었다. 그들은 식민지 불교체제에 반발하며, 사찰령 철폐를 주장하고, 자주적인 종단을 만들려 노력하고, 사회와 중생의 터전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 및 체질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운동에도 참여하였다. 3 · 1운동, 임시정부, 만주 독립군에 참여, 군자금 제공 등이 그 예증이다. 그들의 분투로 1941년에는 조계종의 전신인 조선불교 조계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불교의 영향아래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처승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승려의 결혼은 계율에서도 금하였고, 1500여년간 한국불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전통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교 사회화, 승려 인권의 고양을 이유로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보수적 불교, 관행적 불교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들의 선택, 노선은 일제하에서는 일본불교와의 공존, 일제의 은근한 후원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8 · 15해방이 되면서 이들의 노선은 불교계 내부에서 비판받기 시작했다. 그 비판, 반발은 1950~1960년대의 이른바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공권력과 일반사회에서의 비판, 수행승인 수좌들의 강력 저항으로 인해 대처승은 제도권 밖으로 구축되었다. 대처승들의 축출은 대처승이 내걸었던 불교 사회화의 몰락을 의미하였다. 바로 이럴 때에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다. 대처승들은 태고종을 만들어 자신들이 구현하였던 불교 사회화가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태고종단을 비롯한 군소종단에서 불교사회화가 잘 실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하는 바가 많다.

한편, 일제하 불교에서 승려 결혼을 실천한 승려들을 비판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은 선학원 계열 수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수도승이라고 자부하고, 불법과 전통불교의 관점에서 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들은 일제하의 주류불교는 아니었지만 정체성, 전통성을 지킨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교 사회화, 혹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불조혜명 계승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이 계열의 수좌들은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을 통하여 조계종단의 주류가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종단을 재건하고, 요직을 맡고, 사찰 주지도 맡았다. 그러나 정화운동 과정에서 폭력, 사법부 송사, 재산망실, 후계 승려에 대한 교육 및 수행의 미실시 등의 문제로 업보를 잉태하였다. 바로 이 업보가 1970년대의 수많은 갈등, 재판, 명리 추구임은 보편화된 상식이고, 그로 인해 10 · 27법난의 요인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비판과 각성은 1980년대에 불교계 내부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다. 해인사승려대회, 민중불교,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등의 대두가 그것이다. 그 결과 1994년 이른바 '종단개혁'이라는 불교 내부의 새로운 흐름이 분출되었다. 1994년 종단개혁은 다양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는 제도적인 측면에 머물렀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당초 주체세력이 내건 목표는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는 1998 · 1999년 내홍에서 결정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는 1980~1990년대 개혁의 흐름으로도 불교가 가야할 길을 가지는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1950~1990년대의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 행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이념 구현에 미진했다. 달리 말하면 국가, 사회, 중생, 대중을 위한 불교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런 역사에서 최근의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종합 고찰하며 인재 양성해야

이번 사태를 치유하고, 불교발전을 이루는 길은 불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연후에 불교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강구이다. 이런 입론 하에서는 불교계 외부에 불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태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문중 문도의 갈등, 명리추구를 위한 내적 소비, 반불교적인 정서 청산은 당연하다. 이런 구도 하에서 교학, 종학, 불교사, 응용불교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연구소를 시급히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한국의 민족문화를 대변하고, 민족불교임을 강조하고, 1등 종교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연구소, 종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폭넓게 연구해 정도를 모색하는 종합연구소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서야 무슨 주장을 하겠는가? 이런 연구소에서는 불교 이념, 불교 사회화를 실천하기 위한 내적 방향, 각론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갖추어지게 된 후에는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불교인재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구석구석에 포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종교편향이 없어지고, 불교가 민족불교가 되고, 1등 종교가 된다. 문제는 이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오동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변화를 가늠하는 곳이 우리 불교였는데, 요즈음은 오동잎을 찾지도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연료비 90% 절약
전자파 없고 모터없고 소음없는 무동력 온수매트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전선이 아닌 온수순환 방식으로 전자파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성장하는 어린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사원단
☑ 활성탄
☑ 3단접이 보관
☑ 완전 방수기능
2009년형 신제품
특허품 : 무동력 히팅순환기
2009년 무동력(자연순환방식) 특허보일러로 더욱 편리하고 고정율이 적습니다.
■규격 :2인용 : 1400×2000×40 (±5)
1인용 : 950×2000×40 (±5)
후불제 판매단행!

웰빙 온돌방의 특장점
웰빙 온돌방 온수보일러는 모터작동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이 아닌 무동력(자연순환방식)이라 고장률이 거의 없으며, 모터회전에 의한 소음이 없습니다.
• 무동력 디지털 보일러 기존의 강제순환방식(동력)에서 벗어나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모터없이 물을 자연순환시켜 소음이 없고 가열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발열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가뿐한 웰빙 온돌방입니다.

특허청 ▶10-2008-0002113 ▶10-2008-0009761 ▶10-2008-0019875 ▶10-2008-0064719
국제특허 : PCT/KR2008/003038
※무단복제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놀면 뭐하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전자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며 뇌파침전도 검사 결과 수면방해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면역력에 문제가 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5년 5월 『전기장판은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 침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침대 · 온돌겸용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가 따뜻하여 아주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큽니다.
현금가 : 1인용 218,000원 2인용 248,000원
지로분할가 : 1인용 : 52,000×5회 / 2인용 : 59,000×5회
대진하우징 주문전화 080-338-3388
입금계좌 (농협) : 1285-02-011378 이현실

"과도한 법제화의 '덫' 걸리지 않도록 검토 후 추진해야"



논제3 :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위한 법제화 필요성과 전망

조문환(국회의원 · 국회정각회 한나라당 간사)

다종교 사회 공직자 종교편향의 위험성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종교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극단적 종교갈등과 분쟁을 예방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후 60년 동안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들은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국민정신문화 함양 및 계도,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등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한 우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시 종교차별적 사례가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정책수립과 행정집행 과정에서 특정종교의 종교적 활동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거나 억압하는 종교편향이 대한민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촉발시킬 수 있는 갈등의 위험성은 바로 매우 큰 폭발력이다.

그러한 사회분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생산적인 법리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단적인 종교간 대립상황을 초래하고, 마침내는 국가적 혼란상황까지 발전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으로 인한 종교간 분쟁과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종교간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법제화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종교편향 방지 입법조치가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헌법상 선언 규정과 별도 입법 필요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정교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헌법상의 포괄적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종교차별 금지조항에 의해 커다란 종교 갈등 없이 '평화' 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종교의 급속한 교세신장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화 사회로 인한 종교간 접촉(마찰) 증가는 종교 간의 내재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은 더 이상 헌법상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종교편향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국민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사회추세 역시 '성별, 인종, 장애, 사상,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등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가치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헌법적 선언규정을 넘어 개별 법규화를 통해 가치를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성별 · 신체조건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개별 법안이 있고, 인종 지역 학력 신체조건 등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안' 도 논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종교적 편향의 경우 다른 차별사유와는 달리 특수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별 · 인종 · 나이 · 지역 · 학력 등 다른 사유는 차별로 인한 피해자나 규모가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별법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종교적 편향(또는 차별) 사례는 국민통합의 저해 등 국가적인 피해규모는 막대하지만, 피해의 산정이나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구제 절차나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 및 종교에 의한 부당한 차별금지 또한 헌법의 선언 문구를 넘어 구체화할 시기가 되었으며,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 남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금지 사유의 개별 입법화 취지에 비춰 법의 최소화 원칙에도 부응한다 할 것이다.

입법 요구 주체별 이견 있어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정부에 (가칭)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불교계는 그와 함께 각종 관련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한 별표와 같다.

종교편향 방지 관련 조계종 입법요구 법안

법 명	관련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종교 중립의 의무) 신설 제84조(벌칙)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2(종교 중립의 의무) 신설 제82조(벌칙) 개정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개정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의 2(종교교육) 신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개정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개정

◇ 별도의 '종교편향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불교계 일각에서는 지금도 별도의 특별법으로서의 (가칭)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가칭)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칫 종교간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한기총은 9월 5일 발표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 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 '종교차별금지법' 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기총은 또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기총은 이어 "한기총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면서,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 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 시도를 신중히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별도의 특별법으로서의 (가칭)종교편향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종교계 전체의 합의절차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해

정부는 9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차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을 개정, 제4조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법률적 근거조항 없이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행과정에서도 인사권자의 권한여부나 법적 근거 등의 논란 여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특별히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와 처벌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돼 나경원 의원의 발의로 9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1인은 8월 14일 위의 두 법률에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종교 차별적인 조치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의 신설과 한나라당 개정안과 같은 기준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 처벌 조항의 유무와 역차별 주장에 대해

현재 가장 현실적인 종교편향 방지 입법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개신교계와 불교계 일각에서 처벌조항 삭제와 역차별 우려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신학과 김상근 교수와 기독교윤리실천행동 신동식 목사는 "공직자의 종교 행위에 대한 규제 법제화는 어느 의미에서 일리가 있지만 자칫 더 큰 자유를 상실할 수 있고, 종교인들의 차별은 양심과 신앙의 문제이므로 법의 강제성이 아니라 (종교간) 상호 존중에 의해 실시돼야 하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종교간 대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명 목사 33명은 '종교간 화평을 염원하는 기독교 목회자' 명의로 지난 9월 12일 '불교계에 드리는 글' 이라는 성명을 통해 "종교편향 금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 제정이 종교활동과 종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하나 하나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교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종교교육 강요 금지' 조항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학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 재단 설립 학교들이 건학이념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교편향 방지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론이 존재하고 있고, 각 종교별로 입장이 상반된 부분도 엄연히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와 신중한 입법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충분한 여론수렴 신중한 입법과정 요망

보인다.

10월 2일 현재 종교계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관련 법률 개정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 당론으로 된 개정안과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10월 1일 "신속한 종교편향 방지 입법조치 마련"을 약속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관련 법률 개정추진 현황(2008.10. 현재)

법 명	관련 조항
국가공무원법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발의(9.4 제출) 민주당 강창일의원 등 11인 발의(8.14 제출)
지방공무원법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발의(9. 4 제출)
정부조직법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1인 발의(8.14 제출)
공직선거법	발의 없음
교육기본법	발의 없음
초 · 중등교육법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13인 발의(8.21 제출)

그리고 여타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및 행정조치들 또한 단계별 입법 및 심의과정에서 종교계와 법조계,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일방적 여론에 쫓겨 절대로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특정종교의 이해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관련 법제화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 국가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사회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초당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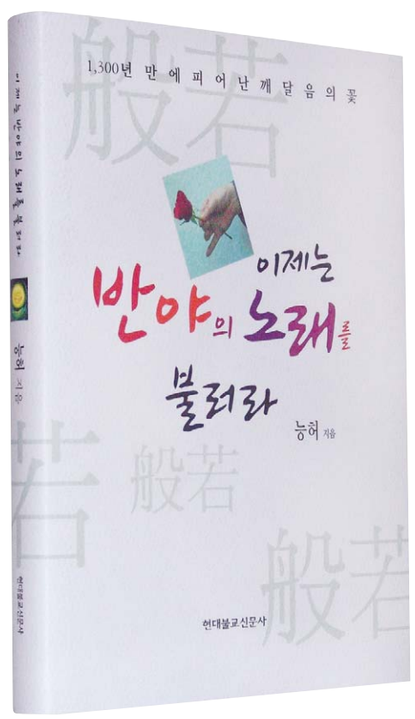
그러한 차원에서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정각회에서는 불교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 조치 및 연구와 함께 각 종교별 의원모임 등과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종교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끝으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과도한 법제화와 행정조치로 인한 부작용, 소위 '자승자박(自繩自縛)' 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종교계 스스로의 충분한 경계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B1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을 돌려드립니다
- 2박 3일 체험 코스 -
비반, 스트레스, 혈압, 당뇨, 암..
각종질환으로 늘 약먹고 불편하신분,
장부 근본치유, 예방 · 자생법으로
평생 무명 건강하십시오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빙의퇴마전문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에서
퇴마스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성암 도통 합장
010-7443-3060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합격 · 영험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극락사
054)247-2712
011-9209-1200
017-522-3263

스님을 찾습니다
청휴야! 명휴야!
연락 바란다
010-9771-3004
경북 예천에서

법랍 30년된
조계종스님입니다
토굴 보시 해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277-3541

황토사찰에서
행자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55)333-0705
010-9192-6801

15년 이상 염불
하시고 기도를
잘 하시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10-3156-979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조계종
011-9317-918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지역
010-7400-997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011-9350-3216

기도스님(조계종비구)
법당보살(50~60세)
모십니다
010-2862-5077
041)836-6627

기도스님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불교의식집전 가능)
용원스님
011-281-4481

기도 사찰 찾음
심신 건강하고 불심깊은
50대부부가 사찰을
관리하며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찾습니다
(서울근교,수도권요망)
011-669-9258

부전기도스님
필요하신 절은
연락 주십시오
010-3549-6502

운수암에서
행자 모집합니다
(불교의식교육, 순천선암사위치)
061)754-5245
011)628-115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운전기사
처사님(50전후)을
모십니다 ▷대구
053)952-4720
016-896-7420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작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사람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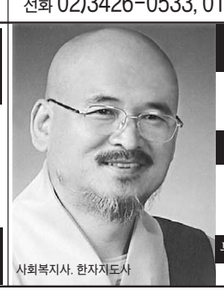
■ 너무 급합니다 .
· 이름 : 권민화 · 법명 : 법의 · 나이 : 1973년 36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크고 막중하여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이 되어야 수습이 됩니다 . 지금쯤은 아마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기위해 행자스님 과정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
법의스님을 보신분이나 행적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법의스님의 막내동생에게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6688-6446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학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환영
부설: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3426-0533,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신병,불치병 오라요법탄생
- 기적같은 자연치유 무료체험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항상 피곤하신분
● 직업병 (근골격계질환, 두통, 오십견)
정신병,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당뇨, 탈모증, 암환자
● 氣를 살려드립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는분)
● 공장, 점포, 주택, 자동차 에너지 절약 시켜 드립니다. 기운을 바꿔드립니다.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기억법과 연상법으로 가장 쉽게 공부한다!!!
서울 대전 **무료역학**
3주 무료수업 청강후 결정하세요.
▶사주명리반 ▶기문둔갑반
▶육임.육효반 ▶풍수지리반
♣본 학회의 특징♣
■ 본 학회에서 2007대선 순위까지 적중했으며 일반사주 90%이상 높은 적중을 최고위실전반(사주+기문+육임풀이)에서 있는 그대로 증명해 드리고 있음.
■ 역을 5~10년 해도 안 되고 금방 잊어버리며 통변과 용신 분석이 잘 안되는 분
■ 역의 왕초보자이거나 여기저기 다니다 지쳐 있거나 이런 분들은 편하게 처음부터 정리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학원이며 오랜 경력자도 재정리하는 곳이다.
■ 한곳에서 동양오술을 모두 공부할 수 있고 마치면 진로를 구체적 상담해 준다.
■ 기억,연상법 공부로 많은 회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내 최다회원 확보.
♣공개강좌 진행순서♣
■ 사주명리학, 기문둔갑, 육임 등을 기억법과 연상법으로 수업 진행하고 60갑자 1시간에 암기하기 및 기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이해 및 암기한다.
■ 본 학회 출신들의 성공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본 학회 회원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및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을 소개한다.
◆ 제17기 무료 수강 시간표 ◆
서울 10월 20(월), 21(화), 22(수), 23(목): 14시~17시
대전 10월 24(금), 25(토): 14시~17시
※ 편한 시간에 주1회만 오면 되고 공부를 하실 분은 필히 3주 무료 청강하세요.(본수업과 연결 됨)
인당역학 www.idsaju.com(검색 인당역학)
서울 02) 987-6310, 984-6310
대전 042) 252-6310
서울: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양지사거리 신한은행 우회전-30미터 2층(도보4분거리)
대전:대전역 150미터 홍명상가 제일은행 뒤

패철 보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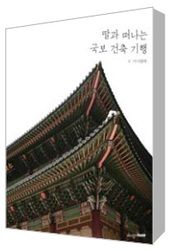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13개와 教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부에 관심없는 딸 위한 아버지 사랑



딸과 떠나는 국보 건축 기행
이용재 지음
디자인하우스 펴냄 | 1만4800원

이번 주말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 국보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딸과 떠나는 국보 건축 기행>은 아빠와 딸이 전국의 국보 건축물을 답사하며 보고 느낀 기행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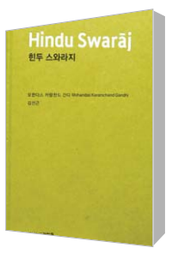
현재 건축평론가로 활동 중인 저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에 관심 없는 딸에게 일찍이 인문학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2002년 택시기사를 하면서 7년 동안 건축 여행을 해왔다.

딸 화영이는 "아빠와 국보 건축 답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건축가는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교육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선시대 건축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인문학 양성의 선두자 정도전 · 도산서원은 이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축물이다.

건축과 역사는 배움의 분야가 아니다. 있는 대로 느끼면 되는 것이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탄탄해지면 현명한 삶을 산다'는 것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나은 기자

인간·사회 모든 갈등 해결 방법



힌두 스와라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지음 | 김선근 옮김
한강수 펴냄 | 1만2000원

수동적 저항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문명인가?

비폭력 저항 운동에 일생을 바친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가 1909년 12월 남아프리카 <인디언 오피니언>에 발표한 구자라트 칼럼집 <인도의 자치>를 번역한 해설서다. 그의 <자서전>과 더불어 주 저서 가운에 하나로 꼽는 <힌두 스와라지>를 통해 진정한 인도의 가치란 무엇인지 고백한다. 조국에 봉사하고,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에 따르고자 한 간디 개인의 인도 독립운동 출사표이자 독립선언서로서 인류의 복음서로 인정받는 고심의 산물이다.

인도의 독립운동사를 아는 것은 오늘의 인도를 아는 것과 같다. 인도의 독립 운동사를 알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도국민회의'를 알아야 한다. '인도국민회의'를 아는 것은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의 <힌두 스와라지>를 아는 것으로 통한다.

수천 년 숭고한 인간의 이상을 설교했지만 현실을 개조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자와 도덕적 개혁가에게 도전장을 던진 성인 간디. 보살의 행원 그 자체의 삶을 실천한 간디의 민족해방운동 사티아그라하(1919)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이론과 방법의 열쇠를 지녀보자. 가연숙 기자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한자경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1만8000원

논리학적 고찰통해 '유용한 불교' 드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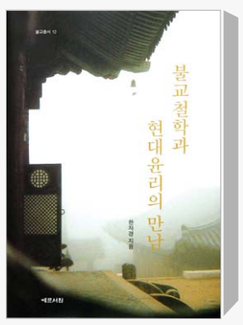
물질의 시대, 불교는 어떤 깨우침을 주는가?

현대는 분별의 시대다. 반면 불교는 언어의 집착과 문자적 앎을 점증적으로 경계해 간다. 불교는 언어의 한계와 표현의 제한을 다른 어떤 사유체계보다 여실히 포착하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지눌 스님 이후 확립된 한국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적극적인 부정을 통해 확고한 긍정의 언어관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한다.

불교와 현대과학의 차이는 무엇일까?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은 불교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지 않는다. 불교를 불교 그 자체의 논리로 읽어내고자 노력한다. 저자는 불교 자체의 논리로 불교의 기본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힌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불교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묻는 이에게 권하는 현대적 불교 사유서이다.

이 책은 시종일관 자아(自我)와 비아(非我) · 무아와 유아 · 진아(眞我)와 가아(假我) 등 언어적 분별 속에서 윤회와 해탈 · 식(識)과 경(境)의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린다. 무아와 윤회에 대해 논하면서 주체 없는 윤회라는 모순의 도식을 해명한다. 공(空)과 일심(一心)을 논하면서 유식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저자 역시도 불립문자의 경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불교를 언어로 풀어내는 데 발생하는 난



감함을 글의 곳곳에서 피력한다.

저자는 "중생을 피안으로 건네줄 수단은 결국 언와와 문자이다. 피안에 이른 뒤에는 버려져야 할 것일지라도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의 배를 타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이 책을 써야만 하는 그리고 쓸 수밖에 없는 사명을 해명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란 언어와 문자로써 교(敎)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선종(禪宗)의 입장을 표명한 표어다.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인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바로 보아 부처가 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상에서 흔히 말문이 막혔을 때 사용하는 '언어도단'은 사전적 의미로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저자는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면서 불교에서는 말의 길이 끊어진 세계를 감싸 안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펼쳐 보인다.

저자가 불교적 관점으로 총 3장에 걸쳐 서술하는 선교겸수(禪敎兼修)를 통한 입선(入禪) · 동양 불교와 서양 현대철학의 비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생명 윤리와 생태학의 문제 등은 현대에 유용한 불교 논리학적 고찰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한자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철학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대전 선사가 직접 체험한 반야를 보여주는 체험서



禪에서 본 반야심경
대전 · 요통(大顚 · 了通)원저 | 현봉(玄峯)역주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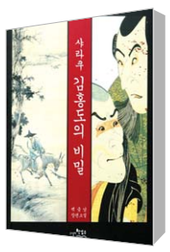
송나라 때 대전요통 화상이 주해한 책으로 수십 종의 <<반야심경>> 주해서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 <禪에서 본 반야심경(大顚和尙注心經)>이 출판됐다. 사전적이거나 교학적인 주해서가 아닌 대전 선사(大顚 禪師)가 직접 체험한 반야(般若)를 구절구절마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체험서이다.

오늘의 문명사회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갈수록 그 양상이 다원화되고 변화는 가속화되어 간다. 이리하여 우리는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며 온갖 편리와 풍요를 얻게 됐다. 우리가 물질문명의 풍요 안에서도 빈곤함을 느끼고 갖가지 사상의 범람 속에서도 갈등이 멎지 않으며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눈을 바깥으로 향해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을 향해 주시하도록 해 우리들의 삶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됨을 일깨워주는 금언집이 있다.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은 260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으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응축시켜 전 세계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이다. 한 두 구절은 읊조릴 정도로 대중적인 경전인 <반야심경>은 주해서도 수십 종에 달한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교(敎)와 선(禪)이 둘이 아니라는 말을 체득하고, 교학에 머물던 이가 마음 법을 깨달아 선수행자로 환골탈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나은 기자

문헌학적 근거통해 밝혀가는 소설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
백금남 지음
한강수 펴냄 | 1만2000원

일본의 천재화가 도슈사이 샤라쿠, 그가 김홍도였다면?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은 위와 같은 가설을 토대로 문헌학적 근거를 통해 밝혀가는 역사 추리소설이다. 조선 후기 제일의 화인 단원 김홍도가 스승 표암 강세황을 만나 그림을 배우고 마침내 도화서에 들어가 정조의 총애를 받게 되기까지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사랑이 제자 조희룡의 눈을 통해 되살아난다.

빈센트 반 고흐의 마니아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바로 일본의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다. 라파엘로 ·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세계 3대 초상화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유럽 인상파 화가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하다.

김홍도가 도슈사이 샤라쿠라는 가설이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실제 이 둘의 화풍이 닮았다는 점이다. 일본사에 있어서도 교토의 상층 쵸닌(町人)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 28점을 들고 에도의 극장가에 홀연히 나타나 140점의 작품을 남기고 10개월 만에 사라진 미지의 인물이 전해진다. 이 둘은 18세기 동시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며 보다 구체적인 신빙성은 일본에서 샤라쿠가 출몰할 당시 조선에서 김홍도의 행적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소설은 뛰어난 예술적 안목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김홍도가 어느 날 사라지면서 시작된다. 저자의 호기심 '만약'에서 시작된 가설이 재구성해 꽃 피운 무한의 상상력을 통해 조선 예인들의 삶을 그려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인과경	현담	선
4	이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	이경애	아름다운 인연
8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9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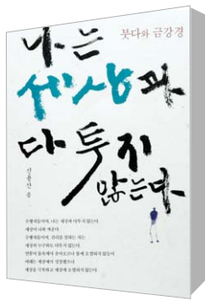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대웅전 건립불사
천 선 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부처님의 견해로 '금강경'을 들여다보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신용산 지음 | 한걸음 더 펴냄 | 1만 2000원



초기불교 교리 · 대승정신 두루 조망한 새로운 해석
한역본의 '어투' 거의 안보여…핵심교리들 별도로 설명

<금강경>의 가르침은 읽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밥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이 밥맛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사람마다 밥맛을 다르게 표현하듯 <금강경>도 사람마다 다르게 읽고 이해한다. 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

그래서 <금강경>의 해설서가 즐비하다. 다른 경전들의 해설서도 있지만 유독 <금강경>은 해설자가 많다. '53가해'는 53명의 선지식들의 <금강경>풀이다. 그 가운데 역사를 거치며 가장 빼어난 해설로 꼽혀 온 다섯 선지식의 풀이를 <금강경오가해>라고 하지 않는가. 5세기 이전의 무착과 세친 형제도 이 경을 주목했고 중국 역경사의 두 기둥으로 추앙 받는 구라마집과 현장을 비롯해 보리유지, 진제, 급다, 의정 등도 <금강경> 번역의 대열에 동참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 중국 티베트 한국 등에서 <금강경>을 주석한 책은 8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금강경>은 시대를 관통하는 스테디셀러인 것이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에 들어가는 <금강경>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관점에서 번역되고 주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금강경> 번역과 주해는 거의가 선(禪)의 안목에서 이루어졌다. 53가해도 선사들의 풀이여서 지극히 선가적 풀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우 활달하고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번번이 드러나는 주해였다. 또 아주 아름다운 게송의 형식을 빌어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자리를 펼쳐 보임으로 무한한 공(空)의 경지를 일깨우기도 한다. 그러나 선가의 <금강경> 풀이는 선수행의 바탕과 이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다. 그러나 다른 경전과 달리 초기불교의 기본 가르침(교리)을 두껍게 깔고 있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간직하면서도 대승불교의 정신을 드러낸 경전. 그런 <금강경>이 선가의 입장에서만 풀이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 신용산(사진)씨가 '피로 쓰듯' 생산해 낸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는 <금강경> 풀이다. 이 책이 주목되는 것은 <금강경>을 대승의 사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확대하여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천착하여 풀었다는 것이다. '아함부'의 경전들과 앙굿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등의 초기경전들을 적극 활용했다. 물론 한역본 자료와 의상 스님의 글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한쪽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금강경>을 보고 있을까?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설한 <금강경>을 부처님의 견해로 읽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육성을 최대한 인용하고 부처님이 경을 설할 당시의 상황에 가장 충실함으로써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육성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한역본에서 접했던 '금강경식 어투'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만큼 읽기가 쉽다. 책의 중간중간에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어 초심자에게도 명확한 이해의 길을 안내한다.

부처님 입멸 후 최소한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금강경>이란 경전에 시간을 초월해 부처님의 체취를 담아내는 작업. '부처님의 일대기를 제대로 써 보겠다'는 원력으로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탐독한 지은이의 정성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은이는 <금강경>의 해설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다시 해설서를 쓴 이유에 대해 "불교의 수행과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위대한 논사나 수승한 선사라 한들 어찌 부처님의 견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들 후대에 성립된 경전이 어떻게 초기경전의 위상을 앞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지은이의 질문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7>

"누진 이상 아라한 모두 모여라"

가섭존자(迦葉尊者)께서는 그해 칠월십오일을 기(期)하여 왕사성(王舍城) 기사굴산(耆闍崛山) 필발라굴(畢鉢羅窟)에서 경전(經典)을 결집(結集)할 것이니 누진이상(漏盡以上)의 아라한(阿羅漢)은 모두 모이라고 공고(公告)했다.

부처님께서 종종 설법하시던 기사굴산의 필발라굴을 결집(結集)장소(場所)로 정한 까닭은 대중이 다 알고 찾아오기 쉽게 하려는 뜻이요, 소집(召集)하는 대중을 누진이상으로 제한(制限)한 것은 결집의 권위를 격상(格上)시키기 위함이리니, 누진이란 견도혹(見道惑)과 수도혹(修道惑)의 번뇌를 다 끊은 아라한(阿羅漢)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명예(名譽)로운 자리라면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無條件)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 더구나 천하에서 가장 청정(淸淨)을 숭상하는 집단(集團)이라고 자부(自負)하는 고오타마[瞿曇]의 문하에서도 그렇듯 체면 없는 비구들의 틈입(闖入)을 걱정해야했을까.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社會)와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아냥거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단(敎團)집회(集會)의 한 격식(格式)이었다. 예(例)컨대 월례법회(月例法會)인 포살(布薩) 때에도 계사(戒師)는 등단(登壇)하자 먼저 시중(時衆)에게 묻는다. "이 대중은 청정(淸淨)한가. 오지 않은 비구들도 이 모임을 청정하다고 하던가. 그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欲]고 하던가" 하여 대중이 "그렇습니다" 하여야 설계(說戒)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정(淸淨)하다 함은 대중이 계(戒)와 정(定)에 결손(缺損)이 없다는 말씀이요, 참여하고 싶다[欲] 함은 외부인(外部人)들이 이 모임을 여법(如法)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니, 내부적(內部的)으로 청정도(淸淨度)가 구족하고 외부적(外部的)으로 신인도(信認度)가 보태진다면 바야흐로 청중법계(淸衆法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섭존자(迦葉尊者)의 공고(公告)에 따라 도처(到處)에서 수행하던 아라한들이 속속 모여들어 심사(審査)를 마치고 굴내(窟內)로 들어간 이가 이미 499명(名)에 이르렀고, 그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아난존자(阿難尊者)가 도착했다.

심사원(審査員)들은 아난의 세 가지 행적(行蹟)을 결격사유(缺格事由)로 들고 맹렬히 따졌으니, 마하파사파제부인(摩訶婆娑婆提夫人)의 출가(出家)를 허락하시도록 부처님께 권유(勸誘)하여 불법의 수명이 줄게 한 것이 하나요, 마음장상(馬陰藏相;男根)을 동네여인들에게 보여주어 부처님의 존엄성(尊嚴性)을 실추(失墜)시킨 것이 둘이요, 부처님께 석 달 동안 마맥(馬麥)을 대접하여 부처님의 복덕상(福德相)을 훼손(毁損)시킨 것이 셋이라 하였다.

가섭의 공고에 500비구 필발라굴 운집
아난, 7일간의 정진으로 대오 후 참여

그러나 아난은 일사불난(一絲不亂)하게 답변해나갔다. 첫째는 강보(襁褓)의 아기시절 어머니를 대신해서 길러 주신 이모(姨母)님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시라 할 수 없었다. 둘째는 동네여인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부처님에게는 그 물건이 애당초 없었다고 해서 그 소문이 먹혀드니 어쩔 수 없었다. 셋째는 전쟁(戰爭)이 나서 죽음이냐 마맥(馬麥)이냐를 택해야 할 상황(狀況)이었다. 그대들 같으면 어찌 했었겠는가.

대중 이런 문답으로 심사위원(審査委員)들도 더 이상의 까다로운 질문(質問)은 멈췄으나 최종(最終) 가섭(迦葉)존자(尊者)의 검증(檢證)은 미위무루(未爲無漏) 부득입회(不得入會), 즉 아직 무루를 얻지 못했으니 회장(會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아난은 어쩔 수 없이 마당 끝에 쭈그리고 앉아 불면불식(不眠不食) 칠일(七日) 만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자물쇠구멍을 통(通)해 굴내(窟內)로 들어가 극적(劇的)으로 청정해중(淸淨海衆)의 일원(一員)이 된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 불경 및 보리수 염주 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칩을 장착하여서 음향 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세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로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 입니다.
전자불경 + 108염주 · 단주 ▷50,000원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신심명 / 증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환단고기 전5권 / 법융선사 심명 / 선가귀감 /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심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창간 14주년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위치 : 서울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법당 : 28평	● 법당 : 20평
● 요사 : 52평	● 요사 : 38평	● 요사 : 150평
● 부지 : 300평	● 부지 : 167평	● 부지 : 700평
● 가액 : 6억	● 가액 : 10억	● 가액 : 20억
※사정상 급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사찰(중소도심)
● 대지 : 323평
● 기와법당 30평,산신각,종각 요사채,일주문,노천입불
● 신도조직 왼벽
● 칠서고속도로IC 5분거리
● 가액 : 3억6천만원 (은행 1억포함)

● 위치 : 부산근교 30분 거리
● 총평수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새
● 가액 : 4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3개.주방 1개.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임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 010-6582-2588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 관리지역 약 1350평
(전원주택지로도 가능,분할 및 평수 조절 가능)
● 전체부지 도로접함, 정남향
● 불사건축시 최저가 책임시공 및 성실업체 알선
● 양도가 : 15만원(평당)

010-9369-6899 (주인 직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시설 특 A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116-19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신구마 고속도로 IC에서 절에서 25분거리 경부고속도로에서 25분 언양에서 25분
● 법당 21평, 산신당, 칠성각, 요사채,컨테이너 박스1개
● 대지 321평 ● 가액 : 3억

055)353-3321
010-5189-200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 평수 : 6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용왕각 각각 25평
● 종각 : 5평, 요사채:30평, 창고 및 큰방 하나 사찰내 주차장 확보
● 가액 : 13억

010-5466-7813
055)322-8595

포교원 및 불교문화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1호선 구일역 5분거리
● 평수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살림집 40평 (옥상 150평)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 도심포교 및 각종 불교문화 사업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억원 월120만원 시설비 1억 8천 (보시 절충)

02)853-6010
011-9405-81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군포 안양 지역
● 평수 83평. 방4, 욕실, 주방, 냉난방완비, 모든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월 13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0-6271-99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조계종 스님에 한함
● 가액 : 절충 가능

051)245-7175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7-373-599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 동네 윗편 주용한 명당터
● 대지 209평, 전 64평
● (현)조립식주택,차량마당까지진입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6-537-6134
010-2208-4899

팬션 및 가든 수련원 최적지

● 위치 : 충주시내 10분 버스정류장앞 충주호 인근 남한강변 소나무숲언덕위치
● 대지 2462㎡. 건평 863㎡
● 가액 : 15억.국유림1500평
● 주차장, 텃밭사용 현, 팬션 및 가든 영업중
www.pungkyoung.co.kr

011-434-72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바다가 보여 보살님들 포교하기 좋은곳
● 평수 18평
● 삼존불,지장보살,신중탱화, 소불 모셔져있음
●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7930-16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위치 지하철 2분거리 (평지)
● 자연녹지 300평,건축 허가필
● 하천부지 약350평,법당40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2558-7131
011-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총평수 : 560평
● 한옥 임법당(27평) 산신각 1동, 단청필 요사채 35평, 창고 겸용
● 실외 화장실1동,주차장건물1동
● 조경수 및 돌탑조성,심야보일러 교통편리,주차무한정,주위경관 좋음 청량산도립공원, 울진불령계곡 각 30분거리
● 가액 : 1억9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 이전관계로 양도함

010-8868-9407
054)673-64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중앙시장 입구 황실 예식장 뒷편
● 건평 : 50평 법당 大1, 방 2, 욕실, 거실
● 보증금 500만원/월45만원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약간(방문절충)

011-572-8426
010-2676-6426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임야 전 대지 총 6000평
● 폭포계곡 서출동행수 사시사철 물 많은 사찰
● 소리, 그림, 공부하기 좋은 남향도량
● 가액 : 합의조절

010-4035-1255
부동산 사절

사찰및 요양원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국도에서 200m. 도로는 포장 되있음
①평수 : 임야 관리지역 18,479평 농림지역 38,294평 총 56,773평
● 단감나무 200주, 가건물 40평 지하수 200m
● 가액 : 5억 5천만원(급매)
②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7-570-1600

사찰전세놓으실분

● 가액 : 1억 7천만원 대
※ 부전스님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10-7425-08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장위동 드림랜드앞
● 평수 : 35평, 3층
● 보증금 1000만원,월30만원 시설비 별도

011-809-8876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기도 양수리(경전철있음)
● 평수 800평
● 전국에서 제일 큰 목 백합나무
● 양도가 : 4억 3천만원

010-4035-1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71-171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남면 남산리
● 평수 4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가액 : 3,000만원

011-9207-2488
010-2047-8376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국도변
● 부지 : 대지 150평 (실사용 평수 200평), 건물 2채,창고,욕실,화장실2개
● 마을 뒤 산자락 접함
● 가액 : 6천만원(시설일체포함)

010-9545-944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추풍녕 부근
● 대지 200평
1층 요사채 60평, 20평
2층 법당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일체비품비 포함)

011-9597-10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
● 연혁 50년,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 대지 250평, 전 730평(국유지)
● 법당 목조 17평, 요사채 황토 기와집, 방 5개, 등기필, 조립식 1동
● 가액 : 1억 5천만원

018-406-307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성불사
● 법당1, 주지실 따로 있음 방 3, 주방 1, 화장실 1, 별채, 마루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 5백만원(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7-801-8633
043)422-03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천구 목동 4거리 근방 도로 2분거리, 목동역 8분거리
● 2층건물중 2층 약 22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필요시 1층 사용가능 비구니 스님 환영

010-7287-4936
010-2679-11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일산동 950-3
● 60평. 시설A급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주차장 시설 완벽
● 보증금 3천만원 /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54)371-4657
011-527-700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 총 700평, 법당 17평(한옥) (내부 5평 임법당) 요사채 20평 마당잔디밭 약 200평
● 신축 5년, 주차장 별도
● 싯가 2억원 급 양도가 1억 5천만원
● 가정형편 및 자녀교육상 양도

011-772-47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 2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 20평 (삼존불 모셔있음)
● 방2,주방겸거실,단독 남,녀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에 월3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835-7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 신도 숙소 (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 가액 : 3억 5천만원

019-379-9999

최고의 시설(포교원)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뒤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80평(법당 40평 마루), 후원 20평(경치좋음)
●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 시설비 2,5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1-570-0144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위치 : 서울
● 부지 : 108평	● 대지 : 90평
● 법당 : 70평	● 법당 : 18평
● 요사 : 140평	● 요사 : 20평
● 가액 : 1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오전 약수탕
● 부지 : 총 3000평 이상(종교용지, 대지 500평)
● 시설 : 대웅전 춘양목으로 5포 7포집 25평, 요사채, 산신각, 서재, 누각등, 부엌, 최고급 단청마친지 6개월, 화장실 현대적
● 환경 : 호수 위에 위치하여 경치가 좋고 풍수완벽
● 가액 : 7억(절충가능), 총 불사비 15억 들었음

017-848-3330/051)335-312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504-6591

포 교 당 전 세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오곡동 공주시청 차로 7분거리
● 법당 20평, 산신각 17평, 요사채12평
● 이름있는 약수있음,정원조성좋음 차가 마당에까지들어감 산기슭에 위치하여 포교당으로 최적지
● 가액 : 1억 5천만원(전세)

011-424-3252

포교당(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약60평, 삼존불(동불),불단,삼성각(원목)등 요사 약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가격절충) 일부 융자 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삼성가 목조 5평 허공 산신각, 자연우물 용궁,상 목조,중 허공,하 거북 3탕(지하 암반수 110m있음),부속건물 5평 방1,차고1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산위에 단독있음, 도로포장 잘 되어있음,주차 30대 이상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산시 용성
● 대지237평,텃밭665평,모두 902평
● 법당 20평정도, 요사30평. 심야보일러, 동불 3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지장탱화
● 마당까지 차진입 ● 양도가 : 1억 8천 5백만원
● 위치 : 청도군 풍각면소재지,시내중심
● 대지70평,건물40평,입법당,방3, 주방, 욕실,수세식화장실,기름보일러
● 비구니스님 토굴로 적합.
● 양도가 : 6500만원 (급매물)

011-509-0124

염불達人

전병룡 위강원한의원 원장

"삼라만상 아미타불 화신"

소문난 위장전문 한의원인 서울 위강원한의원. 10월 4일, 토요일임에도 오후 5시까지 밀려드는 환자로 한의원은 분주했다. 홍원(弘願) 전병룡(全炳弄, 57) 원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스님들보다 치열한 정진으로 염불행자들의 사표가 되고 있는 선지식이다. 늘 자비로우면서도 빛이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환자와 수행자를 대하는 홍원 거사는 1주일에 두 번은 삼각산 토굴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3일 단식을 한다. 하루 1~2시간만 자고 오후불식과 채식을 하며 열심히 일하는 엄청난 정진력은 염불삼매를 통한 법희선열(法喜禪悅)을 누리기에 가능한 일이다.

1978년부터 3년간 태백산의 숨은 도인이었던 향성 스님(1985년 104세에 입적)을 만나 염불을 배운 그는 서암 스님을 20여년간 모시고 '무자 화두'를 참구하는 등 당대의 고승들을 친견하며 공부했다. 1989년 청화 스님을 만나 유발상좌가 된 그는 2002년 음력 11월 보름, 아미타불 3000일 기도를 봉행하던 중 일천 일쯤 지난 때, 염불삼매와 공(空)을 체험했다.

2006년 12월, 정종회(淨宗會)를 창립해 염불 수행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홍원 거사로부터 일상속의 염불수행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치열한 정진 염불행자들의 사표
내안 법신불 알면 염불심 이어져

–현대인들에게 염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염불은 번뇌속에서도 공덕이 있고 업장소멸이 되는 수행입니다. 염불을 통해 일념-삼매로 들어가고, 계정혜 삼학이 저절로 갖춰지게 되죠.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악연이 물러가고 선연이 찾아옵니다. 나아가 미혹에 싸여 오욕락에 허덕이던 사람이 누구의 칭찬이나 비방에도 상관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우주와 더불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염불은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길인 동시에 현실에서 극락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장 빨리 성불하는 길이 염불입니다."

–초보자가 염불할 때의 자세를 말씀해주세요.

"<법화경> <화엄경> <정토삼부경> 등 대승경전을 깊이 믿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마음을 두고 염하세요. 처음에는 정견이 서야 바로 공부가 됩니다. 사성제와 12연기만 제대로 알아도 인과를 알기에 죄업을 짓지 않아요. 진정한 참회를 통해 보리심을 발해야만 죄업을 뚫고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염불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때 초심자는 '나무'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절한 갈앙심(渴仰心)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수행이 깊어져 염불삼매에 들려는 수행자는 '나무'를 빼고 '아미타불'만 빠르게 외워 번뇌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행자는 번잡한 세속인연을 정리하고 혼자 정진하는 시간을 늘여야 합니다. 염불할 때는 세수라도 하고 심신을 청정히 한 후 조명이 밝고 청정한 곳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마장(魔障)을 막는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는 어떻게 염불합니까.

"일상속의 염불이란 생활 가운데서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설혹 잠깐 잊더라도 다시 염불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법신불을 알게 되면 염불심이 안 끊어지며, 저절로 계정혜 3학이 구족되고 6바라밀이 닦여집니다."

–재가자들이 계정혜 3학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먼저 계가 이뤄져야 정, 혜가 이뤄집니다. 계정혜가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삼매는 이뤄지지 않아요. 수행이 깊어지면 육식과 음주는 물론이요 식용유 조차도 청정한 세포의 불성 발현에 장애가 됨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키게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육진(六塵) 경계를 끊어야 합니다. 악업이 쌓이면 유유상종의 업연이 가속도가 붙어 쌓입니다."



–염불을 오래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마음 자체가 허공 법계와 같아져 지혜롭고 자비스러워집니다. 인체가 우주 허공법계와 공명 돼 무명을 깨뜨리고 밝아집니다. 깊은 삼매속에서 화엄 · 법화의 세계를 실제로 보게 되고 불퇴전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나라는 게 진실로 없음을 느끼게 되고, 공(空) · 무상(無相) · 무원삼매(無願三昧)를 얻게 되지요. 철저한 공에 들어가 삼신(법신 · 보신 · 화신)이 일불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부처님과 삼라만상, 우리 자신이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지구촌이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IMF관리체제 환난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심성이 메말라 사회적, 종교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치성하는 번뇌 · 망상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말법(末法)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희로애락의 세간사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서 삶의 주인이 되어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삼계에 살면서도 삼계를 벗어난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활속 수행의 달인들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 주〉

간화선達人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재가자 수행은 본업 전념"

"재가자의 수행은 근무시간에 화두를 들거나 아무 때고 참선삼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업에 100% 전념하는 것입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53) 교수는 SCI 등재 국외학술지에 14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13명의 박사를 양성한 한국 물리학계 거목이다. 재가수행단체 '선도회(禪道會)' 지도법사를 맡아 11명의 법사도 배출했다. 한 사람이 평생해도 다 못할 업적을 이뤘다는 주변의 평가에 박 교수는 "모두 선정력에서 나온 것"이라며 참선 수행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교수와 법사를 오가며 30여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 한 시간, 잠들기 전 한 시간 수식관(數息觀)으로 산란한 마음을 잡고 화두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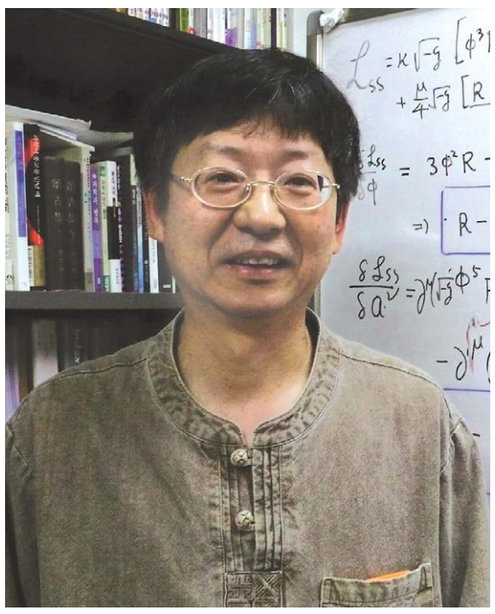
"참선을 마치는 5분은 꼭 하루 일과를 계획 · 정리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지혜가 생기고 정신집중 효과로 매사에 100% 매진할 수 있습니다." 선 수련 10년 후부터는 분별 망상이 사라졌다는 그는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다. 박 교수는 연구 중 문제가 생기면 화두로 삼고 아무 곳에서나 두 다리를 틀고 앉아 심호흡을 하고 화두를 참구한다.

박 교수는 유복한 집안의 2대 독자로 태어나 어린 시절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성당을 다녔다. 그가 불교와 인연맺은 것은 서강대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이공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1년 후 "나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학문은 무엇인가"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의 타파가 절실했다. 해답을 찾고자 서점의 모든 책을 섭렵해갈 즈음 우연히 <숫타니타파>를 접했다. 이후 <숫타니타파>는 그를 진정한 간화선의 세계로 이끌어준 첫 경전이 됐다. 박 교수는 여러 불서를 섭렵하고 서강대 불교학생회 '혜명회(慧命會)'에서 활동하며 '선도회'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1905~1990) 노사와 인연을 맺었다. 박 교수는 종달 노사 입적 후 스승의 유지를 이어 현재까지 선도회 제2대 법사로 간화선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생활 하는 재가수행자는 1년 정도는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수행의 기틀을 잡아야 합니다. 수식관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입실점검, 이메일 문답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누구나 불조(佛祖)가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가 말하는 수행은 어떤 것일까? 그는 "수행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인공이 돼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깨어 있는 삶 자체"라 말했다.

박 교수가 가르치는 서강대 '참선' 과목은 10년 장수 과목이다. 취업난 등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극에 달한 때 '웰빙수업'으로 호응이 크다. 박 교수는 "현재, 미래의 인생지도 그리기로 수업을 시작한다"며 "지도를 갖고 있어도 자신의 현 위치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를 찾을 수 없듯 참선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현 위치를 확인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고 설명했다.



선도회 지도법사, 법사 11명 배출
언제나 주인공 되는 삶이 '수행'

요즘 박 교수는 높은 수행 법력으로 소문난 인기 강사가 됐다. 최근 동국대 불교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전문직을 위한 생활참선'을 강연한 것을 비롯해 200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명상과 과학' 강의를 진행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줄탁동시(啐啄同時), 수처작주(隨處作主) 등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불교의 가르침이 최근 경제 현실을 해결하는 키워드라는 설명이다. "과학은 체득의 종교인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 역사 150억년 동안 하나의 조건이라도 달랐다면 오늘날 인류가 존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 365일 좋은 날이 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상인은 장사를 잘해 돈을 버는 것이 선(禪)입니다. 농부는 좋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선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선이지요."

일본 세키 보꾸오 선사의 말처럼 화두나 공안, 참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나투면서 100% 본업에 몰두하도록 하는 수단이 선(禪)이라는 게 박 교수의 수행관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불자정보

701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신천지하철역
- 건평 4층건물중 3층(4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별도 3천만원
- 시설완벽,비품 일체 양도

010-8676-7107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 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010-5013-2526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사 찰 안 내
- 경남 의령군 부림면(용암사)국도에서100m
  대구에서 1시간, 진주에서 1시간,
  창녕에서 25분, 부산에서 1시간 20분
- 대지 약 400평(현싯가 평당 30만원)
- 건물 : 법당(15평) 목조기와 4불상
  요사채 33평 기와스라브 신축
  (평당300만원 소요)
  석축 옹벽조경 공사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 3천만원 급매 특별할인 몽땅 1억 6천
  (융자 5천만원넣수 있음)

011-9329-4241(법사)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안지랑이4거리
  안지랑지하철 1분거리
  시내 버스정류장입구,앞산아래
- 평수 : 약40평,3층 중2층전체
- 구조 : 법당,공양간,방2,세면장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355-37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건물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
- 가액 : 5억

011-9114-9935

탈 종 공 고

● 법 명 : 보 덕

● 속 명 : 김태덕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위빠사나 達人

김미숙 논술학원 운영

"알아차림으로 놓는 연습"

고요하게 몸, 감각, 마음, 법(法)을 관찰하는 위빠사나가 국내에 보급된 지 어언 20년. 그동안 저변도 넓어졌고, 깊은 수행력을 얻은 수행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포항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의 아내로서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김미숙(39) 보살이 그런 수행자 중 한 명이다. 평범한 주부이자 생활인이지만, 위빠사나를 접한 지 불과 4년 만에 일상속에서 삼매를 체험하며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다.

포항 관음사(주지 임대) 신도인 그는 2004년 12월 불교TV에서 김열권 법사의 '체험, 붓다의 수행법'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다음 해 12월, 천안 호두마을에서 김열권 법사의 지도로 집중수행을 시작한 후 남양주 봉인사와 조치원 지장사에서 잇달아 집중수행을 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가정 및 직장을 오가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마음챙김 수행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로부터 일상속의 수행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 하루 이틀만이라도 집중수행에 매달 참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현실에서 자신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 꾸준히 수행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음식, 생활 등이 저절로 간소해지면서, 자성을 찾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경계나 지루함에 중도포기 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물론 수많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문제점들, 자신의 반응, 인식의 변화들, 그것의 원인들을 보면서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이 생에서 후회없이 수행하겠다는 원력이 모든 장애들을 이겨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을 마음챙김할 때 놓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처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동안 놓치고 알아차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놓쳤다고 생각하면 그 놓친 것을 알아차림하고, 다시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면 되거든요. 화, 죄책감, 공포, 우울, 무기력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생각, 모든 현상, 모든 인식 들을 놓치더라도 그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면 되니까요."

-일상생활속에서는 어떻게 마음챙김합니까.

"일상관찰에서 처음에는 몸의 움직임에 주로 관찰이 되더군요. 구부릴 때 허리 근육의 변화들, 몸을 돌릴 때 가슴과 어깨의 변화되는 선의 변화들 같은 것들요. 그러다 조금 지난 후에는 느낌의 관찰, 즉 물이 손에 닿을 때의 느낌, 글을 쓸 때 펜과 칠판이 닿는 단단한 느낌 들이 관찰되면서 그때그때 강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관찰되지요. 지금은 현상이 부딪힐 때, 그 전후의 상황을 연기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할 때나, 운전할 때, 독서할 때의 알아차림은.

"수행초기에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몸의 움직임과 말할 때 아는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구요. 지금은 현상의 연기적 관찰에서 그때그때 각기 다른 주 대상이 잡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차림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현상이 사라지는 순간순간을 관찰하며 강의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관관계를 무의식 관찰 중심으로 보고, 몸이 힘들거나 알아차림이 성성하지 않을 때는 호흡을 깊이 하며 발바닥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변화를 보는데,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법의 관찰로 바뀌 관찰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호흡의 움직임을 잡을 때도 있고, 책 내용에 반응하는 인식의 상태 또는 현상의 부딪힘을 순간적으로 보면서 관찰을 이어갑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찰나삼매에 드는 순간이 자주 있는데, 이때는 정혜(定慧)가 잘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수시로 점검해나갑니다."

-잠이 들 거나 깰 때, 입선하거나 방선할 때의 요령은?

"잠자리에 들때 호흡수련이나 오체투지 또는 좌선 무엇이든 자신의 상태와 주변환경에 맞는 수행을 잡고 좀더 알아차림을 일깨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에서 나올 때, 보다 선명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수행을 잠깐의 시간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일상에서의 마음상태가 한결 안정되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이나 불행은 과거 기억을 인식이 꽉 잡고 있어서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빠사나에서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나가면 그런 것들을 매순간 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태에 집중하여 알아차림을 반복하게 되고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스승에게 꾸준히 수행점검 받아야 놓친 것 다시 알아차림 하면 돼



보현행 達人

이종린 홍익소아과 원장

"수행법 귀착지 보현행원"

"보현행원은 긍정 · 찬탄 · 공경 · 회향으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해주는 수행입니다. 밝은 빛과 같지요."

서울 홍익소아과 이종린 원장(54 · 普賢)은 병원을 찾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관음보살과 같은 포근한 인상으로 편안히 대하며 생활과 수행을 병행하는 보현행자다. 불자라면 참나를 찾고 내안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참선 · 능엄주 · 절수행 · 염불 등 다양한 수행을 해봤을 것이다. 이 거사는 이렇듯 다양한 수행법의 귀착지가 바로 보현행원(普賢行願)이라고 말한다.

"수행자들은 절에서 절하고 참선하고 공양올리고 나면 정화가 되다가도 집에 오면 도루묵이 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삶과 수행을 분리해서 그런 거예요."

보현행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장서 온 이 거사는 현재 인터넷 까페 '화엄경 보현행원(cafe.daum.net/bohhyun)' 운영자로 활동 중이다. 조계사 · 불광사에서 보현행을 강의했고,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세간 속에서 해탈 이루리> <실천 보현행원>등의 저서를 펴냈다.

하지만 이 거사가 처음부터 보현행을 실천 한 것은 아니다. 불교집안에서 자라 유년시절부터 불교를 접했고 1974년 서울대 의과대 1학년 재학 중 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했다. 그는 1978년에 보현행원을 처음 만났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수행법이다' 고 우습게 여겼다고 한다. 위대한 경전인 <화엄경>에서 남을 칭찬하고 참회하는 것이 전부인 행동을 최고의 수행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이후 이 원장은 20년간 운허 · 탄허 · 월산 · 고암 · 구산 · 청화 · 혜암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구도의 길을 걸었다. 먼 길을 돌아갔던 그는 결국 1994년 불혹의 나이에 '널리 바치고 섬겨라' 는 광수공양(廣修供養)이라는 <화엄경> '보현행원품' 구절을 접하고 감흥을 받았다. 이로써 보현행원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보현행원의 핵심은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임을 아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거나 깨달아 부처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부처님을 공경 · 찬탄 · 공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보현행원은 다른 수행법을 응용 · 발전시킨 것이 아닌, 화엄불교의 본래 수행법이다. 보현행원을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대개의 가르침이 '우리는 부처다' 라고 하는 본래불의 선언으로만 그치는 반면, 보현행원은 부처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준다.

보현행원의 수행법은 간단하다. 첫째, 행마다 '원(願)' 을 세운다. 원이 없으면 제대로 수행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은 수행도중 흔들리기 쉬운 목적과 방향을 뚜렷이 잡아준다. 둘째,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섬기고 모시겠다(공양)' 의 첫 글자를 딴 자칭 '고잘미섬공' 을 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지어주세요. 가장 좋은 쌀은 경기미 · 이천미도 아닌 '고잘미' 입니다."

부처로 사는 구체적 지침 줘 큰 번뇌 녹이면 큰 깨달음 와



이 거사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에게 항상 당부 하는 말이다. '고잘미'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 거사는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즉시 흡수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스펀지를 채우는 책임은 부모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이 거사는 보현행원 수행으로 변화된 점이 많다. 부처님을 공경 · 찬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졌던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고 상대를 향한 공경심이 생겼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를 부처 대하듯 공경하게 됐다.

그는 보현행원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보현행원 이론을 공부하고, 직접 실천해야만 그 속에 담긴 뜻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사는 삶과 수행을 훨저히 하나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머리로 고민하는 기존 불교계의 보현행원 해설은 행원을 단순한 윤리규범 차원으로 해석해 궁극의 진리와 보현행원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것. 반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보현행원은 윤리 규범뿐 아니라 궁극의 진리를 설하는 수승한 가르침이라는게 이 거사의 주장이다.

어떤 수행, 어떤 가르침과도 대립이 없는 가르침인 보현행원. 생활 속 수행 '보현행' 을 통해 보현행원 수행법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요즘처럼 경제난으로 큰 번뇌가 밀려올 때 감사하게 받으라고 한다.

"번뇌는 물과 얼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싶으면 큰 얼음을 녹여야 하듯, 큰 번뇌를 녹이면 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고무신코 만행화
2008년 9월 5일 ~8일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쪼극/예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사계절단화
지압동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 록 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주력 達人

강선희 주부
"가장 큰 수행 효과는 행복"

수행하려면 자세·몸부터 완성해야
긍정적으로 수행하니 삶 여유로와

"능엄주를 하게 됐을 때는 몸에 익숙치 않아, 입술이 터지고 고열에 시달렸어요. 모든 수행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야 하죠.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자세부터 제대로 알고 몸부터 완성해야 해요."

능엄주 주력 수행으로 유명한 강선희(46 · 선명화) 보살. 강 보살은 "주력 수행을 비롯한 모든 수행에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앉은 자세부터 호흡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몸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능엄주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긴 다라니로, 발음하기도 매우 어렵고 외우기도 힘이 든다. 강 보살은 하루 400~500독, 매일 16시간 이상씩 주력 수행을 해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준 바 있다. 그녀는 현재 주력 수행뿐만 아니라 위빠사나, 간화선, 티베트불교 수행 등 폭넓은 수행을 하고 있으며, 조계사 · 불광사 등 전국 사찰과 기업 등에서 수행경험을 강의한 바 있다.

그가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친정어머니의 좌탈입망이 큰 계기로 다가 왔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어머니의 청정하신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싶어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수행에 뜻을 두게 됐습니다."

발심을 한 뒤 그녀는 인근 사찰들을 찾아다녔다.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여러 경전을 외우기도 했지만 구도의 갈증은 심해질 뿐이었다. 그러던 중 자주 다니던 봉은사에서 21일 기도를 회향하고 내려오던 길에 그는 <대불정여래 능엄주>를 발견하게 된다.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는 최상승 수행법 중 하나가 <대불정능엄신주> 독송'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 이것이다'하고 느낀 거죠."

능엄주 주력 수행을 마음먹었지만, 만만치 않았다. 그는 "처음 능엄주를 하게 됐을 때는 입술이 다 터지고 고열에 시달렸지만 차차 깊은 호흡으로 능엄주를 하게 되고, 안정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기록해, 다음 수행 시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세를 바로잡고, 메모를 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자, 능엄주 속도가 빨라졌다.

"하루에 108독씩을 100일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주력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8독을 하는 데 하루에 16시간 걸리다가, 매일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4시간 만에 108독을 마칠 수가 있었고, 하루 400~500독 씩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속력으로 수행한 지 9일째 되는 날(입재 후 38일째) 몸이 뜬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몸이 사라지고, 외부에서 다라니가 들렸다. 이 상태가 2박3일동안 지속됐다"며 "이후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화두로 들어왔다. 큰스님들께 화두를 받아도 안 되던 것들이, 실참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게 됐다"고 말한다.

강 보살은 그후 위빠사나 수행 3년, 티베트불교의 오체투지 10만배, 만트라 10만배 공양 5년 등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찾아다니며 경험했다. 능엄주 수행이 행주좌와(行住坐臥) 계속 됐음은 물론이다.

강 보살은 수행의 가장 큰 효과는 행복이라고 말한다. 수행을 하면 필요 없는 마장이 스스로 정리가 되기 때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됨으로서 주변인들까지 행복해 진다.

"수행을 하면서 나부터 밝아지니, 집안일도 잘 풀리고 남편도 행복해졌죠. 자식들도 부모가 밝은 모습을 보이니, 공부도 잘하는 등 모든 일이 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어요. 긍정적 사고를 갖고 매일 수행하다보니 결핵 등 앓았던 지병도 사라지고 삶자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반불자들이 능엄주 주력을 막상 시작하기엔 힘든 구석이 있다. 바쁜 생활 중에 계속 수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수행법을 찾은 후 그것에 맞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달라이라마께서는 '우리의 몸은 마음을 싣고가는 수레'라고 표현했다. 3 · 7일이면 몸의 습관이 바뀐다. 바쁜 생활 중에도 잠시 삶에서 벗어나 수행에 매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과 만트라 등 하나를 정해, 제대로 알고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경우 능엄주 수행이 기본 바탕이 되었듯, 하나를 제대로 하면 모든 수행이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웃집 아줌마 같은 푸근함이 느껴지는 그의 마음속은 수행으로 얻은 행복이 가득 차 있다. 주력 수행으로 힘을 얻었지만, 강 보살은 스스로를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머무는 바 없이 정진하는 그 모습에서 수행자의 하심과 끝없는 발심을 본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경 達人

강충모 세무사
"매일 부처님 만나듯 사경"

'법화경'으로 사경 수행 인연
성현 말씀 집중하면 삼매경 보여

"사경(寫經)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외길을 걷는 수행입니다."

세무사 강충모(64) 거사는 사경 수행을 시작한지 10년차 된 사경의 달인이다. 사경 수행법을 만난 후 새로운 인생 설계에 여념이 없는 그는 스스로 달인이라는 호칭이 과분하다고 말한다. 사경 행자 강충모 거사. 그의 일상에서 보현보살의 인행을 엿보았다.

큰스님 수필집만 즐기며 무늬만 불자였던 강 거사, 그와 사경 수행의 첫 인연은 10년 전 첫눈이 오던 날 시작됐다. 반대편 차의 부주의로 큰 접촉사고가 났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 고소 준비를 하기에 이른다.

부조리한 피의자의 횡포에 억울해 하던 그에게 지인이 건네준 <법화경>은 마음을 울렸다. "모두 용서하라"는 부처님 음성이 가시 돋친 마음을 다독여 준 것이다. 그리고 강 거사는 피의자를 선처했다. <법화경>을 통해 사경 수행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사경 공덕에 대해 <법화경> 법사품에는 '선남자 선여인이, 경의 한 구절이라도 완전히 파악해 수지 · 독송 · 해설 · 서사하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한 대보살임을 알라(善男子 善女人 於法華經 乃至一句 受持 · 讀誦 · 解說 · 書寫 種種供養經, 此人是大菩薩 成就阿多羅三三菩提)'"고 이른다.

"대부분 사경은 횟수를 강조하더군요. 30회 가량 <법화경> 사경할 때였나 봅니다. 불교TV에서 강연하는 김경호 사경연구회 회장을 뵙고 지금까지 해온 사경은 흉내에 불과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쌍구(雙鉤)법이라고 하지요. 가늘고 얇은 쌍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그 가운데를 채색하는 데 한문 모사본 뜨기만 3개월을 했습니다. 필체 맛은 고사하고 테두리만 그리는데 인내심을 시험하더군요."

처음에는 한문 세대라는 강점을 등에 업고 붓펜 한문에도 자신감이 있던 터라 사경이 만만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 사경은 그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획이 이동하는 각도를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접필 · 운필 · 마무리 등 붓의 가는 모양과 형태를 익혔다. 한 획씩 가르침을 받을수록 사경에 담긴 심묘법이 전해졌다.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 부처님을 발견해 되뇌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여백을 메워 나가는 것이 바로 사경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환희심이 났다.

붓글씨의 매력을 상상하고 입문한 이들도 이틀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강 거사는 묵묵히 걸어갔고 드디어 붓을 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다.

그는 사경 수행을 하는 동안 경험한 부처님 가피담을 털어놓았다. 아내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던 숨 가쁜 기억이다.

"금년 가을 초입 아내가 급성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아내는 급속한 쾌유를 보였고 경과도 좋아 하루 만에 퇴원했어요. 모두들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며 축하해줬죠."

강 거사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 고수부지로 향한다. 매일 1시간씩 산책로를 걸으며 못 다한 대화를 나누느라 마냥 즐겁다.



의상 조사의 <법성게> 가운데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 글귀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은 무량겁의 일념'을 되새기며 상즉의 화엄세계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직업의 성격상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는 그는 먼저 마음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한다. 그러다보니 다툼이 없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도 유명하다. 얽매임 없이 맡은 바 책임감을 지닌 전문가들과 동행한다는 경영 철학을 고수한다.

강 거사의 사경 작품 '법성게' '불설존승다라니'는 청계천문화관에서 10월 19일까지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사경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신심과 원력이 장엄한 총 60여점의 사경 작품을 선보이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원전이다.

"성현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다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본래 여여한 삼매경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경 공덕을 실천하는 강 거사는 삶의 곳곳에서 행원력을 발휘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나를,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누구인가?"

강 거사는 오늘도 퇴근 후 술 약속을 일체 사양하고 집으로 향한다. "붓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빨라지고 반드시 오자와 탈자가 생기죠. 사경 자체가 마음 거울을 닦는 과정인 셈이지요."

매일 2시간씩 사경 수행에 정진 중인 달인은 붓끝에 현현한 화두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독경 達人

김희종 도서출판 공경원 대표

"믿음·공경심 갖고 독경"

"<금강경> 독송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느냐가 중요해요. 경전에 지극한 믿음과 공경심을 갖고 부처님께 직접 법문 듣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희종 거사(48 · 도서출판 공경원 대표). 그는 <금강경>과 만난 지 40여년, '제대로' 읽기 시작한지 20여년 된 '<금강경> 독송의 달인'이다.

경북 왜관의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 거사는 추위가 매서운 겨울에도 새벽마다 부친과 함께 흥국사에 올라 약수터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예불하며 자랐다. 예사롭지 않은 불연이지만 어렸던 김 거사에게 불교는 어렵기만 했다.

김 거사를 부처님 품으로 인도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를 괴롭힌 말더듬 습관이었다. 김 거사가 ROTC 장교로 군복무 하던 때다. 부대원 수백 명을 앞에 두고 구령을 붙이는데 '부대 차렷'에 이어 나와야할 '경례' 소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곤욕을 치뤘다.

신체적 단점에서 비롯된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김 거사는 암시법, 초월명상, 위빠사나 등 수행에 집착했다.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며 방학이면 산사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홍익대 교수)를 만났다. 눈이 번쩍 뜨였다.

"<금강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도반의 안내로 바른법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김원수 법사님이 <금강경>을 설명하는데 구절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수행한다며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 이래서 선지식과의 만남을 일대사인연이라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는 "선지식(김원수 법사)의 설법을 듣고 나니 <금강경>에서 수보리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하듯 환희심이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읽으면 좋다기에 뜻도 모르고 읽던 <금강경> 내용을 알고 읽으니 재미가 났다. 독송 소리는 천상의 선율처럼 들렸다.

당시 경기 광명시의 집, 서울 신림동 학교, 경기 원당의 법당을 매일 오가며, 자시(子時, 밤 11시~새벽 1시)마다 <금강경>을 7회씩 독송하는 '자시 가행정진 기도'도 했다. 3년간 <금강경> 독송에 매진하던 어느 날, 김 거사는 수보리존자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체루비읍(涕淚悲泣)'하듯 눈물이 북받치는 경험을 했다. 그 후 평생을 괴롭히던 말더듬 습관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겠다(我皆令入 無餘涅槃)'라고 말씀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모든 분별과 갈등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김 거사는 "'모든 형상들은 다 거짓이고 헛됐다(凡所有相 皆是虛妄)'는 구절은 내 생각, 견해는 모두 틀렸다는 말이다. 내 뜻대로 하면 재앙이 되고, 부처님에게 맡기는 것이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풀이했다.

그는 <금강경> 독송으로 얻은 지혜와 가피에 안주하지 않고, 하심(下心)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한식집을 겸한 무료급식소인 '하심정(下心亭)' 자원봉사는 <금강경> 이론을 실참실수(實參實修)하는 수행처인 것이다.

김 거사는 "하심정을 운영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탐심(貪心)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어날 수 있는 진심(嗔心)을 점검한다. '<금강경> 마인드 경영'을 준비하며 공부를 계속하니 치심(癡心)도 일어날 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 그는 '스스로 하심정에 출가한 사람'이라 말한다.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봉사도 했으니 이젠 고귀한 가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그는 스승 김원수 법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해 초 22년 교직생활도 정리했다.

"업장이 태산 같다는 말을 출가하려니 알겠더군요. 가족, 친지는 물론 도반들도 출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흔들렸던 김 거사를 말없이 지켜본 이는 김원수 법사였다. 김 거사는 "누구나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식"이라 강조했다. 김 거사는 "아직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선지식 만나기를 발원하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면서 큰 나무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발원은 신심과 원력으로 작은 싹을 틔워 큰 나무로 키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20여년간 <금강경> 독송으로 키운 그의 발원은 하심정의 대들보가 됐다. 반야의 지혜가 만행화(萬行花)로 활짝 핀 그의 발원은 오늘도 미소로 손님들을 맞는다. (02)337-1636

'금강경' 뜻 알고 읽으니 환희심
안주하지 않고 무주상보시 실천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절 達人

박종린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내안 불성 찾아가는 몸짓"

"10여 년 전 100만배 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절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절하다보니 2007년 12월 300만배를 돌파했고, 현재도 계속 수행중입니다."

박종린 위원(53 · 동국대 역경원)은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약속이 있어 늦게 귀가할 때조차 여가시간이나 업무 중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하루 1080배 이상 절하는 '절수행의 달인'이다. 사무실 빈 공간 한 켠에 놓인 <만불명호경>과 방석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그가 절수행에 매진하는 '생활 수행처'다.

박종린 위원은 현재 인터넷 동호회 불력회(cafe.daum.net/buddhapower) 운영자로도 활동한다. 불력회는 돈이나 권력의 힘이 아닌 부처님의 힘 즉, '참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수행 동호회다. 박 위원은 동호회에서 초심자들의 수행고충을 상담하고, 매월 군법당에 들려 설법하는 등 포교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3000배 철야정진도 박종린 위원에게는 소중하다.

불자인 어머니를 통해 모태신앙으로 불연을 맺은 박 위원은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에서 불교교리 기초과정을 수강하며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워왔다. 구도회 영향으로 생활 · 참여 불교를 실천하고자 수행 방법을 찾다 빠져든 것이 바로 절수행이다.

"독경, 좌선 등 많은 수행 방법을 경험했지만 절이 제게 가장 잘 맞았습니다. 절수행은 다른 수행들과는 달리 땀이 나는 등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번뇌 · 망상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 위원에게 절수행은 어떤 의미일까? 박종린 위원은 "거짓된 나를 버리고 내안의 불성을 찾아가는 거룩한 몸짓이 '절'이다. 칭명염불(稱名念佛)이 입을 통한 염불이라면 절은 몸을 통한 염불"이라고 설명한다. 박 위원은 온 몸을 통한 염불을 위해 절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는 '염불절'을 한다.

"요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소리를 들어 '나쁜 업'을 쌓고 있습니다. 염불절을 하면 몸과 귀, 입 모두가 부처님을 향하게 돼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 나'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길입니다." 박종린 위원이 권하는 '염불절'은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독송하며 다시 귀를 통해 부처님 명호를 들어 일체존재의 근본인 부처님께 귀의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수행법이다.

'절 수행의 달인' 박종린 위원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절수행에 몰두해 처음에는 가족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수행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작게는 가족, 크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가족들도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린 위원은 본인만을 위해 수행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찰에서 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처님 전에 빌지만, 그는 부처님 명호만을 독송할 뿐이다.

"사람들 자신이 위대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절을 합니다. 내 개인의 수행으로 어떤 한 사람이 부처님 가피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각 지역 · 국가로 퍼지고 나아가 평화 · 공존의 세계가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아파도 바빠도 하루 1080배 기본
'나무아미타불' 외며 하는 염불절



박 위원의 발원은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육조단경>의 말씀과 닮았다.

박종린 위원이 불자들과 통화할 때 "여보세요" 대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에게 "아나는 불자였지"라는 자각을 유도해, 각자 자신의 불성을 찾자고 권하는 박 위원의 배려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인사말에 어색해하고 쑥스러워 했지만, 취지를 알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 중이다.

박종린 위원은 "일상 속에서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 세상이 불심으로 가득해 진다"며, "수행을 다짐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권한다.

박 위원은 "처음부터 3000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힘들지만, 아침 · 저녁 삼귀의와 사홍선원을 하며 3배를 하는 식으로 수행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절은 몸 움직이는 수행인만큼 때로는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전제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해 놓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어느새 습관처럼 몸에 밴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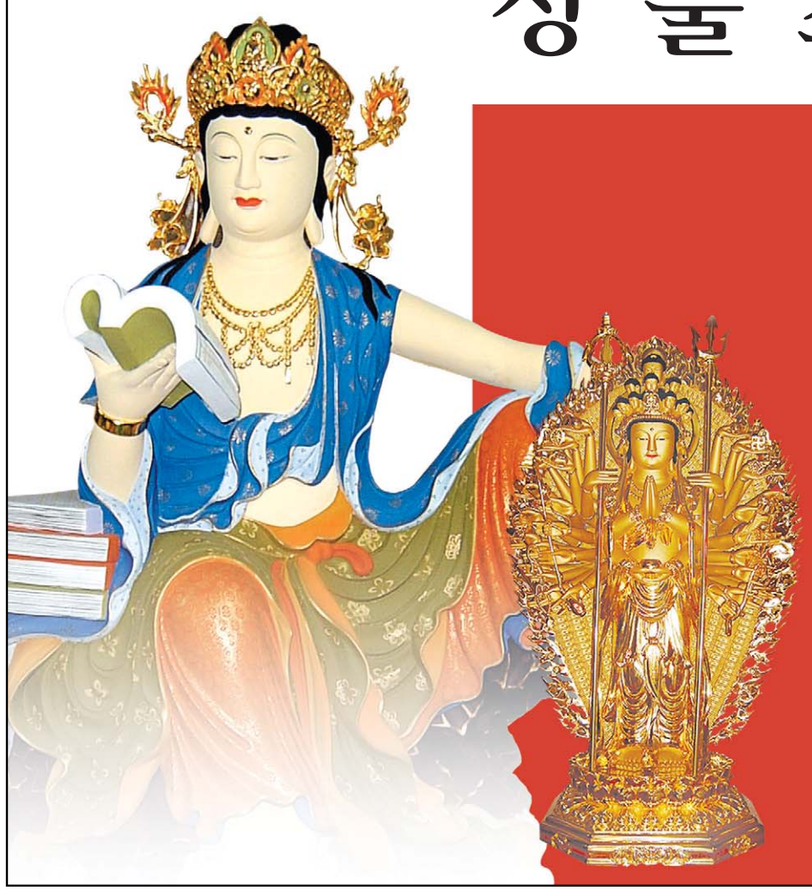
절하기가 생활의 일부가 돼 "하루라도 절을 건너뛰면 어색할 정도가 됐다"는 박종린 위원. 새롭게 500백만배를 목표로 염불절하고 있는 그의 수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 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종정 현 붕 해 총무원장 엄 지 공

재단이사장 경 원

명예이사장 붕 해
상임이사 혜 광
이 사 혜 운
이 사 지 공
이 사 도 기
이 사 화 엄
이 사 일 명
이 사 법 광
이 사 담 화
이 사 경 담
감 사 혜 천
감 사 혜 원

원로의장 금 봉
원로부의장 명 종
원로위원 무 찰
수 암
청 송
송 은
원 각
혜 운
원 경

종회의장 화 엄
종회부의장 경 원
사무처장 도 안
종회의원 덕 봉
법 재 자 명
법 안 도 허
지 운 선 행
도 정 고 봉
덕 산 무 상
남 혜 운 각
경 담 혜 원
진 허

호계원장 용 암
교육원장 원 각
포교원장 법 운
감사원장 법 성

선거관리위원장 해 동

총무원부원장 법 선
총무부장 용 운
재무부장 혜 관
교무부장 지 언
규정부장 지 우
사회부장 지 보 월
홍보부장 진 경
교육부장 법 해
포교부장 혜 성
총무국장 영 담
사회국장 영 우
홍보국장 자 혜

서울교구 직 할
부산교구 삼 주
대전교구 용 주
인천교구 용 운
울산교구 도 현
대구교구 석 담
강원동북 보 해
강원서북 동 청
경기남부 석 은
경기북부 도 혜
경남교구 보 광
경북교구 해 동
전남교구 혜 성
전북교구 석 성
충남교구 청 표
제주 경 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엄지빌딩 4층 전화 (02) 998-8161, 2 전송 (02) 998-8384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 국 불 교 조 계 종

총무원장 보 현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 전화 032)518-1588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 정 석정관

총무원장 도 선

임원 및 종도일동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391-8583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덕 산(석연화)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03호 전화 02)720-6363 팩스 02)720-6340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동불교 임 제 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 지 암

종 도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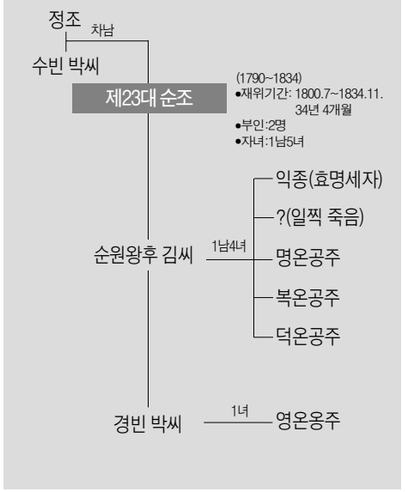
■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전화 061)644-7273 팩스 061)644-7274 핸드폰 010-3807-8428

민생 살피지 못한 순조 대부터 '조선' 침몰 시작돼

55 제23대 순조와 순원왕후

순조 1790년~1834년(45세)
재위 34년 4개월.
1800년 7월(11세)~1834년 11월(45세)

제23대 순조 가계도



인릉(仁陵)

제23대 순조와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 김씨의 능이다. 1834년 순조가 왕위에 오른 지 34년 만에 승하하자 처음 파주 장릉(長陵:16대 인조 능) 곁에 능을 조성했다가, 풍수상 불길하다는 의론이 대두돼 1856년(철종7) 헌릉(獻陵 : 태종의 능) 오른쪽 언덕(右岡)으로 이장했다. 다음해에 왕비 순원왕후가 승하해 순조와 합장했다.

합장릉이라 외형상 단릉처럼 보인다. 봉분은 물론 봉분 앞 혼유석도 하나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장명등은 영릉(英陵 : 세종의 능)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문무인석의 조각은 사실주의적인 것으로 머리가 어깨 위로 나오고 하반신이 더 길어져서 매우 아름다운 형체를 띠고 있다. 순조와 순원왕후는 1899년(광무3) 11월 17일에 숙황제, 숙황후로 추존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산 13의 1. 헌릉과 함께 헌인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194호. 면적 119만 3071㎡ (36만904평)

부와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다. 수명 또한 그렇다. 조선 왕조의 역사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두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천재 임금 정조는 아홉수를 넘기지 못하고 49세에 승하했다. 자식복도 없어 효의왕후는 아예 석녀이고 후궁 의빈 성씨가 낳은 맏아들 문효세자는 5세에 요절했다. 노심초사 끝에 정조가 38세에 후궁 수빈 박씨에게서 얻은 둘째가 순조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지 5일 만에 열한 살, 순조가 즉위한다. 세상이 바뀌고 양지와 음지가 바뀌고 역사의 물줄기가 침몰하는 시점이다. 세도정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활개 치는 시점이기도 하다.

순조가 태어나는 순간은 화려하다. <정조실록>에는 "이날 새벽에 금림(禁林)에는 붉은 광채가 있어 땅에 내리비쳤고 해가 한낮이 되자 무지개가 태묘(太廟)의 우물 속에서 일어나 오색광채를 이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불과 11세 어린애가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가 득세하고 남인을 치기 위한 천주교 박해(신유박해) 등이 벌어져 정조가 물려준 꿈은 흔들렸다.

순조가 15세 때 본격 친정에 나서지만 장인인 김조순 일가가 실권을 잡으며 국정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소위 안동 김씨 세도정치다. 세도(世道)란 본래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뜻으로 중종조 때 조광조 등 사림들이 표방했던 통치원리였다. 그것이 정조 초에 세도의 책임을 부여받은 홍국영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독재를 자행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돼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나 외척들이 독단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말로 변질됐다.

세도정치의 대명사가 된 안동 김씨에 대한 약간의 오해도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 들어서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란 광고판이 곳곳에 서 있다. 조선 후기 세도가 안동 김씨는 안동을 본으로 하는 족벌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서울 자하동과 청풍계 일대에 대대로 거주했던 노론 명가를 뜻한다. 자하동이 장동(壯洞)이 됐고 세도정치를 펼쳤던 이들은 장동에 살던 장동 김씨를 지칭한다. 괜히 핀잔을 받는 안동에 사는 안동 김씨는 억울함을 풀기 바란다.

정치 기강은 문란해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결국 1811년 홍경래의 난이 터졌다. 몰락 양반에서부터 농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던 이 난은 이씨 왕조를 부정하는 반체제적 성격이었다. 이듬해 관군이 진압했지만 조선 후기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분수령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랑시인 김삿갓이 등장했다.


순조 인릉 봉분 쪽으로 휘어진 소나무.

본격 세도정치 시조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 가문 위해 몸 던져
11세 즉위한 순조 기근·전염병·민란으로 130여만 백성 잃어

순조는 이 밖에도 유례없는 기근과 수재, 전염병, 크고 작은 민란과 역모사건에 시달렸다.

전염병으로 10만여 명이란 엄청난 백성이 죽고 재위 34년 중 19년간 수해가 닥쳤다. 순조 14년까지 조선의 인구는 증가 추세여서 총 790여만 명이었다. 순조 16년 통계 조사에는 659만여 명이다. 130여만 명이나 감소했다. 엄청난 숫자다. 당시 한성부(서울) 인구는 20여만 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130여만 명 백성을 잃은 군주, 억조창생을 지켜주지 못한 왕이 순조다. 참고로 조선초 태종 때 조선의 인구는 320만2000여 명, 임진왜란 전 인구는 370여만 명, 임란과 병란을 겪은 후 조선의 인구는 150여만 명이었다.

물론, 호구수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당시의 실제 인구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를 한 토니 미쉘(Tony Micheell)은 조선후기에 보고된 호의 총수는 일반적으로 약 50% 정도 축소된 수치였고, 기록된 호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구원의 약 23% 정도가 호적에 누락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인구 감소는 명백한 사실이다. 백성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군주, 쇠락의 문턱으로 정신없이 내몰린 군주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다.

순조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폐단을 막아보고자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다. 그러나 풍양 조씨의 득세로 이어질 뿐이었다. 개 피하려다 뱀 만난 격이다. 아니 둘 다 피하지 못했다. 두 가문은 득세를 위한 싸움에만 몰두했다. 선정, 민생은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피는 속일 수 없었다. 학문을 즐긴 순조는 문집 <순재고>를 남겼다. <양현전심록> <대학유의> <만기요람> 등 학문과 정사에 다양한 저서도 간행하게 했다.

인릉은 합장릉이다. 생전에 금슬이 어떠했던지 간에 영원히 한 이불 속에서 지내야 한다. 함께 묻힌 순원왕후는 아슬아슬하게 왕비가 됐다. 눈앞까지 왔던 금메달을 날려버릴 지경에 용케 낚아채어 목에 걸었다.

순원왕후는 본격적 세도정치의 시조인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딸이다. 1800년(정조24)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3간택을 앞두고 갑자기 정조가 승하했다. 1차, 2차 시험에 통과하고 최종 면접을 앞두고 심사위원장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수모를 당하며 살아온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대비마마가 됐다. 할머니뻘인 대비와 정조는 오랜 앙숙이다. 정조가 죽자 대비의 세상이 됐다. 정순왕후는 자신의 외척인 김관주와 권유 등을 시켜서 간택을 무효화시키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터이라 조정 여론을 장악하지 못해 결국 간택은 유효하게 작용했다.

순원왕후는 아버지 김조순, 오라비 김좌근으로 이어지는 안동 김씨 집권의 중심축이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몸을 던진 여인이다. 지아비 순조와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릉 곁에 있는 헌릉에 묻힌 태종만큼 힘이 있었다면 외척의 발호를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장인과 처남 네 명을 사정없이 처단했다.

순조와의 사이에서 1남 4녀를 두었지만 외아들 효명세자는 아들 하나 낳고 22세에 죽었다. 아들이 보위를 잇지 못하고 손자가 왕위를 이으니, 24대 헌종이다. 헌종은 자식 없이 23세에 승하했다. 순원왕후 친정은 가문의 영광을 누렸지만 자신은 대가 끊겨버렸다. 오호, 통재라! 누구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할 것인가?

순원왕후는 대왕대비 시절, 며느리 조대비의 풍양 조씨 일문이 미처 손을 쓰기 전에 사도세자의 증손자인 강화도령 원범이(철종)를 지목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 천둥벌거숭이 원범이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데 그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나라꼴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우나 고우나 한 이불 속에 잠들고 있으니 없는 정일망정 만들어가시라. 영혼이 잠시 나와 쉬는 혼유석도 한 개 뿐이다. 거기서도 서로 부둥켜안고 노는 수밖에 없다. 밀치고 외면하다간 돌 밖으로 굴러떨어진다. 이런 의도로 한 개를 설치했을 리는 없다. 왕권이 허약하니 대충 때운 것이리라. 순조(純祖), 순원왕후(純元王后)시여, 그 이름만큼만 너그럽고 유하게 지내시길. 원(怨)은 푸시고 정(情)만 가을 잔디처럼 새록새록 푸르러지길 서원하나이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석호의 수염이 유난히 길다.

권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경전 공부와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불서총판 운주사 / 법우당 및 전국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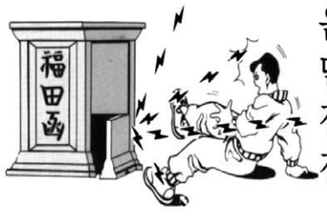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③

십이인연관 닦아야 자비심 일어나

三慈心善根發相 行者因修止觀故 若得欲界未到地定 於此定中 忽然發心慈念衆生 或緣親人得樂之相 卽發深定 內心悅樂淸淨 不可爲喩 中人怨人 乃至十方五道衆生 亦復如是 從禪定起 其心悅樂 隨所見人 顔色常和 是爲慈心善根發相 悲喜捨心發相 類此可知也

세 종류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관찰하는 가운데 선근이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 밝혀보자. 우리 중생들은 무량겁이래로 지관공부와 대자대비, 대희대사, 사무량심(四無量心) 등의 수행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문제를 두고 옛사람은 "가사를 입기 쉽다고 말하지를 말라. 이것은 전생에 보리의 종자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수행자가 과거 전생에 자비희사(慈悲喜捨) 사무량심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단지 그 공부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지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생에 자비희사 선근을 심은 인연에다 금생에 지관을 수행한 것으로 인해 미도지정을 얻으면 홀연히 과거 전생의 선근이 발동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가까운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모습을 따라서 자신도 즐거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친한 사람으로 부모와 스승이고, 두 번째는 중간쯤 친한 사람으로 형제와 자매이고, 세 번째는 조금 친한 사람으로 친구와 지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종류의 친한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도 역시 세 종류로 차별이 난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기도 하고, 중간쯤 친한 사람이 보살 나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기도 하고, 최하로 친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심오한 선정에서 갖가지 쾌락의 모습이 일어나 마음이 쾌락하고 청정해지는데, 그 즐거움이 세간 오욕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친하지도 않지만 소원하지도 않는 중간쯤 친한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을 연유해서 일어나는 쾌락상도 역시 세 종류가 있다.

최하로 친한 사람을 해칠 경우 그것은 최하의 원한이 되고, 중간쯤 친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중간쯤 원한이 되고, 최상으로 해치는 사람은 최상의 원한이 된다.

그러나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중간쯤 친한 사람을 논할 것 없이 그들이 즐거움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까지도 즐거움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선정에 들면 시방육도의 일체 중생가운데 친함과 원한을 논할 것 없이 낱낱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연민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원한과 친함이 평등하고 아상과 인상이 동시에 공적하여 선정가운데서 자애로움을 일으키게 된다.

선정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 기쁘고 쾌락하여 한 생각이라도 상대방에게 염증과 원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색은 항상 부드럽고 화색이 돌게 된다. 이것을 두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관찰하는 데서 일어난 선근의 모습이라고 한다.

사무량심 가운데 자애로운 마음이 이와 같다면 나머지 비(悲), 희(喜), 사(捨)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나머지 세 가지 마음도 이를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四因緣觀善根發相 行者因修止觀故 若得欲界未到地身心靜定 忽然覺悟心生 推尋三世無明行等諸因緣中 不見人我 卽離斷當 破諸執見 得定安穩 解慧開發 心生法喜 不念世間之事 乃至五陰十二處十八界中 分別亦如是 是爲因緣觀善根發相

네 번째로 인연관을 닦아 일어난 선근의 모습이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인을 보조하는 조건을 말한다.

인은 삼세 십이인연이다.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에서는 십이인연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삼세십이인연(三世十二因緣)이다. 과거 무명(無明)과 행(行)의 이지인(二支因)이 현재의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의 오지과(五支果)를 부르고, 애(愛) 취(取) 유(有)의 현재 삼지인(三支因)이 미래 생(生) 노사(老死)의 이지과(二支果)를 부르는데 이것이 삼세십이인연이다.

두 번째는 이세십이인연(二世 十二因緣)이다. 무명과 행으로부터 애 취 유에 이르기까지 현재 십지인(十支因)이 되어서 생 노사의 이지과를 불러들인다. 그 때문에 이세십이인연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일념십이인연(一念 十二因緣)이다. 이는 현재 한 찰나에 일어나는 생각에 십이인연을 동시에 갖추었음을 말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 생각은 극도로 촉박한 한 찰나의 일념이 아니며 선업과 악업이 일어나서 성취되기까지 일념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념무명을 일으켜 한 마리의 닭을 살생하려 할 때 살생하고 나서야 그 업이 이뤄지는 것까지를 일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념은 삼세십이인연과 이세십이인연이 시간적으로 연이어 속박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삼세인연은 단견과 상견을 타파하고, 이세인연은 아상의 집착을 타파하고, 일념인연은 실제 성품이 있다는 것을 타파한다.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이 세 가지 인연관을 닦았으나 단지 오음의 집착 때문에 부모의 태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수행했던 마음이 미혹해진 것이다. 그 때문에 현생에 그러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금생에 지관을 수행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홀연히 깨달은 마음이 일어나 삼세 무명 행 등의 모든 인연을 추리해 보면 그 가운데는 인상과 아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단견과 상견을 떠나 모든 집착을 타파하게 된다.

최초로 무명은 행을 깔고, 행은 식을 깔고, 유는 생을 깔고, 생은 노사를 깔고 있기 때문에 혹업고(或業苦)의 생사인과를 이루게 된다.

이를 역으로 추리해서 지금 노사는 어디로 부터서 왔는가. 그것은 생으로 부터서 왔으며, 생은 취로부터 왔고, 식은 행으로부터 왔으며, 행은 무명으로부터 왔고, 무명은 망상전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 전도된 망상을 추구해 보면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간 것이 없어 그 자체는 원래 허망한 무명으로서 끝내 실체를 얻지 못한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며 노사까지도 소멸한다.

삼세인연이 단견과 상견을 타파한다는 것은 삼세는 끝없이 교대로 뒤바뀌기 때문에 상주도 아니고 상주도 아닌 가운데서 삼세는 끝없이 상속하기 때문에 단멸도 아니다.

또 과거는 이미 흘러가 없음으로 상견을 타파하고, 미래는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단견을 타파하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간단없이 소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단견과 상견을 쌍으로 타파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가사를 입는 것은 전생에 선근 심었기 때문
삼세인연 수행하면 단 · 상견 타파할수 있어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연생론(緣生論)

1) 동시의존관계(同時依存關係)

연기론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동시의존관계'의 근본은 주관과 객관의 상호관계성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인식주관과 객관대상의 상호 동시적인 관계성을 지적한 것이며, 이 관계성을 떠난 밖에 따로의 세계가 아닙니다.

또 우주라고 하는 것도 육근과 육경의 상호인식체계상에서 성립될 뿐, 그 밖의 나의 인식을 떠난 따로의 세계는 없습니다. 때문에 주관인식이 없다면 객관대상의 세계도 없고, 객관대상의 세계가 없다면 역시 상대적으로 주관인식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잡아함경' 13권에서 말씀하신 일체의 사물은 주관인식과 객관의 명색(名色), 즉 오온이 상대적으로 의존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잡아함경' 12권에서는 두 개의 갈대로서 비유하여 말하기를"인연이란 마치 두 뿌리에서 생장한 갈대가 하나로 묶여 서로를 의지해야만 성립할 수 있듯이 '명'과 '색'이 서로가 인연이 되어 주관인식인 '명'이 있고, 주관인식인 심법이 인연이 되어 그 대상인 '색'이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갈대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제거하면 나머지 한쪽도 반드시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독립된 하나의 갈대로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관계성을 따라서 인과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시의존관계(異時依存關係)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체의 현재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자체가 고정불변 하는 실재가 아니라 찰나 찰나 무상하게 변천하는 생멸상속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단멸로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관계성이 존재한다면 그 사물들도 변화를 거듭하면서 인과율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잡아함경' 12권에서는 부처님이 생사유전(生死流轉)과 환멸해탈(還滅解脫)의 인과상속 과정을 설명하면서 십이인연관(十二因緣觀)을 밝혔습니다.

십이인연관은 인과론적인 생명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유정들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며 죽어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십이인연에서는 동시적인 인과관계의 연결고리에서 인생 한 기간의 모습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식(識) 과 명색(名色)의 관계성에 있다고 하겠는데, 즉 '식'이 있음으로 해서 '명색'이 동시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이야말로 무명과 행업(行業)에 훈습된 무명업식(無名業識), 즉 종자식(種子識)입니다. 이 식을 두고 대승유식학파에서는 '제팔아뢰야식'이라고 호칭하는데, 이 제팔아뢰야식이 모든 유정들 생사의 근원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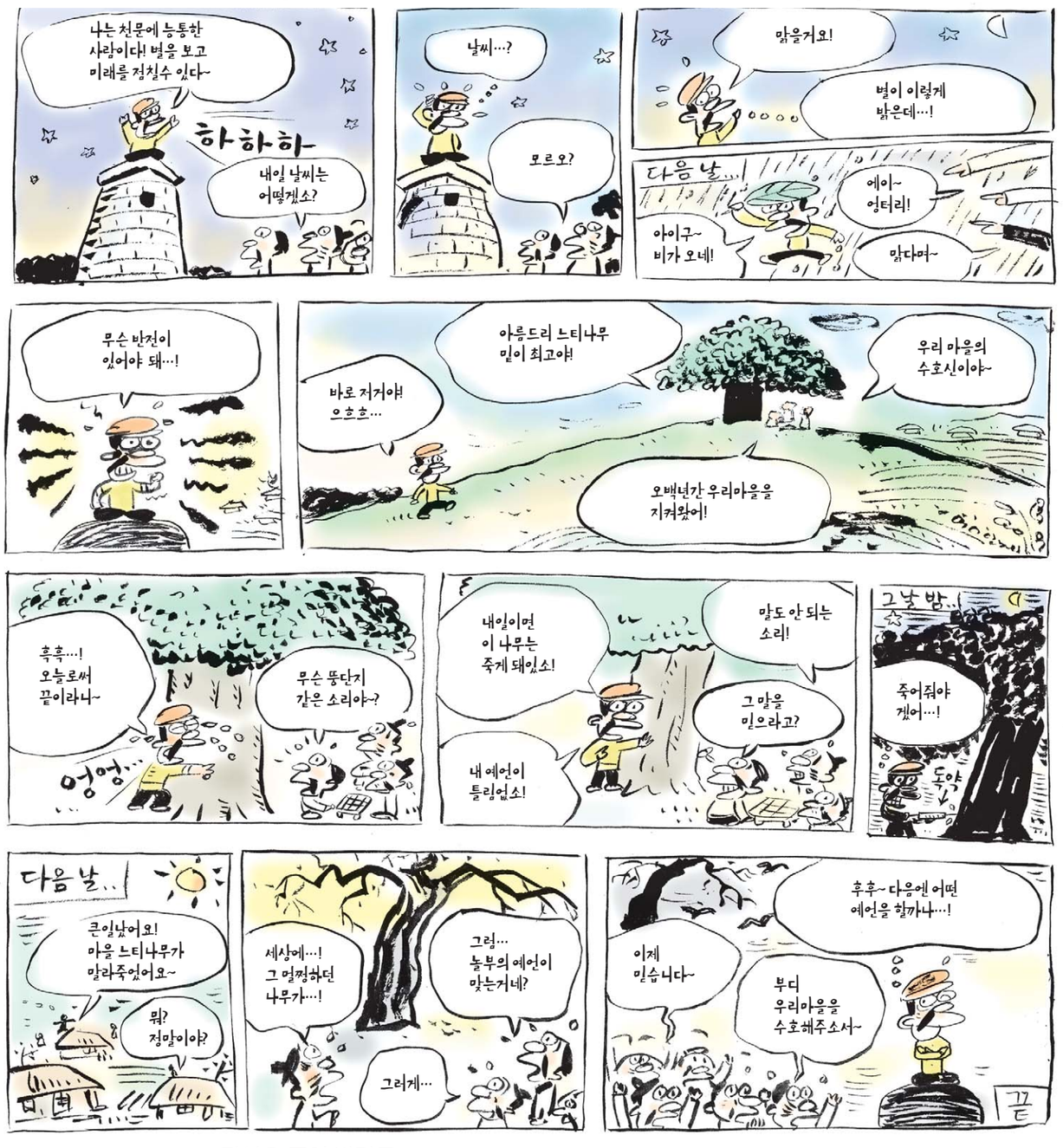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웃음보살 불등거사 <19>

구성 : 김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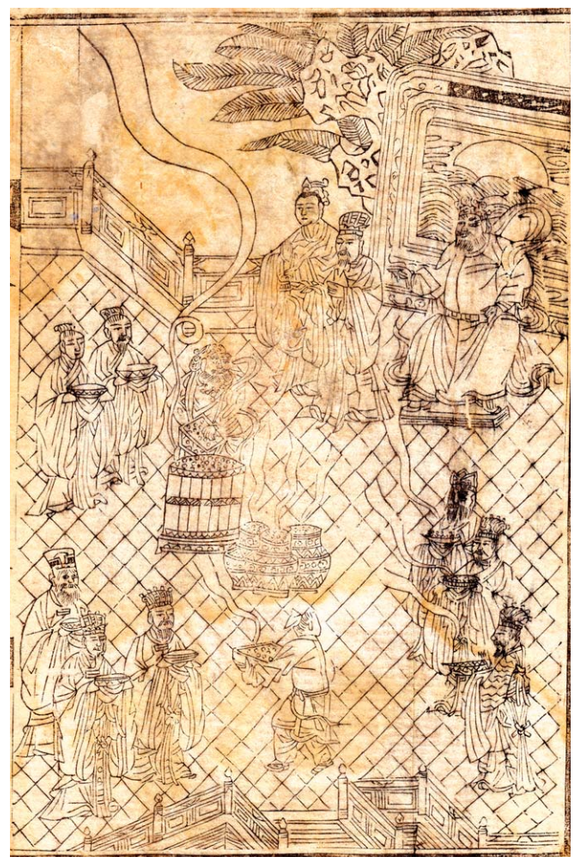
자식을 죽인 바라문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바라문이 스스로 많은 것을 안다고 했다. 자기의 재주를 믿고 그 덕을 나타내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식을 안고 울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우는가." 그는 말했다. "이제 이 아이는 7일 후 죽을 것이다. 일찍 죽는 것이 가여워 우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예언을 입증하기 위해 7일 째가 되자 스스로 자식을 죽여, 자기가 한 말을 입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이 맞았다"고 탄복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우러러 모두 와서 공경했다. 어리석은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를 얻었다고 자칭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법으로 선남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자비의 덕을 나타낸다. 그것 때문에 장래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니 마치 저 바라문이 자기 말을 입증하려고, 자기 자식을 죽여 세상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사리를 공평히 나누다 균분사리(均分舍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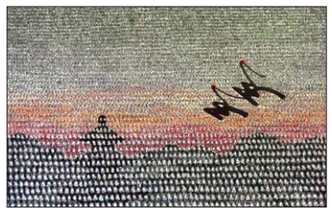
고려시대 장 〈석씨원류應化事蹟〉 중 균분사리均分舍利편. 1673년간행. 비단에 채색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천신, 용왕과 여덟 나라 왕들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을 표현했다. <처태경>에 언급된 본문의 내용은 "8대왕들이 각기 병사를 거느리고는 사리를 얻기 위해 말다툼을 벌였다. '부처님 사리는 내가 마땅히 홀로 얻어야 한다.' 이때 대신인 우바길이 이들에게 충고했다. '여러 왕들은 말다툼하지 마시오. 사리는 마땅히 나눠 갖고 모두가 공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제석천왕도 말했다. '우리들 모든 천신들 역시 마땅히 한몫이 있어야 합니다.' 용왕들도 말했다. '우리들도 한몫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바길이 말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시오! 사리는 마땅히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를 3등분으로 나누어 한 몫은 천신들에게, 다른 한 몫은 여러 용왕들에게, 나머지 한 몫은 여덟 나라 임금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들은 각기 금단지로 한 섬 남짓한 사리를 받았다. 천신들은 사리를 얻어 하늘위로 돌아가 탑을 세웠고 용왕들도 사리를 얻어 용궁으로 돌아가 탑을 세웠다. 여덟 나라 임금들도 사리를 얻어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탑을 세웠다."

부처님 사리는 3등분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나누어져 탑 속에 봉안됐다. 지상에 세워진 여덟 개의 탑 중에 두 곳이 현재 확인돼 신화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발견은 1898년 1월 영국인 윌리엄 펩페가 인도 · 네팔 국경 인근 삐뿌라와에서 발굴한 사리용기다. 용기에는 아쇼까왕 시대 문자인 브라흐미문자로 '이것은 샤카족 붓다인 세존의 유골용기로서 명예로운 형제 · 자매 · 처자들이 모셨다' 고 적혀 샤카족이 분배 받았던 사리용기로 판명됐다. 두 번째 발견은 웨살리의 아비세카 푸스카루니 연못 근처에 있는 탑의 터다. 1957년 알떼까르 박사가 발견한 사리용기는 새겨진 글은 없으나 출토상황과 탑의 구조로 미루어 붓다의 사리를 담았던 용기로 인정받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증거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파리가 얼굴을 기어다닌다
다리가 여섯 개다
살았다는 증거…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소리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쪽빛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겠지요.

"한동안 忍苦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불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_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 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안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어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름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매끈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고나 할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황의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밀한 하심을 띄운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02) 2198-5153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표회장 **회암** (재단법인 미타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현산** (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산수 (대한불교 사암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성일** (대한미타 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혜성 (대한불교화엄조계종총무원장)
법광 (세계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향운 (세계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운공 (대한불교 홍재종 총무원장)
일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총무원장)
동선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미륵선종 총무원장)
정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총무원장)
혜명 (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법우 (조계종 정토불교 총무원장)
탄공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회범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장)
도선 (생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청원 (대한불교 불광종 총무원장)
성우 (세계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청호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삼일 (대한불교 임제종 총무원장)
혜공 (대한불교대승연화종총무원장)

감 사 기산 (한국불교조계선종종회의장)
융호 (한국불교 인왕종 총무원장)

■ 총무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39 진영빌딩 4층 전화 02)3436-0796 팩스 02)2201-1163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 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圓正 性觀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서울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 혜 안

종 도 일 동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 총본산 : 지리산 칠보정사 055)883-7771, 7790 / 팩스 883-7796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摩定

종 도 일 동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 3동 120-7 전화 02)496-3951~3 팩스 496-3950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종 정 지 명
총무원장 덕 우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번지 도선사내 전화 02)2091-0408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석혜공 우암정사**

부종정 **석 혜 승 보문정사**

승정원장 석추봉 안덕사

총무원장 석진봉 가상사

종회의장 **석지경** 천용사
사정원장 **석지운** 삼정사
포교원장 **석인봉** 보림사
교육원장 **석명산** 정명사
수선원장 **석지심** 천보사
문화원장 **석승봉** 약천사

종도 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TEL 02)937-0343 FAX 02)937-0344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미타종 유지재단**

< 회원 및 단체 안내 및 등록 안내 >

대한미타조계종 한국미타조계종
대한불교미타종 한국불교미타종
세계불교법왕종 대한정토불교
불교조계종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한국불교단체진흥회 회장 **정회암**
02)2242-7985/017-390-0909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도일동

신규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 신풍사 055)346-2910
-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13 오세암 055)521-1878
- 연수원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466-1 도양사 054)956-9666
-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 011-869-8608
- 한글 홈페이지 대한불교대원종 또는 http://cbc108.tv:9004
  e-mail : asp8990@hanmail.net